

檢 수사, 선주·선박회사 비리 정조준

사고원인 관련 청해진해운 경영·직원관리 집중 파헤쳐
압수수색·임직원 40여명 출금…해경도 수사선상 올라

세월호 침몰 참사 6일째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칼 끝이 선주와 선박회사를 향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잡혔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 규명을, 검찰은 별도로 선주와 선박회사의 부정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자도 40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선장 등 승무원 외에 청해진해운 임직원, 회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인물까지 대거 포함됐다. 수사선상에 오른 40여명 모두 출금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해운사·선주 책임 소재까지 사고의 총체적 상황을 낱알이 파헤쳐졌다는 각오다.

초대형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자 수사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은 경영상의 부실이 세월호 침몰사고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여부다.

경영상 비리나 횡령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여객선 부실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꾸려진 수사팀은 선주와 선박회사의 각종 부정한 겨냥한 채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회사 측의 구조적 원인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집중 파헤칠 방침이다.

주임검사인 정순신 특수부장은 “청해진해운의 경영 상태나 직원 관리 등에 문

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는 선박회사와 선주의 회사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회사와 선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해양수산부, 해경 등 유관 기관과의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승선 인원이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난 동안 선박회사와 해경 등에서 제각각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화물 선적과 관련해 각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집계 역시 검찰이 주시하고 있다.

현재 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해경까지 수사선상에 올라 수사 깊이에 따라 상당한 과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선원과 선박 운영, 출항감독기관, 세월호 도입과 증축 검사 과정 등 관련 기관들도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sbkim@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째인 20일 오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사고실종자 무사귀환 촛불거원에 참여한 한 시민이 슬픔에 잠겨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경제지표 ‘눈속임 통제’ 커지는 경제정책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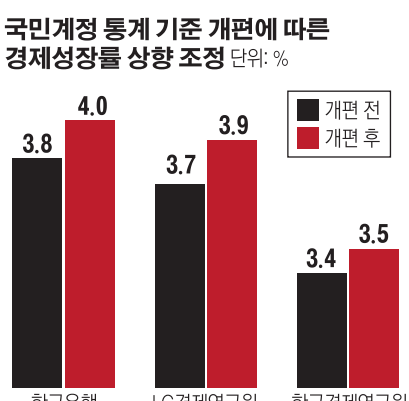
산출기준 바뀌 성장률 전망 상향
국가채무도 지방분 제외로 ‘착시’
통계와 채감경기 갭 갈수록 커져

통계상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일부 경제지표 때문에 경제수치와 채감경기 간 간극이 확대되면서 경제정책의 오류 가능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1일 경제부처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눈속임을 유발하는 통계수치로 인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살림살이는 여전히 냉골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경제정책 수립에도 혼선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산출한 수치다. 기재부는 재정동향이 처음 발간된 2월호와 지난달 나온 3월호에서는 국가채무에 지자체 채무 잠정치(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를 더한 국가채무 규모가 공개됐지만 이번 호부터는 지방정부 채무가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채무는 매월 나오지만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결산시에만 산출되기 때문에 잠정치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중앙정부 채무 실적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2013 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한 검증작업 종이라 4월 국무회의 결산 심의 이후에야 새로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 2·3월호 발표 때와 달리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민계정 산출 기준 개편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의 ‘장밋빛’은 더 짙어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4.0%로, LG경제연구원은 3.7%에서 3.9%로 각각 0.2%포인트씩, 한국경제연구원도 3.4%에서 3.5%로 0.1%포인트 올렸다. 새 국민계정 기준에 맞춰 국내총생산(GDP)을 다시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의 고용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2017년 고용률 목표를 기존보다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도 논란거리다. 중장년층의 고용 훈풍은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어서 내실 없이 겉으로 보이는 고용률 목표 수치만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전민정 기자 puri21@

“상반기 중 금융규제 10% 없앤다”

당국,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당국이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신재운 금융위원장은 “올 상반기 중 금융 규제의 10%를 없애겠다”며 규제 개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른바 숨은 규제인 금융당국의 구두나 행정지도, 금융협회가 만든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상반기 중 대대적으로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법령상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 규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은행, 증권, 보험, 2금융권 영역에서 손에 잡히는 규제 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최우선으로 개선기로 한 규제 대상은 당국의 행정지도와 실무해석·의견, 매뉴얼, 각종 협회 주관의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 방안 등이다.

총 756개에 달하는 규제가 개혁 대상이다. 규제 개선을 위해 기관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원 분석과 조사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질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단기간의 규제 개혁 실적에 집착해 정작 금융권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여부가 의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투데이는 오는 30일 ‘2014 금융 규제 개혁 토론회’ 개최에 앞서 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각 업권의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미리 조명한다.

안철우 기자 acw@

세월호 오너家 산업은행 돈으로 사업확장

청해진해운 등 630억 빌려
침몰사고·그룹 경영난 회수 비상
은행 “담보 잡고 있어 문제없다”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 등 세월호의 실질적 오너가 산업은행 돈으로 사업 확장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청해진해운 등 오너가 소유한 주요 회사들이 산업은행에 수백억원을 차입했으나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경영난이 예상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비상성이 커졌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담보가 있어 대

출금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작년 말 기준 95억원의 단기차입금과 108억원 규모의 장기차입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 청해진해운은 단기차입금 95억원 중 73%인 69억원을 산업은행에서 3.85~5.25%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또 장기차입금 108억원 중 92%인 100억원을 시설자금 명목으로 5.37%의 이자율로 조달했다.

청해진해운의 외부차입 규모는 현 오너가인 유병인 전 세모 회장 일가에 인수되면서 급격히 증가했다. 현 오너가에 인수

되기 직전인 2007년 청해진해운의 외부차입금은 단기차입금 49억원, 장기차입금 27억원 등 76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단기차입금 61억원, 장기차입금 80억원으로 불어났고 작년 말에는 2007년 대비 2~4배 이상 증가했다.

청해진해운의 지배회사인 천해지의 산업은행 대출금 규모는 더욱 크다. 선박부품 생산 및 조선플랜트 업체인 천해지가 작년 기준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은 644억원이다. 천해지는 외부차입금 중 52%인 333억원을 산업은행에서 조달했는데 이중 단기차입금은 256억원, 장기차입금 77억원이다. 이 밖에 아해와 다판다 등 주요

회사를 포함한 산업은행 차입금은 632억원 수준이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세월호를 담보로 청해진해운에 100억원을 빌려줬으나 침몰사고로 인해 아이원아이홀딩스그룹 전체에 경영난이 예상되면서 회수 가능성에 변동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여기에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것 역시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다만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자산에 담보물을 잡고 있어 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소유의 오하마나호, 오가고호, 데모크라시1·5호, 세월호 등을 담보 자산으로 잡고 있다. 또 천해지는 공장 토지 등을 채권최고액 450억원으로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국민소득 중 가계비중 줄어

우리나라 국민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기업과 정부의 몫을 제외한 가계의 1인당 소득(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GDI)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이전에는 57%를 웃돌았으나 2010년부터는 55%대로 내려왔고 작년에도 56.1%에 그쳐 최근 5년 평균치(56.4%)에 못 미쳤다. 이는 다른 OECD

GraphicNEWS

GNI 대비 가계총처분가능소득 비율

한국 55.4% (OECD 21개국 평균 62.6%)

단위: % (2012년 기준)

멕시코 78.3

포르투갈 76.6

미국 74.2

이탈리아 69.1

영국 69.0

에스토니아 55.0

회원국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김민지 기자 kimji@

기업 채무상환능력 늘어

국내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영업이익의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613곳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4.84배로 지난 2012년 4.23배보다 14.42% 높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높을수록 채무상환능력이 좋아진 것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4.84배라는

상장사 영업이익·이자비용 비교

이자비용 영업이익

13조 7623억 (2012년) 12조 4830억 (2013년) 58조 1840억 (+3.82%) 60조 4068억

것은 이자비용의 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의미다. 강인호 기자 kangih@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 시리즈 1 은행 ▶5면

Biz

월요섹션 19~25면

커버스토리 스마트폰 3차대전 돌입

이건희 회장 ▶8

홍석규 회장 ▶27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세월號 “탈출 불가능”…구조대는 선실진입 왜 안했나

긴박했던 교신내용에도 조치는…

지난 16일 오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와 진도연안해양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이 공개되면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이 오전 9시 38분부터 41분 사이 탈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교신에서 세월호가 침몰 중이었고 승객은 배가 기울어 탈출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된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세월호 선장과 일부 승무원이 배가 침몰하기 전 승객 구조활동 없이 배에서 탈출했고, 승객이 탈출 불가능한 매우 급한 상황에도 구조대가 배 선실 진입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이 인명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이번 대형 참사는 충분히 회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초기 대응 미흡으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는 '인재'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전남 진도군청에서 고명석 사고대책본부 대변인(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 공개한 녹취록은 사고 발생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세세히 보여줬다. 세월호와 진도 VTS의 교신은 당일 오전 9시 38분 세월호가 “배가 한 60도 정도만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가 지 다 뺏습니다. 해경”을 마지막으로 통신이 끊겼다.

진도VTS는 오전 9시 41분 세월호와의 교신을 계속 요청했지만 세월호에서 응답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선장과 일

진도 VTS와 침몰중 급박한 상황 전해
선장·승무원 등 교신 유지하지 않은 채
오전 9시38~41분 먼저 탈출한 듯

구조대 도착 후 침몰까지 한시간 동안
빠져나온 승객 구하느라 선실 투입 못해
“탐승객도 500명 정도”…아직도 몰라

부 승무원들이 계속 교신을 유지했어야 함에도 이 시간 모두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15분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에서 세월호가 “선원들도 브리지(조타실)에 모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고 밝혀 선원들이 승객 구조보다는 먼저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은 오전 9시 50분께 해경경비정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개된 녹취록에는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급박한

상황도 담겨 있다. 사고 당일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에서 오전 9시 7분 지금 침몰 중이라는 교신이 있었고 이어 오전 9시 10분 세월호가 “기울어서 급방 뭐…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전 9시 14분 다시 세월호가 “지금 배가 많이 기울어서 (승객)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오전 9시 17분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져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등 여러 차례 긴박한 상황을 알렸다.

진도VTS도 오전 9시 19분 주변 어선들에 “현재 세월호는 탈출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라고 교신했다. 주변에 있던 유조선도 진도VTS에 오전 9시 23분 “지금 침몰 직전인 것 같습니다”고 급박한 상황을 알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군해난구조대(SSU),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해병특수수색대 등 군의 특수 인명구조대나 해경구조대가 탈출 불가능한 승객 구조를 위해 선실 안으로 투입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구조대 도착 후 침몰 직전까지 약 40분에서 한시간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빠져나온 승객을 구조하는 데 집중하느라 구조대를 선실 안으로 투입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녹취록에서 세월호의 탐승객이 현재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보였다. 9시 13분 세월호는 진도VTS에서 승선원 인원을 묻는 질문에 “500명 정도 됩니다”고 밝혀 현재 정부의 탐승객 공식 집계인 476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신동민·진도=유충현 기자 lawsdm@

세월호,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 내용	
8시 48분	세월호 급선회
8시 52분	조난신고 최초 접수, 북쪽으로 표류 시작
8시 55분	제주 VTS 신고 세월호 “해경에 연락해 주세요.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
8시 58분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 사고 정식 접수
9시 6분 ~38분	진도 VTS 교신 세월호에 긴급 구호조처 취하 사고현장 인근 화물선 등에 여객선 조난 사실 알리고 구명벌 등 구조장비를 해상으로 투하하라고 지시
9시 7분	(오전 9시 6분 세월호 교신을 시도, 9시 7분께 교신 성공) 진도 VTS “지금 침몰 중인가?” 세월호 “그렇다. 해경 빨리 좀 부탁드린다.” 진도 VTS “인근에 교신 중이던 다른 선박에 구조 협조 부탁”
9시 10분	(세월호의 상황을 묻자) 세월호 “너무 기울어 있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9시 14분	진도 VTS “승객들이 탈출 가능한가?” 세월호 “배가 많이 기울어 탈출이 불가능하다.”
9시 17분	세월호 “지금 50도 이상 좌현으로 기울어 사람이 좌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며, 선원들도 브리지에 모여 거동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와주기 바랍니다.”
9시 23분	진도 VTS “방송으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하라.” 세월호 “방송이 불가능하다.”
9시 25분	진도 VTS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탈출을 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려라.” 세월호 “지금 탈출하면 바로 구조할 수 있느냐?” 진도 VTS “헬기가 1분 후에 도착한다.” 세월호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 가지는 안될 것 같다.”
9시 33분	진도 VTS “탐재된 구명벌과 구명정을 모두 투하시켜 바로 사람이 탈출하면 탈 수 있게 준비 바랍니다.”(이후 감도 떨어지기 시작)
9시 37분	세월호 “침수상태 확인 불가하고 지금 해경이나 옆에 상선들은 50m 근접해 있고 좌현으로 탈출할 사람만 탈출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배가 한 6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까지 다 뺏다.”



20일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3km 앞 사고 현장 전수부문에 바지선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기본 안지킨 승무원들 사고대처 매뉴얼 무시

방항기를 켜 3등 항해사는 경력 6개월에 불과했고, 배의 안전은 경력 6개월 항해사의 운항 미숙이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15일 오후 9시 승객 476명, 차량 180대, 화물 1157톤을 싣고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16일 오전 8시 4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인 맹골수도(孟骨水道)를 지나고 있었다. 이곳

은 명랑대첩지인 울돌목 다음으로 조류가 거센 곳이다. 당시 배를 몰았던 승무원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다. 더욱이 박씨는 맹골수도의 운항 경험이 없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사고가 난 뒤 따라야 할 ‘운항관리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에는 선박이 사고가 나면 1등 항해사는 배의 우측, 2등 항해사는 배의 좌측을 맡아 탈출을 지휘해야 한다. 이 외에 조타수와 기관사는 배 양쪽의 구명정을 투하해야 한다. 특히 선장 이모씨, 3등 항해사 박모씨와 1등 기관수와 조타수는 모두 첫 번째로 배를 탈출했다. 이들 핵심 선원 15명은 16일 오전 9시 50분께 승객과 함께 해경경비정에 구조됐다.

합수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만 보류 중인 무전기를 이용해 탈출을 모의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각자에 맡겨진 임무는 무시한 채 대부분 브리지(조타실)에 모여 있었다. 이처럼 세월호 승무원이 안전관리규정을 무시한 것은 이 선박의 선사 청해진해운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천안함 백서’ 만들기만 한 정부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밟고 여행을 가려다 죽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아버지는 20일 오전 진도체육관 앞에서 경찰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다. 아버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로 가려 했다. 그러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의 청와대행은 무산됐다.

법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1시 실종자 가족을 만나러 진도에 왔다. 그가 실종자 가족과의 비공개 면담을 마친 뒤 현장을 빠져나오기까지는 3시간이 걸렸다. 실종자 가족은 그에게 “생존 수색을 포기하지 말라”며 걸음을 막아섰다.

정부당국의 세월호 실종자 구조 지휘체계가 신뢰를 잃었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

마다 실종자 가족들은 격앙된 감정을 감추기 힘들어했다.

◇무능한 중대본, 뒤바뀌는 컨트롤타워가 혼선 원인= 법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당국이 자초했다. 사고 당일인 16일 정부는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컨트롤타워로 세웠다. 그러나 다음날인 17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법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컨트롤타워를 바꿨다. 정부 스스로 중대본의 무능을 인정하고 이 조직의 존재를 유명무실화한 것이다.

중대본은 지난 2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재난의 총괄 기능을 맡게 된 신설 조직이다. 중대본은 현재 현장의 인명 피해와 구조, 수색 상황을 전달받는 ‘식물분부’ 역할을 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진도를 직접 방문한 이후

실종자 가족들이 20일 청와대행을 택한 것도 정부 대응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단면으로 해석된다. 다른 관료나 정부 재난구조체계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실종자 가족은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발언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 소속 송모 감사관 일행이 20일 진도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발언한 파문도 정부의 신뢰를 깎아내렸다. 송모 감사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실종자 가족을 격분하게 해 팽목항 일대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안경부는 물의를 빚은 송모 감사관을 즉각 직위박탈 조치했지만 한 번 쏜 아진 물은 담아지지 못하는 법이다.

◇천안함 백서 망각한 정부, 재난관리 허점= 2010년 3월 순조원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는 재난·재해 발생 시 발 빠른 위기 대응을 위해 천안함 백서를 만들었다.

백서에는 △정확한 현장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응 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 △사건 발생 시각을 수차례 변경해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생존자 구조를 위한 탐색 구조 및 인양 작전이 지연됐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노력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는 4년 전의 반성을 망각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당국은 탐승자, 구조자 숫자를 시시각각 변경해 혼선을 초래했다. 해군 구조함은 선체가 완전히 전복된 이후인 17일 새벽에야 도착했다. 중대본, 해경, 교육청 간의 엇박자는 실종자 가족의 가슴을 까맣게 태웠다.

“내가 무슨 낯으로 자식을 불까.”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던 어머니. 정부의 부재, 선장의 부재, 이번 사고가 인제라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진도=유충현·윤필호 기자 lamuzia@

탐승·구조·실종 숫자도…구조상황 전달도

오락가락 정부에 실종자 가족 애만 탄다

20일 오전 12시 10분, 법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선내에서 시신 3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몇 분 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주변에서 시신 3구를 찾았다”고 비슷한 발표를 했다.

두 곳의 발표를 합하면 당시 시간대에 시신 6구가 수습됐다. 그러나 사실은 중복 집계였다. 30여분 뒤 사고대책본부는 수습된 시신을 6구에서 3구로 정정했다. 발표 내용이 혼선을 일으키면서 실종자 가족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러치게 한 것이다.

정부당국이 세월호 침몰 이후 탐승·구조·실종·사망자의 숫자를 바꾼 것은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달한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에는 최소 477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후 들어 459명, 462명, 475명으로 정정하며 하루에 세 차례나 바꿨다. 구조자 수는 전원 구조에서 368명으로 바뀌었다가 급세 164명으로 변경됐다.

17일에는 구조자를 174명, 175명, 176명으로 반복한 뒤 179명으로 다시 바꾸며 혼선을 극대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날 전화번호를 건넨 문도씨의 딸도 당초 구조자 명단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실종 상태였다. 문씨는 “아이를 찾으러 진도의 하수구까지 뒤졌다”고 말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부당국은 18일에도 탐승자 수를 475명에서 476명으로, 구조자 수는 179명에서 174명으로 수정했다. 명단 수정은 한 네티즌이 구조자 명단 중 이름이 중복된 구조자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수많은 인력이 네티즌 한 명의 문제 제기도 따라가지 못한 수준이었던 셈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구조 상황을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도 혼선을 빚었다.

잠수부의 선체 진입 시도 상황을 전달하면서도 실종자 가족들의 애를 태웠다. 18일 오전 사고대책본부는 “선내 식당까지 진입했다”고 밝혔다. 진도 체육관에 모인 실종자 가족들의 희망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해경은 “식당 진입은 사실이 아니고 공개 주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혼선이 거듭되자 정부는 이날 브리핑 장구를 해경으로 단일화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3000억대 자산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

청해진해운은 어떤 회사인가

자산 455억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축

조선플랜트 '천해지' 등 계열사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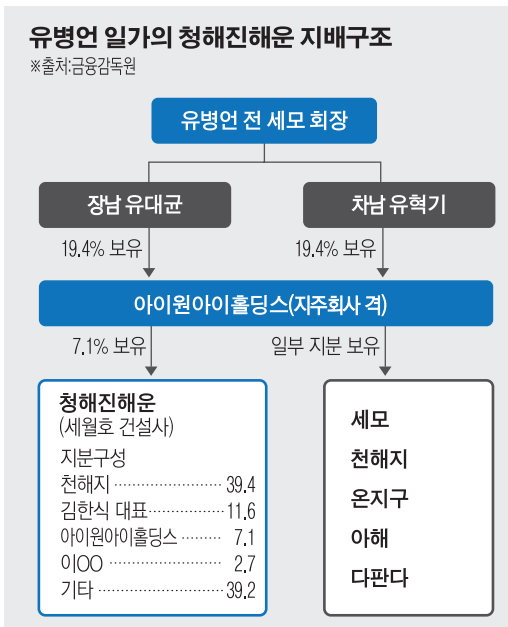
수십억 음식점·농수산물 유통업체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다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오너가 유병언 전 세모 회장 일가의 자산이 3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요 사업인 해운업 외에 수십억원 규모의 음식점과 농수산물 유통업체도 갖고 있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정점으로 천해지와 아해, 온나라, 금오산맥2000 등 4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또 천해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21세기, AHAE PRESS FRANCE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이밖에 다판다와 문진미디어, 온지구 등 일부 비상장회사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우선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자산은 455억원이며 유 전 회장의 아들인 유대균, 유혁기씨가 각각 19.44%씩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천해지 42.81%, 아해 44.82%, 온나라 31.25%, 금오산맥2000 22.12%, 청해진해운 7.1% 등을 거느리고 있다. 아이원아이홀딩스



는 최근 2년래 2억원 안팎의 배당을 실시했다.

선박블록 생산과 조선플랜트 사업을 하는 천해지의 자산은 1784억원이다.

천해지는 829억원 규모의 토지와 86억원 규모의 건물 등 부동산 자산만 900억원을 웃돈다. 여기에 24억원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40억원 규모의 단기금융상품도 갖고 있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39.37%)과 21세기(42%), AHAE PRESS FRANCE(20.37%)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최근

2년래 2억~4억원 상당의 배당을 진행했다.

도로 제조·판매업체인 아해 자산은 496억원으로 토지 63억원, 건물 70억원 등 부동산 자산은 133억원이며 28억원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갖고 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자산 규모는 331억원이다.

유혁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문진미디어의 자산은 541억원으로 부동산 자산이 290억원대에 이르며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세모의 자산 규모는 521억원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온나라 자산은 80억원, 한식 음식점 업체인 금오산맥2000의 자산은 30억원에 이른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이밖에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등에 종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이랜드 스프링 리조트 등의 지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 일가의 자산이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나 대책을 마련할지 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7일 관리인에 불과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과했을 뿐 오히려 일가에서 직접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과 두 아들 및 회사 관계자 30여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관계 기관 로비를 통한 탈세와 선박의 무단 확장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조남호 기자 spdran@



청와대행 막는 경찰

청와대를 찾아 구조지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0일 오전 귀경길에 올랐던 실종자가 죽음이 전남 진도대교 앞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시스

세월호 안전교육비 1인당 4600원

직원 118명 대상 총 54만원 사용

대형 연안여객선 평균 3만원 지출

국내 대형 연안여객선사의 직원 교육비는 연간 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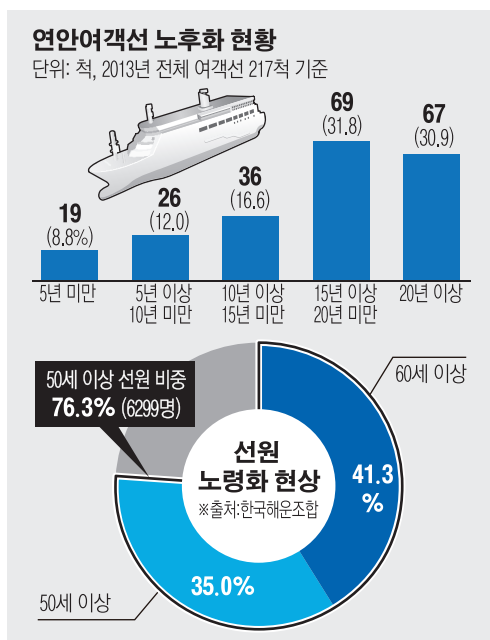
21일 국내 대형 여객선사 5곳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원 교육훈련비 및 연수비는 1269만원으로 조사됐다. 5개 선사의 직원수는 413명으로 1인당 약 3만원 수준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씨월드고속훼리는 2013년 직원 94명을 위한 교육비로 159만원을 지출했다. 1인당 1만7000원 수준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선사로 제주-목포 구간을 다닌다. 지난해 매출액은 533억원으로 2012년 478억원보다 12% 늘었다. 하지만 직원교육비는 같은 기간 150만원에서 5% 증가하는데 그쳤다.

대아고속해운은 5대 선사 중 교육훈련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이었다. 직원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3만원을 지출해 1인당 10만원의 교육비를 투자했다. 2012~2013년 직원 수는 101명으로 변화가 없었지만 2012년 교육훈련비 2578만원에서 57%나 감소한 규모다. 대아고속해운은 동해-울릉도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선사로, 2012년 매출 448억원에서 2013년 456억원으로 2% 증가했다.

녹동-제주 구간을 운행하는 남해고속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최근 3년 간 직원 훈련비와 관련된 계정이 없었다. 광고선전비는 경우 2010년 842만원, 2011년 1004만원, 2012년 2924만원으로 각각 19%, 192% 늘었으며, '잡비'라는 항목은 2012년 2365만원, 2013년 3169만원으로 34% 증가했다.

남해고속의 매출액은 2011년 156억원에서 2012



년 174억원으로 12% 증가했으며 2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5대 선사 중 매출 규모가 가장 작은 고려고속훼리는 2013년 56만원, 1인당 1만원을 지출했다.

2012년에는 아예 0원이었다. 이 기간 복리후생비는 48% 줄이고 사무용품비 지출은 없었다. 그러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각각 11%, 3134% 늘었다. 인천-영평도 구간을 운행하는 고려고속훼리는 2012년 매출액 66억원에서 2013년 67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66만원에서 9억5933만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밖에 사고가 난 청해진해운은 교육비로 직원 1인당 4600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직원 118명을 위한 교육비로 총 54만1000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2012년 138만5600원보다 61% 감소한 금액이다.

황윤주 기자 hyj@

정부,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탐승자 가족·어민 '세금·의료' 특별지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0일 진도군청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산시와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 단 한 명의 생존자가 확인될 때까지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응급대책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세금·의료혜택 등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로 작·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탐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국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강영만 기자 kwan@

09·10·11 국토교통부 선정, 소비자인족도평가 3년 연속 우수업체

주최: 평택 소비자인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인족도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2008년 도입된 이후 연속 수상업체는 우미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입니다.

ssb.lynn.co.kr

비전동의 인프라가 **코 앞에!**
동서남북의 공원을 **품 안에!**
탁 트인 전망이 **눈 앞에!**

모든 찬사가 쏟아지는,
평택의 단 한 자리

평택시청, 뉴코아아울렛, 배다리저수지, 평택세무서(공사청), 평택역, 이마트(예정), 비전고등학교, 우미 Lynn 모델하우스, 초등학교(예정부지), 수변공원, 상업시설, 근린공원, 대형 근린공원, 중학교(예정부), 비전중

4월 25일 오픈에 OPEN EVENT!
오픈3일간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고급사은품 증정!

평택 소사벌지구 우미 Lynn 센트럴파크

평택을 대표하는 비전동 생활권



전용 84㎡ 총 870세대

031) **652-6200**

우미건설

※시공: 우미건설 외 1 · 시방: 선유산업개발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16동 16번지 · 연면적: 97,402.983㎡ · 용도: 공동주택 ※단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사벌지구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법정계약(단위)를 사용합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고위관료·정치인 부적절 처신

가족들 옆에서 기념촬영하겠다는 이들

안행부 감사관 직위박탈 조치
서남수 장관, 장례식장서 물의
유한식 세종시장 폭탄주 마셔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은 가운데 정부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일 안전행정부 고위 공직자인 송모 감사관이 세월호 사고 현지인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기념촬영을 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실종자 가족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송 감사관 일행을 둘러싸고 “우리는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이게 기념할 일이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일부

가족들은 송 국장 일행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장관이 가족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와 있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 일행의 발언으로 전해지면서 엉뚱한 이 장관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덩달아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이 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있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며 대신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안행부는 문제를 일으킨 송모 감사관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직위박탈 조치하고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한 문책을 하기로 했다. 송 감사관은 자기 국가기록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인물이다. 안행부 측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켰기에 즉각 인사조

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구설에 올랐다. 지난 18일 저녁 안산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된 단원과 학생 빈소를 찾는 과정에서 먼저 도착한 수행원이 유족에게 “교육부 장관님 오십니다”라고 껄스름을 한 것. 유족들은 곧바로 서 장관의 수행원에게 “어쩌란 말이나. 장관 왔다고 유족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나”고 항의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있다가 사라지는 서 장관을 보고 90도에 가깝게 허리를 숙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 장관은 또 지난 16일에는 실종자 가족들이 머무는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누군가 마련한 의전용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포착돼 맨 바깥에 앉

아있는 실종자 가족 모습과 대조적이라는 비난을 샀다.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은 음주로 물의를 빚었다.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야 정치권이 선거운동 등 모든 정치 일정을 중단하고 ‘음주 자제령’을 내린 가운데 지난 18일 저녁 폭탄주를 곁들인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당 윤리위를 열고 유 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처럼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하다. 한 실종자 가족은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진심이라는 기대가 없다. 장관이고 정치인이고 이곳에 올 때 손에 무전기 하나 든 걸 못 봤다”며 극도의 불신을 드러냈다.

진도=유충현 기자 lamuziq@

최연혜 코레일 사장 北 간다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의 참석

정부가 평양에서 열리는 철도 관련 국제 철도협력기구(OSJD) 회의 참석을 위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방북을 승인했다.

유력 공공기관장의 방북은 200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최 사장이 이번 방북에서 러시아 및 북한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유라시아 횡단철도·SRX)’ 사업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열리는 OSJD 사장단 회의 참석을 위해 최 사장과 코레일 실무진인 윤동희 남북대륙철도사업단장, 이민철 국제협력처장 등 5명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20일 밝혔다.

OSJD는 북한, 러시아, 중국과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옛 사회주의권 총 27개 국가 철도당국이 참여하는 협력기구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SRX 실현을 위한 핵심적 협력 상

대로 꼽힌다. 코레일은 이들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OSJD에 가입했다.

SRX 사업은 남북한 철도를 연결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SRX 사업에 대해 논의했고, 이어 10월엔 유라시아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해 SRX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최연혜 사장은 이번 방북을 위해 21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북·중 국제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발급되지 않은 북한 비자 발급 절차가 지연될 경우 촉박한 회의 일정을 고려해 열차가 아닌 항공편으로 방북할 가능성도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사물인터넷 보안 미흡땀 수십조 피해”

산업연구원 보고서 발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보안정책이 미흡할 경우 자동차, 스마트폰 분야에서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융합보안산업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혹은 보안기술이 IT융합산업에 적용돼 창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됨에 따라 보안위협은 더 이상 가상의 사이버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있다.

연구원은 이에 대해 향후 우리나라의 국내 융합보안 피해는 GDP의 1% 규모로 추정했을 때 2015년 13조4000억원, 2020년 17조7000억원, 2030년 26조7000억원 정도로 전망했다. 또한 국가 신용도 하락,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스마트카의 경우 보안사고가 발생해 국산 자동차의 최종 수요가 10% 감소한다면 연간 약 2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경우 피해액이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융합보안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 IT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간 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혁준 기자 h9913@



세월호 사고 수습
여·야 최고위 열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오전 각각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lixer@

몸 낮춘 정치권, 지방선거 일정 재개 ‘눈치보기’

여·야 경선일정 1주일 순연… 선거 자체 연기 의견도
구조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국회 차원 대책마련 방침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과정을 감안, 정치 일정을 전면 중단했던 여야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이번 주부터 ‘경선’ 등 지방선거 일정을 재개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21일 현재 4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일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1주일씩 순연한 데 이어 이번 주 예정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연된 경선 일정 중 첫 번째

가 오는 25일 대전시장 경선이지만 상황에 따라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후보들은 27일로 예정돼 있던 경선 일정을 1주일가량 연기해 5월 2일 또는 4일 치르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측은 통합 과정과 무공전 논란으로 인해 지방선거 준비가 늦은 상황인 데다 이번 사고로 일정이 더욱 늦춰지면서 고심하는 분위기다.

이번 탓에 정치권 일각에선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경우 6월 4일로 예정된 지방선

거 일정 자체를 늦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연기해 7·30 재보궐 선거와 통합해 치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제 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중단된 정치권 일정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들은 대놓고 선거운동을 못 하지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선거홍보를 하는 등 비공개 일정을 계속 소화하고 있다. 일부에선 사고 현장 방문 상황 등을 유권자에게 소개하는 등의 간접 선거운동을 벌여 눈총을 받기도 했다.

여야는 일단 구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대수습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각 당 지도부는 대부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쟁을 유발하는 논평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다.

합진구 새누리당 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자’도 못 꺼내는 분위기다. 지금 선거가 아니라 일단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고, 정성호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 대해 정치권도 반성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선거 일정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유진 기자 lim@

이런 참극에… 애도 빌미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도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애도를 빌미로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이 가승을 부리고 있다.

이번 사고로 대부분의 후보가 당분간 선거운동 등 공식 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고 현장 방문 등의 상황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며 사실상 간접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는 현장방문 소식과 함께 18일 “지금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관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탑승객이 꼭 살아 돌아와 가족과 재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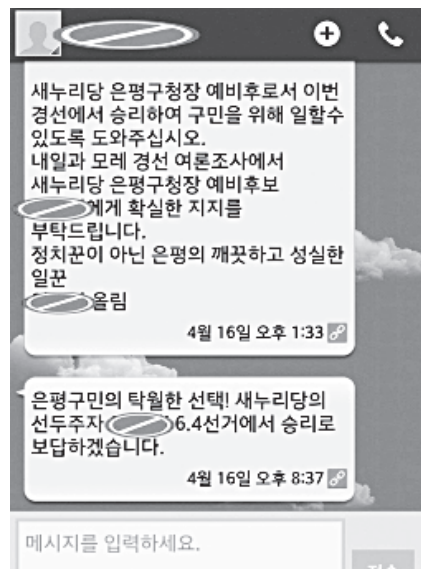
또 다른 서울시장 후보는 세월호가 침몰된 날 대놓고 서울시장 토론회 18일 13시 30분 중소기업중앙회관 B1 꼭 오셔서 000 응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토론회는 사고 여파로 취소됐다.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애도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안

전하게 현장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사실상의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의 한 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새누리당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서 이번 경선에서 승리하여 구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아이를 가진 부모로 억장이 무너진다.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 제게 맡겨 주십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김의중 기자 zerg@



“강남·북 하나되는 서울 만들 것”

6·4 지방선거 ‘내가 된다’

서울시장 김황식 전 총리



규제혁파로 ‘경제 활력’

정 후보 돈·권력 욕심

주식 백지신탁 문제 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계기를 묻는 질문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긴 고민 끝에 “서울시정을 바로잡고 서울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를 키워준 대한민국에 대한 보답이다”고 대답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강북과 강남이 골고루 성장하고, 지역과 계층이 화합하는 ‘하나되는 서울’을 만드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본선에서 누가 박원순 시장을 꺾고 야권에 빼앗긴 서울시를 탈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졌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강력한 경쟁 후보인 정몽준 의원과의 대치 상황에 대해 “7선의 최다선 의원이면서 현대중공업 주식의 10%를 가진 최대주주로 돈과 권력 둘 다 욕심 내는 정치인”대 평생을 국민을 바라보며 공직에 봉사했고 총리로서 나라 살림을 총괄한 행정전문가 중 누가 적합한가를 경험하는 구도”라고 분석했다.

또 정 의원의 ‘백지신탁’ 문제를 겨냥해 “정 후보는 현대중공업 백지신탁 문제로 ‘회장’과 ‘시장’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본선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붙이는 불에 터져버릴 화약을 안고 있는 선수를 우리 대표로 내세울 수는 없지 않나”고 되물었다.

김 전 총리는 “정 후보가 여기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염려된

다”면서 “정 후보가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 시가가 2조원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백지신탁 대상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면서 “지지율은 인지도가 기반이 되는 것이고 당원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또 언론을 통해 시민들께 저를 알려 나가고 있으니 진검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주요 공약으로 “비강남권과 강남권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내세워 ‘강북스타일’이라고 이름 붙여 봤다”며 “규제 혁파로 비강남 지역의 상업을 살리고, 호텔 등의 시설 유치를 통해 자본과 사람이 모여드는 강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복잡한 인허가...영업 가로막는 방카슈랑스 25%룰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

① 은행 ② 보험 ③ 증권 ④ 2금융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기회에 금융권의 불필요한 '낡은 규제, 숨은 규제'를 찾아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전 금융권에 영업 활동을 가로막는 숨은 규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5월까지 민원분석 및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관별 규제 목록을 정비해 6월 금융규제 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은행들이 꼽는 가장 큰 영업규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다. 은행들은 한 사인의 인허가를 위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고 유사한 업무라도 처음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인허가를 받는 데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은행권의 오랜 염원 중 하나인 투자일임업 허용 및 부수업무·상품개발 네거티브제 전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은행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숨은 규제 감축 요구도 컸다. 과도한 청구 지도나 세세한 모범규준 등 제도화되지 않은 규제를 줄여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산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은행을 투자기관 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과 같은 큰손을 시장에 참여시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사고의 발단이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는 만큼 적격성 심사를 제대로 실시해 주요 임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인사 개입을 배제하고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은행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류에 편승한 일률적 배분이 아닌 은행의 자율적인 사회적 역할 수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로 강화되고 있는 내부 통제안을 두고는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곧 직원의 전문성인 만큼 금융당국에서 금융사 직원의 순환보직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카슈랑스 25%를 폐지해야 = 은행은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25%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카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중소보험사 상품의 판매 위축과 금융기관의 부당한 영업행위 차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의 경우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는

은행권 규제 완화 요구사항

※출처:각 은행·금융연구소·금융연구원

인허가 및 상품	상품 및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위한 투자일임업 허용 부수업무 및 상품개발 네거티브제 전환 방카슈랑스 25%룰 폐지 방카슈랑스 판매인수 제한 완화 업무취급 제한 폐지 은행의 회사채 인수 업무 허용 그림자 규제 및 청구 지도, 세세한 모범규준 등 비제도화된 규제 감축
자산관리 및 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투자기관 범위에 은행 포함 계열운용사 펀드 판매금액 제한 완화 글로벌 경쟁체제 구축
지배구조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간접적 관여 배제 사외이사 자격 제한 지주제 개선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은행 자율성 부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개선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도입 반대
행정규제	금융사 직원 순환보직 강제 지양 해의본 진입장벽 및 규제 완화 국내외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 간섭 제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 내용

※출처:금융위원회

법령상 규제 원점 재검토	금융규제 목록 작성·관리 규제폐지·네거티브 방식 전환·규제완화 등 정비계획 마련 업무영역, 신상품 개발, 자산운용 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 검토 자본·보험 분야 영어리 규제 일괄 정비
금융현장 숨은 규제 개선	영업규제, 상품개발 등 분야(Positive 규제) 불편하거나 과도한 자료, 문서, 서류 요구 관행(문서규제) 불공정하게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甲乙규제) 수수료·출연금에 적정한 비용 구조인지 검토(비용규제) 사회적 약자 등 이용자가 불합리한 차별 시정(차별규제) 각종 지원 기준의 합리성, 타당성 검토(기준규제) 규제신설 이후 상황 변경에 따라 개선 필요한 규제(낡은 규제)

불완전판매 부추기는 방카 모집인원 점포별 2명 제한도 인허가 간소화·투자일임업 허용해야 서비스 제공 토대

금융위, 내달까지 목록 제출 요청... 6월 개선 방안 마련 “양보다 질적 개선 초점... 모든 규제 법령상 원점 재검토”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은행권은 또 방카 모집인원을 2인으로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점포별로 2명만이 방카 모집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들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다른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방카 모집 인력 제한 규제로 인해 고객상담 대기 시간이 증가하는 등 고객 불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방카 모집인력 2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방카 모집 종사자들이 대출 등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 범위를 제한한 규제도 인력 운영의 비효율화를 초래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은 또 방카 취급상품 범위를 저축성 보험뿐 아니라,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도 방카 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숨은 규제 10% 걷어낸다 = 이번 규제 개선은 규제의 양적 감소보다 실질적인 체감 강도를 낮추는 질적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법령·규정(42개) 등 명문화된 규제뿐 아니라 구두 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 규제 등 숨은 규제 10%를 일괄 개선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우선 법령상 규제를 원점 재검토한다. 금융회사 영업 관련 직·간접적인 규제를 선별해 금융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폐지·완화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일몰설정·유지 여부 등을 검토해 정비한다. 금융위 등록



규제는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3월 현재 876개에 달하고 있다.

숨어있는 규제도 기관별로 총량의 10%를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별 ‘금융현장 숨은 규제’ 목록을 마련토록 하고 오는 6월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각 기관들은 외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장 책임 하에 숨은 규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숨은 규제에는 △금감원 행정지도, 실무해석·의견, 해설서·매뉴얼 △협회

주관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업무처리방안 △금융공기업 등의 내규 등 비명시적 모든 규제가 망라된다.

현재 금융공기업, 협회 등에는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등 756개의 비명시적인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법령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분석(과거 3년간 민원), 이용자 대상 조사 등 직접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부분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진영·김지영 기자 gultjy@

영업 규제는 풀고 소비자 보호는 조인다

전문가 참여 TF 구성 ‘나쁜 규제’ 선별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완화에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입무보고회에서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 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는 ‘나쁜 규제’를 풀라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숨은 규제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숨은 규제 목록과 개선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착한 규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

는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부당 영업행위, 관행 개선, 피해규제, 금융교육 등 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지주 내에서 계열사간 고객 개인정보를 공유해 온 관행도 다음달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고객정보를 영업에 이용할 수 있고 노출 위험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에 기재하는 개인정보 항목도 최대 39개에서 8개로 줄어든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는 5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시 무료로 카드 결제내역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가 성과 없이 공전할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이다. 게다가 정무위원들은 이 제정안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 집중 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이 빠졌다는 설명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55 창립 55주년

LIG for Tomorrow

내 아이의 꿈에 희망을 더합니다

세상 모든 아이는 부모의 희망이기에
LIG손해보험이 아이를 평생 지켜주고 싶은
당신의 마음을 자녀보험에 담았습니다
아이의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해지고
그 희망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LIG손해보험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를 튼튼하게, 희망을 든든하게

LIG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무배당

와!~에서 올!생까지!

희망파트너 LIG 손해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표 제 2013-2857호(2013.12.30)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www.LIG.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과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품 대상 금융상품의 해환원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합하여 인정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9부 능선 넘었다

내일 조특법 개정안 처리

6500억 세금 부담 해결

내달 지방은행 인적분할

6~7월 매각 마무리 예상

우리銀 매각방식도 윤곽

희망수랑 경쟁입찰 유력

우리금융 민영화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방은행 매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수천억원의 세금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관문인 우리은행 매각 방식도 윤곽을 드러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제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후 24일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6500억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됐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

여야간 조특법 통과 합의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들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해 두 지방은행이 우리금융으로 부터 완전히 분리되면 BS금융과 JB금융의 본실사가 시작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및 합병 등에 3~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후 BS금융·JB금융과 예보간 가격 협상 및 금융당국 승인 등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오는 6~7월경 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현황

	우선협상자	인수금액	진행상황
증권계열	우리파이낸셜	KB금융 2800억원	3월20일 KB캐피탈 출범
	우리F&I	대신증권 3684억8000만원	4월7일 인수완료
	우리자산운용	키움증권 755억원	2월 인수완료
지방은행계열	우투증권 패키지	NH농협금융 1,3700억원	NH농협금융 이변주 SPA제결 예정
	경남은행	BS금융 1조원 안팎(미정)	22일 조특법 처리예정 5월초 인적분할
우리은행계열	광주은행	JB금융 4000억~6000억원(미정)	
우리은행계열	우리은행	-	매각방식 검토중

방은행 매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비생명·우리저축은행, 우리F&I, 우리파이낸셜) 매각도 마무리 단계다.

우리파이낸셜은 지난 2월24일 KB금융으로 인수된 이후 지난날 20일 KB캐피탈로 본격 출범했고, 우리F&I는 지난 7일 대신증권에 최종 인수됐다.

증권계열 마지막 매물인 우투증권 패키지는 지난 11일 우리금융과 우투패키지 우선협상대상자인 NH농협금융 이사회가 인수안건을 각각 승인함에 따라 이번 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 이후 농

협금융이 금융당국에 우투증권 패키지의 계열사 편입을 신청하면 늦어도 6월에는 인수 작업이 최종 마무리 된다.

우리금융 민영화 최종 단계인 우리은행 매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희망수랑 경쟁입찰 방식을 가장 유력한 매각 방식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이달 말 매각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세부 방안을 확정해 특정 금융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guly@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왼쪽 세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위기극복 대토론회’를 열었다. KB금융 제공

금융사고 몸살 KB금융 ‘끝장토론’

“문제는 사람… 인사 쇄신 먼저”

내부통제 개선 8시간 마라톤회의

줄대기 문화 확산…인사불신 커져

원샷인사·역평가제 등 쇄신안 마련

“지금이 KB금융 최대 위기입니다. 윤리 의식이 결여된 직원들이 인사에만 신경쓰면서 전문성은 사라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잇따른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KB금융이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였다. 저녁 5시부터 그다음날 1시께야 끝난 8시간의 마라톤회의. 조직 쇄신을 염원하는 임직원들의 열기는 대단했다.

대리부터 과장, 차장까지 토론회 참석해 영업일선에서 느낀 인사 부당함과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회 참석한 임영록 회장과 이견호 국민은행장과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임원들도 이같은 직원들의 뼈아픈 지적과 충고를 귀담아 들었다.

토론회 참석한 한 직원은 “학연과 지연을 이용한 줄대기 문화가 퍼지면서 인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모두가 인사에만 업무지시도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사 쇄신과 성과평가지표(KPI) 개선 내부 통제 등 세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쇄신안은 △임원부터 일반 행원까지 동시에 인사 명단을 발표하는 ‘원샷 인사’ △감사 직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감사 실명제 △피감사 직원이 감사자를 오히려 평가하는 ‘역평가제’ △금융사고 예방 아이디어 내부 공모제 △직원들의 윤리·준법 지수 개발 △내부 제보 직원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 등으로 요약된다.

토론회 내내 임회장은 직원들의 충고를 들은 임 회장은 “최근 KB금융그룹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비정기적으로 ‘난상토론’을 펼쳐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리스·할부금융 규제에 고사위기

취급수수료 폐지·이자제한법 개정

상위 5개사 실적 성장률 1%대 그쳐

일부 금융사 매각하거나 업종 전환

리스·할부금융업을 주로 하는 여신금융사가 취급수수료 폐지, 대출금리 모범규준 마련, 이자제한법 개정 등 영업규제 강화로 고사하고 있다. 이들 여신금융사는 매각하거나 업종 전환을 하는 등 활로 찾기를 나서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스자산 상위 5개사의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 효성캐피탈, 신한캐피탈, 롯데캐피탈의 리스금융 영업실적(취급실적)은 지난해 1~9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78% 증가했다.

그간 마이너스 성장세(-9.0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1%대의 성장률에 그친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사업규모(취급잔액) 성장률도 하락세가 뚜렷하다. 리스금융 취급잔액은 지난

해 9월말 기준으로 전년말보다 0.01% 증가했다. 2009년말(13.89%)과 비교하면 13.88%p 하락한 수치다.

할부금융 사업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할부금융자산 상위 4개사인 현대캐피탈, KB캐피탈, RCI파이낸셜, 신한카드의 영업실적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도 감소하고 있다.

할부금융 영업실적 증가율은 지난해 1~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0.91%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할부금융 취급잔액 증가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전년 말과 비교할 때 -13.84%로 감소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리스·할부금융사들은 매각되거나 업종을 전환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인 외환캐피탈과 한국개발금융은 부실채권(NPL) 투자회사로 업종을 전환했으며 몇몇 우량 리스·할부금융사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김소영 여신금융협회 조사역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리스·할부금융 업권의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생보사들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수권역원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약관 표기상의 실수”라며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계약자와 보험사를 중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표기 실수 일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

생보사 “자살보험금 못준다”

“재해 아냐…약관 표기상 실수” 수천억 미지급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생명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지급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

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미지급된 자살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

꿈의 에너지 셰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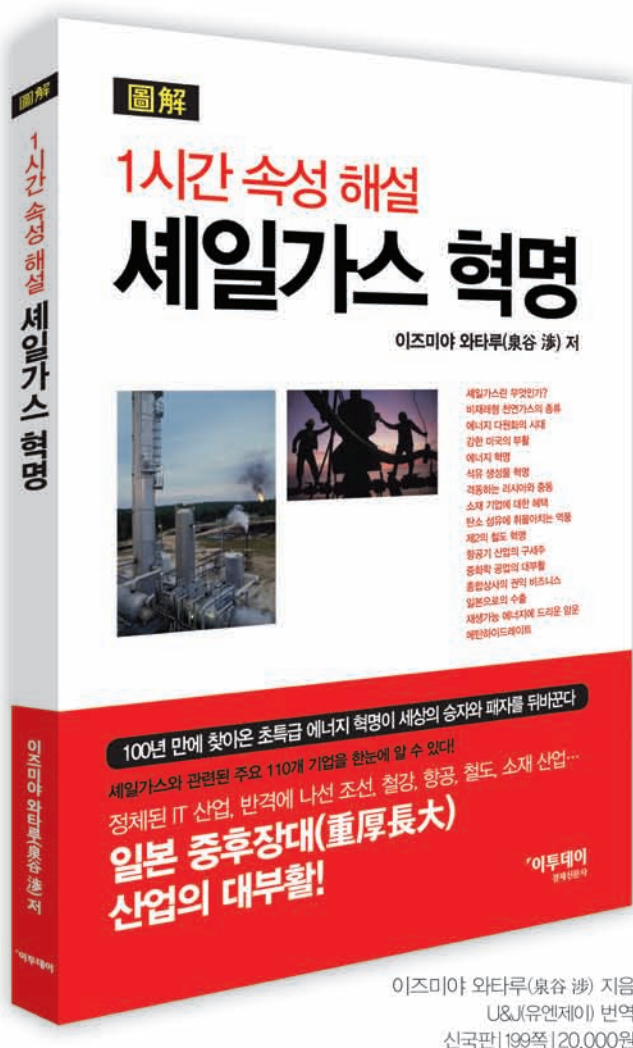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원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셰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셰일가스 대응’ 사분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셰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셰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셰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셰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셰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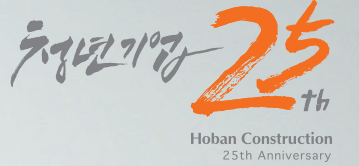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케이) 번역
신국판 199쪽 120,000원



당신의 큰 안목, 호반을 향하다 [RC-4블록]

송도국제도시 호반베르디움

4월 30일 오픈 (예정)



※ 상기 이미지는 광고용 이미지컷으로 아파트 색채 및 외관, 규모, 입지, 교통 등은 실제와 다릅니다.

www.songdo-hoban.co.kr

2014년 4~6월 호반베르디움 분양 예정

시흥배곧신도시 2차 (B9블록)



전용 63㎡/84㎡
1,206세대
031) 314-5500
4월 30일 오픈(예정)

대구 테크노폴리스 2차 (A14블록)



전용 98㎡/111㎡
887세대
1899-0029
5월 오픈예정

위례신도시 (A2-8블록)



전용 97㎡
1,137세대
1588-9798
6월 오픈예정

2014년 전국 2만여 세대 공급 예정! 대한주택보증 AAA등급!

- 천안 불당 1차 (A8블록) 1,096세대
-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 총 1,091세대
- 춘천 거두 (B4블록) 345세대
- 천안 불당 2차 (I-C4블록) 573세대

- 광명 역세권 (I블록) 2,300세대
- 오산 세교 (D-I블록) 855세대
- 천안 불당 3차 (I블록) 1,400세대
- 수원 호매실 1차 (B-9블록) 567세대

- 의정부 민락 1차 (B-14블록) 762세대
- 수원 호매실 2차 (B-5블록) 1,100세대
- 시흥 목감 1차 (B4블록) 578세대
- 의정부 민락 2차 (B-15블록) 805세대

- 시흥 목감 2차 (B7블록) 760세대
- 부산 명지 2차 (B6블록) 690세대
- 고양 원흥 (A5블록) 967세대
- 송도국제도시 2차 (RC-1블록) 1,153세대

- 천안 불당 4차 (A6블록) 705세대
- 고양 향동 (B-3블록) 772세대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1차 (B3블록) 1,133세대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2차 (B8-1블록) 830세대

※ 본 제작물에 사용된 이미지 및 내용, 문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 또는 표기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본 광고에 표시된 분양일정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송도국제도시 관련 자료는 인천경제자유구역(www.iejz.go.kr),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www.sguc.co.kr), 네이버 지도(www.naver.com)에서 참고한 자료로 향후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하자등에 따른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분양용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6번지 ※ 대지면적 : 98,094.20㎡ ※ 연면적 : 267,667.07㎡ ※ 용적률 : 199.08% ※ 규모 : 지하1층~지상33층 15개동, 총 1,834세대 (일반분양 1,680세대)



전용 63㎡/74㎡/84㎡/113㎡ **총 1,834세대** (일반분양 1,680세대)

시행 (주)송도베스트타운 시공 HOBAN 호반건설

032) 858-9393

35년 전 구자경 회장 “미래 먹거리 발굴” 호통 通했다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 ‘30만대’ 눈앞

전기차 배터리 양산 5년 만에 누적 탑재 28만1000대
충전 배터리서 아이디어 얻어 1996년부터 개발 착수
2009년 세계 1위… 올 전지 매출 2조8400억 목표

LG화학 친환경 차량 배터리를 탑재한 누적 차량수가 30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21일 자동차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 순수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누적 대수는 총 28만1000대다.

LG화학 배터리 고객사는 GM·르노·현대기아차·포드·볼보·장안기차·제일기차 등 10여곳이다. 이 회사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중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약 10만대, GM의 쉐보레 볼트(플러그인하이브리드)가 6만대, 르노의 조에와 트위지(순수전기차)가 각각 1만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게 된 배경은 3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LG화학 배터리 탑재 차량 현황

고객사	GM, 르노, 현대기아차, 포드, 볼보, 장안기차, 제일기차 등
탑재 차량 판매량	쏘나타 하이브리드(약 10만대) GM의 시보레 볼트 (6만대) 르노 조에와 트위지 (각 1만대)
누적 탑재차량 수	28만1000대

1980년 구자경 회장(현 명예회장)은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21세기 새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라고 지시했다. CEO들은 모조리 해외로 나갔으며 그 무리에는 구분무 LG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당시 영국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한 구 부회장은 중전해서 다시 쓰는 배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 사건이 계기로 '소재, 전자에 강한 LG는 배터리도 잘 할 것'이라는 자신

감을 갖고 1996년 LG화학에 그룹 연구원들을 모아 배터리 개발 착수한다.

수 년 간의 시행착오 끝에 1999년부터 양산을 시작했고 2000년부터는 중대형 배터리로 영역을 확장한다. 본격 개발에 돌입한지 10년 만인 2009년, LG화학은 일본 업체를 누르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그간 LG화학은 중대형 배터리 부분의 고용인원을 200명에서 현재 1630명으로 7배 이상 늘렸으며 협력회사도 같은 기간 26개 수준에서 두 배(45개) 가량 늘었다. LG화학은 올해 배터리 사업을 포함한 전지사업 부문에서만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2조 8400억원의 매출 목표를 수립했다.

이처럼 LG화학이 배터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R&D(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LG화학의 지난해 R&D 분야 투자금액은 4500억원이다. 올해는 5900억원으로 30% 가량 늘어 잡았다.

배터리연구소장 김명환 부사장은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는 특허를 획득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을 적용함은 물론 배터리의 형태가 ‘캔(can) 타입’이 아닌 ‘파우치(pouch) 타입’으로 폭발 위험이 없다”며 “표면적이 넓어 열발산이 용이해 배터리 수명도 길다는 장점도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한번 충전에 200마일(320km)을 갈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으며 수년내 상용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방한홍 한화케미칼 사장이 지난 2월 여수공장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그룹

‘총수 공백’ 한화 비상경영위 확대 현장경영 본격화

방한홍·김창범 사장 추가 위촉
제조업 경쟁력 강화 ‘5인제’로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는 가운데 비상경영위원회를 확대하고 현장경영을 본격화한다.

한화그룹은 이날 18일 오후 비상경영위원회를 열어 한화케미칼 홍기준 전 부회장의 퇴임에 따라 한화케미칼 방한홍 사장, 한화L&C 김창범 사장을 제조부문 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제체의 비상경영위원회는 앞으로 5인체제로 운영된다.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이 위원장과 금융부문을, 홍원기 호텔앤리조트 부회장이 서비스부문을, 최금암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실무총괄위원을 맡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방 사장과 김 사장이 홍 전 부회장이 담당하던 제조부문을 나눠 총괄한다.

한화그룹은 “이번 확대구성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앞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원가절감 등의 혁신 활동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화그룹의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구호 아래 국내외 현장을 찾아, 임직원과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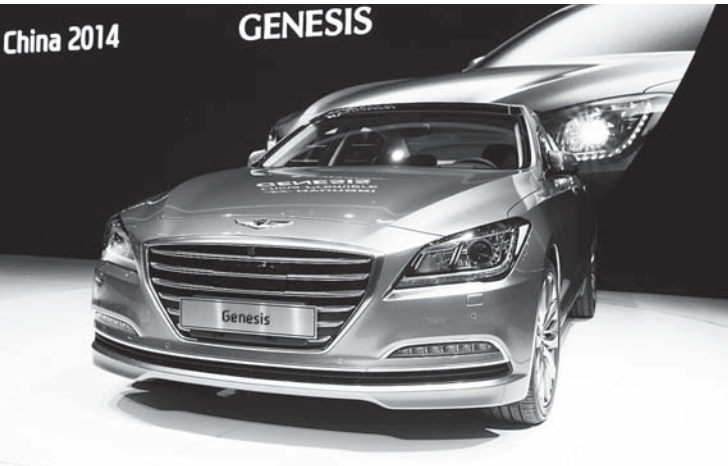
제조부분의 경우, 방한홍 사장은 올해 들어 여수, 울산공장 및 대전의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등을 방문해 사업점점 및 임직원들의 격려에 나섰으며, 김창범 사장은 주1회 이상 지방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현장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서비스부분의 홍원기 부회장은 더플라자(호텔) 및 전국 한화리조트 콘도 사업장 등을 수시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배우 김수현이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소형 SUV 'ix25(왼쪽)'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에는스'라는 이름으로 현지 출시되는 현대차 '제네시스(가운데)'와 기아차의 'K4(오른쪽)'도 현지에서 첫 공개됐다.



배우 김수현이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소형 SUV 'ix25(왼쪽)'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에는스'라는 이름으로 현지 출시되는 현대차 '제네시스(가운데)'와 기아차의 'K4(오른쪽)'도 현지에서 첫 공개됐다.

현대기아차, ix25·제네시스·K4 ‘3총사’ 中 1위 노린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3종의 신차를 선보였다. 현지 1위 제네럴모터스(GM), 2위 폭스바겐을 뛰어넘으라는 특명이 부여된 전략 모델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 베이징모터쇼’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 ‘ix25’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ix25는 지난해 말 출시된 중국 전략형 중형세단 ‘미스트라(중국명 밍투)’에 이은 두 번째 현지 전략차종이

다. 현대차는 이 차량을 선보이면서 중국의 신소비세대의 ‘바링하루(1980년 이후 출생한 세대)’를 주요 고객층으로 겨냥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김수현을 ix25의 홍보 모델로 내세웠다.

기아차는 베이징모터쇼에서 준중형 세단 ‘K4’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아차는 K4를 오는 8월 중국 시장에 출시해 30~40대 가족층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월 판매

계획은 2만대로 잡았다. 기아차는 K4와 함께 K3의 해치백 모델인 ‘K3S’도 선보였다.

대형세단 ‘제네시스’도 현지 첫 공개됐다. 중국에 대형세단을 출시하지 않았던 현대차에게 제네시스는 고급차 시장의 첫 도전작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올해 하반기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명차’라는 의미를 담은 ‘지에는스(捷恩斯)’라는 명칭으로 중국에 출시한다.

최성기 현대차그룹 중국사업총괄담당

사장은 “현대차는 중국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신형 제네시스와 중국 전략형 소형 SUV ix25를 통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모델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링하루가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인들이 체면을 의식해 대형차를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중 소형 차량과 SUV의 판매가 늘고 있다. 지난해 중국 SUV시

베이징모터쇼서 신차 공개

GM·폭스바겐 추격 고삐

삼성전자 과거·미래 한눈에… ‘이노베이션뮤지엄’

국내 최대 규모… 오늘 개관

삼성전자의 45년 역사와 전 세계 전자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삼성전자는 21일 수원디지털시티에 지난 1969년 설립된 이후 대중에 선보였던 제품을 한 곳에 전시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SIM)’을 개관했다.

SIM은 총 1만950㎡(3312평) 규모로 총

6개 층으로 구성됐다. 전시관은 △발명가의 시대 △기업혁신의 시대 △창조의 시대를 주제로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전시품은 실물 사료 149점, 이미지 및 영상사료 721점 등 총 870점에 달한다.

SIM에서는 삼성전자의 부흥기를 이끈 휴대폰, TV 등 제품을 전시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휴대폰 ‘SH-100’도 전시되어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금의 세계 TV 시장 1위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각종 TV

도 소개됐다. 1981년 출시된 삼성전자 ‘이코노빅(Econo Vic) TV’는 전라남에 시달리던 당시 국내 상황을 반영해 소비 전력을 최대 44%까지 낮춘 제품이다. 이코노빅TV가 전시된 공간에는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UHD 커브드TV도 함께 배치되어 TV 발달사를 알아보는 재미를 더한다.

SIM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SIM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한다. 단, 토요일은 예약 없이도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동부대우전자, ‘메이드 인 코리아’로 페루 공략한다

바랑코서 신제품 발표회

동부대우전자가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페루 공략에 속도를 낸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의 휴양지 바랑코에서 ‘2014년 신제품 발표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부대우전자가 페루 시장에서 전체 유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전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루의 양대 백화점인 ‘사가’, ‘리플레이’, 최대 가전 양판점 ‘루비’를 비롯해 페루 가전 유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유통업체 관계자와 언론사 및 정부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총 40여개 신제품 라인업을 발표하고,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페루 시장 맞춤형 공략을 위해 ‘망코라’ 냉장고와 ‘마추픽추’ 세탁기를 소개, 현지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수질 이 나쁜 페루 시장을 겨냥해 워터필터를

냉장한 디스플레이 양면형 냉장고 ‘망코라(MANCORA)’는 기존 디스플레이 냉장고와 달리 정수된 물을 공급받기 위한 별도의 외부 호스를 연결할 필요가 없다.

페루 시장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메이드 인 코리아’ 콘셉트로 매장 디스플레이 디자인 등을 선보여 한류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영록 기자 syr@

LS전선 “올해 글로벌 선두 도약”

초고압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집중

LS전선은 올해 380kV급 이상의 초고압 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해저 케이블, HVDC(초고압 직류송전) 케이블 등의 신사업 매출을 확대하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기존 중동과 아시아 중심의 시장을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법인들과의 교차 판매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LS전선은 두바이발 경제 위기 속에서도 2011년 카타르 수전력청과 1억 달러 규모의 초고압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2년 쿠웨이트 전력청과 1억 1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중동 초고압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1위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LS전선은 최근 로컬 및 인도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380kV급 이상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점 마케팅할 방침이다. 또 LS전선은 2006년 미국 롱아일랜드주에 6000만 달러 규모의 345kV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처음 진출한 이래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LS전선은 신사업인 해저케이블과



LS전선 동해공장의 해저케이블 초도출하식 모습. 사진제공 LS전선

HVDC케이블 매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에 1800억원을 투자, 2009년 11월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HVDC는 대용량 전력을 최소한의 손실로 장거리에 보낼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케이블로 평가받고 있다. LS전선은 이후 국내는 물론 중동과 유럽, 남미 등에서 연달아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해저 케이블 시장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LS전선이 2012년 카타르 석유공사와 체결한 4억3500만 달러 규모의 해저케이블 공급 계약은 국내 전선 업계 사상 최대의 수출 계약이다. 해저 케이블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 ‘케이블의 꽃’으로 불린다.

송영록 기자 syr@

세월호 사고에…

재계도 ‘자숙 모드’

임직원 활동 자제·행사 연기 지침

기업들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민적인 ‘애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LG·롯데 등 주요 그룹이 슬픔에 잠긴 대한민국의 기일 시면으로서 ‘자숙 모드’에 들어갔다. 사고 발생 당일부턴 임직원들에게 지니친 음주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했고,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삼성도 이날 25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대학생 토크콘서트 ‘열정락(樂)’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SK그룹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SK텔레콤 통신광고를 중단했고, LG그룹은 이날 26~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손연재의 리듬체조 갈라쇼 ‘LG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유통가도 추모 분위기에 동참했다.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주류사업부는 21일로 예정됐던 ‘클라우드 맥주’ 론칭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통한 심정”이라며 “소중한 생명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js62@

리콜로 제동 걸린 GM… 中서 재시동

내년 공장 5개 건설 등 3년간 12조원 투자 계획
최대 경쟁자는 폭스바겐… 작년 11만대 더 팔아

최악의 리콜 사태로 위기에 빠진 제너럴 모터스(GM)가 중국시장에서 사활을 건 투자에 나섰다.

GM은 오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중국에 120억 달러(약 12조5000억원)를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경제전문매체 야후파이낸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M은 공격적인 투자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에서 폭스바겐을 비롯한 경쟁사들과 상대할 계획이다. GM은 올해 중국 내 매출이 8~1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중국 차시장의 전체 성장률과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외국 업체로는 폭스바겐, 중국업체로는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맷 켄 GM차이나 대표는 “우리는 광범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장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자동차 개발과 생산능

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베이징모터쇼에서 강조했다.

GM은 중국에서 2015년에 5개의 공장을 짓는 등 2020년까지 생산능력을 65% 확대할 계획이다.

GM의 중국 내 최대 경쟁자는 역시 폭스바겐이다.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베이징모터쇼에서 올해 중국에서 350만대의 자동차를 팔아치울 계획을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 이 전했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중국에서 GM에 비해 11만대를 더 팔았다.

폭스바겐은 2018년까지 중국 내 딜러십을 36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된다면 중국 내 폭스바겐의 딜러십은 50% 이상 늘어날게 된다.

폭스바겐은 중국을 세계 1위 도약이라는 목표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판매 기준으로 세



계 2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사상 첫 1000만대 돌파를 계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동차시장의 성장 역시 제한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확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핀바르 오닐 JD파워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중국의 규제가 심해질 것이며 인프라 규제와 공해 이슈도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국 자동차시장이 올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여전하다. 지난해에는 2198만대의 자동차가 중국에서 팔려 나갔다. 지난해 판매는 전년 대비 13.9% 늘어났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최근 한달새 IT·바이오 등 기술주 급락 신규 IPO 기업에 투자 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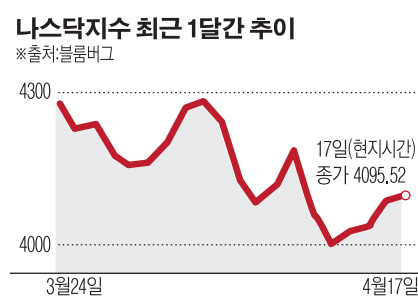
최근 기술주 부진으로 기업공개(IPO)에 나선 신생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IT와 바이오 주를 포함한 기술주는 최근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그간 이들 종목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우려가 확산한 영향이다. 특히 올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지난 한 달에만 나스닥에서 바이오기술주는 14% 급락했으며 인터넷 관련주도 9% 가까이 떨어졌다.

60억 달러(약 6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포워드메니지먼트의 짐 오도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새로 데뷔한 신규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오도넬은 “매주 해오던 신규 IPO 기업들의 주식 매입을 지난 최근 4주 동안 1건 밖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는 상당수의 대형 투자회사나 헤지펀드가 IPO 시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기술주의 하락세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리스크가 다소 동반되는 IPO 시장을 떠나 안전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하락세가 소셜미디어, 클라우드컴퓨팅 기업 등 일부 IT 기업과 초기 단계의 제약업체에 국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부진이 다른 기술주 종목들에는 오히려 반사효과 등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WSJ



고평가 우려에 14%나 하락
투자자 안전자산으로 이동

블루칩 중심 다우는 상승
“월가 전체엔 영향 없어”

는 많은 투자자가 주식으로 유입되는 자금 흐름이 기술주 부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 나스닥 고성장 기술주가 10% 넘게 하락세를 기록할 때 오히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월간 1.2%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시장조사업체 BCA리처치는 “그간 고평가 받았던 종목의 ‘미니(mini)’ 하락세가 월가에 문제의 단초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국한된 부분의 급락세는 강세장의 본질적인 일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우린 친러파”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슬로반스크 지역 주민이 친러시아 무장 군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슬로반스크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이 통제하는 검문소에 무장괴한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국영 언론 로시아 슬로반스크/로이터연합뉴스 24가 전했다.

“알리바바 가치 156조원” IPO는 아직인데 벌써…

中 전자상거래 80% 차지
메시징 앱 등 사업도 다양
소프트뱅크·야후 관련종목
투자자들 매입 나서기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회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알리바바 기업가치가 최소 800억 달러에서 최대 1500억 달러(약 1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전자상거래의 80%를 차지하며 그 밖에도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국 메이저 IT기업이다.

알리바바가 지난달 미국에서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을 때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회사 가치를 800억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OA의 추산이 회사 실제 가치보다 약 20% 낮춰진 것이고 알리바바 가치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전환사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최근 시장에서 거래된 합성채권 가격을 감안하면 알리바바 가치가 1500억여 달러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알리바바가 지난 2012년 16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일부 기관투자자에 발행했을 당시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 미만으로 매겨진 것과 대조된다

고 FT는 덧붙였다. 합성채권은 일반 사채의 성격과 다르지만 별도 기능을 덧붙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의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성격을 가미한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1개월간 미국 나스닥이 흔들리는 등 기술주 가치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의 탄탄한 입지 등을 들어 알리바바 IPO를 낙관하고 있다.

이미 성급한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IPO를 기다리지 않고 관련 종목 매입에 나서면서 소프트뱅크와 야후 주가가 고평행진을 벌이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지분을 약 36.7%, 야후는 24.0%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뱅크와 야후 주가는 알리바바가 지난 2012년 9월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 지금까지 130% 정도 올랐다고 FT는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3분기 연속 실적부진 원인은 마케팅 때문”

대만 HTC, 삼성 출신 임원 영입

폴 골든 북미사업부 CMO

대만 스마트폰업체 HTC가 삼성 전 임원을 영입하는 등 마케팅에 ‘승부수’를 띄웠다.

HTC는 최근 폴 골든(사진) 전 삼성 북미사업부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왕세홍 회장의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HTC는 삼성의 감정이 마케팅에 있으며 장기적인 회사의 실적 부진이 삼성보다 못한 마케팅 역량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HTC는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계속해서 스마트폰 판매와 시장점유율을 잃고 있다. 회사는 지난달 ‘월M8’을 출시하고 할리우드 스타 케리 홀랜드를 기용해 대대적인 TV광고를 내보내기도 했다.

왕세홍 회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단지 고객과 더 잘 소통하기만 하면 된다”며 “우리가 소통을 잘할수록 회사 사정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골든 영입과 관련한 블룸버그의 문외에 HTC는 “우리는 인적자원 확대 전략에 따라 재능있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원

론적으로 답변했다.

골든은 지난 2008~2012년 삼성 북미 지역 스마트폰 마케팅을 책임졌다. 그는 현재 마케팅 컨설팅업체 브랜드슬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비즈니스인맥 전문 소셜네트워킹 서비스(SNS) 링크드인에 “삼성 근무 기간 갤럭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자평했다.

아직 HTC에서 골든의 장기적인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는 이달부터 3개월간 일하며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골든 영입은 마케팅을 강화하려는 HTC의 열망을 반영한다는 평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글로벌 리포트

美·日 쇠고기 관세 9% 이상 타협

미·일 양국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의 초점인 농산물 ‘중요 5항목’ 가운데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현재 38.5%에서 9.0%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졌고 20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쇠고기 관세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며 상세한 관세율은 앞으로 실무자들이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통신은 “일본이 관세율을 10%대 중반까지 양보하는 대신에 미리 수입량의 상한을 설정하고 물량이 이를 넘으면 인하 전 관세율을 적용해 축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쇠고기 관세율을 10% 미만까지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주

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고 통신은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정상회의에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TPP 교섭의 농업분야 협상이 크게 진전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문구를 미·일 공동성명에 명기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과의 TPP 교섭에서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쌀과 보리, 설탕, 소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 농산물 ‘중요 5항목’은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UN회원국, JP모건 보복 추진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가 ‘자금 세탁’ 가능성 등을 우려해 각국 외교관들과의 계좌 거래를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하자 유엔 회원국들이 보복조치에 나섰다.

중국과 인도 등이 포함된 유엔 내 최대 세력인 ‘개발도상국 그룹(G77)’은 최근 유엔 차원에서 JP모건에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특히 유엔이 주거래은행인 JP모건체이스와의 금융거래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까지 마련해 이르면 이달 내에 유엔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대형 자금세탁·금융사기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고 있는 것을 막고자 미 대형은행들에 불법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70개국 외교관들의 명단을 선별해 이들의 계좌의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외신 계좌의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데 따른 불편과 비용을 우려해 모든 나라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계좌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애플 前CEO, 인도 스마트폰 사업

고(故) 스티브 잡스 애플 설립자를 회사에서 밀어내 유명세를 탔던 존 스컬리(75) 애플 전 최고경영자(CEO)가 인도에서 스마트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가 싱가포르에 세운 IT업체 인플렉션 포인트는 다음 달 인도에서 ‘오비(Ovi)’로 모델명으로 자가 스마트폰 판매를 시작한다. 이 제품의 가격은 5000~8000루피(약 8만6000~13만8000원)에 불과하지만 성능은 우수해 삼성, 애플과 경쟁할 수 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현재 삼성이 인도 스마트폰시장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소니와 애플이 각각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컬리는 “인도에서 스마트폰이 전체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성장할 기회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추진

104조원 규모… 업계 최대

미국 최대 제약업체 화이자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를 1010억 달러(약 104조원)에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선데이타임을 인용해 정통한 관계자가 이같이 밝혔으면서 현재 인수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화이자 는 지난 3월에 걸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화이자 는 2개의 신약개발 부문과 기존 약품 담당 사업으로 회사를 재편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지난 2년간 주가는 34% 올랐다. 화이자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사들인다면 이는 지난 2000년 워너-람버트 인수 규모를 넘어

서는 것이다. 당시 인수 가격은 870억 달러였으며 업계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화이자 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제약업체 인수·합병(M&A)시장의 큰 손으로 군림해왔다. 화이자 가 지난 20년 동안 실시한 10건의 M&A 중 3건이 모두 300억 달러를 넘는 규모였다. 이안 리드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지난해 중순 M&A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앤 캠퍼온 화이자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주주 가치를 키우기 위해 항상 기회를 보고 있다”면서 “시장의 무어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화이자의 인수 추진 소식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세계인이 클릭하는 쇼핑몰... 일본의 '아마존'

아시아 혁신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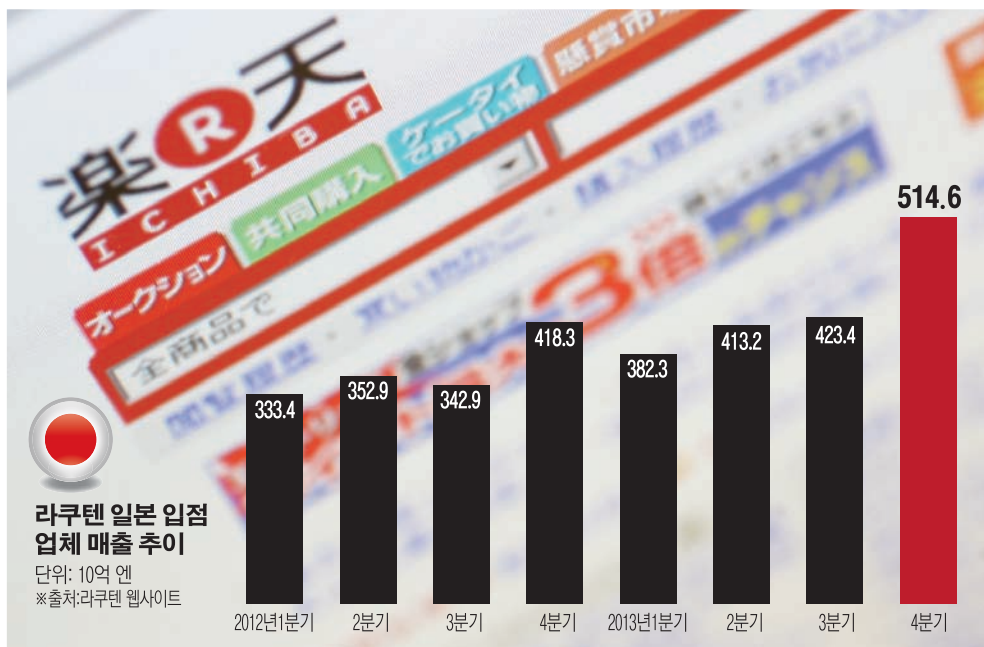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은 일본의 아마존을 노리는 혁신기업이다. 라쿠텐은 포브스가 선정한 '2013년 세계 100대 혁신기업' 순위에서 아시아·태평양 기업 가운데 중국 바이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9위에 올랐다.

입점비용 월 100만→5만엔 가격
물류시스템 관리 직접판매 강화
일용잡화 전문 '라쿠텐 24' 주력
'바이버'앱 인수 플랫폼 확대 나서

일찍이 미키타니 히로시가 라쿠텐을 창업할 때부터 혁신은 시작했다. 그는 라쿠텐을 설립하기 직전인 1996년 가을 전자상거래라는 사업 아이템을 정한 뒤 당시 일본에 있는 기존 2500개 업체를 낚아채 조사했다. 이른 아침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업체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일을 1개월간 계속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당시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대부분은 대기업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상품 교체가 느리고 입점 비용도 최대 월 100만 엔(약 1023만원)에 달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라쿠텐은 이를 철저히 반면교사로 삼았다. 입점업체 스스로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형태를 취해 항상 새로운 상품진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업체가 라쿠텐에 주는 입점비용도 월 5만 엔으로 과격적으로 낮췄다. 구매자들이 여러 입점업체에서 쇼핑을 해도 결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제공했다.

지난 2000년 설립한 라쿠텐대학교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 충족시킨다는 혁신정신에서 비롯됐다. 입점업체들이 라쿠텐에 들어와 성공할 수 있도록 쇼핑물 운영과 시스템 사용법,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홍보 방법 등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 라쿠텐대학이다.

라쿠텐은 올해 또 하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라쿠텐의 주력 사업모델은 업체들에 인터넷 점포라는 장소를 제공하고 각 업체들이 각각 재고를 보유하고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



다. 라쿠텐은 더 나아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미국 아마존처럼 회사가 재고관리에서 물류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반송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화장지와 생수, 쌀 등 일용잡화를 다루는 '라쿠텐24'가 바로 아마존 같은 형태다. 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시작했지만 지난해 4분기 6억4000만 엔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 부진했다.

회사는 올해부터 라쿠텐24의 배송료가 무료가 되는 구입가격 기준을 중전의 3900엔에서 1880엔으로 인하했다. 경쟁사인 야후 재팬의 일용잡화 배송 서비스 '로하코(1900엔)'와 아마존(2500엔)을 의식한 것이다. 또 배송 체제를 정비해 다른 경쟁사처럼 주문 당일엔 상품이 도착하는 체계를 올해 안에 갖춘다는 계획이다.

라쿠텐이 잘나간 기존 사업형태 대신 아마존의 사업구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은 미키타니 라쿠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추진하는 '라쿠텐 경제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경제권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라쿠텐 마켓을 중심으로 여행과 금융, 호텔 등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통합적인 포인트를 적용해 소비자가 라쿠텐 생태계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일용잡화 시장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이 라쿠텐의 인식이다.

아울러 라쿠텐은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자사 경쟁력 강화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지난 2월 이스라엘의 모바일 메시징 응용프로그램(앱)으로 3억명의 가입자를 거느린 바이버를 9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

“회사에선 영어만 쓸 것”
보수적 관습·상식 거부
일본 IT업계의 풍운아

미키타니 히로시(사진) 라쿠텐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일본 IT업계의 풍운아다.

그는 도쿄대, 교토대와 더불어 일본 3대 국립대학으로 꼽히는 히토쓰바시대학 상학부를 졸업하고 1988년 미즈호은행의 전신인 일본흥업은행에 입사했다. 은행에 재직 중이던 1991년에 도미해 하버드대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1993년 귀국해 흥업은행 본점 인수·합병(M&A) 부문에 배속돼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 안전을 다루는 등 흥업은행의 탄탄대로 길을 걸었다.

그러나 미키타니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버드 MBA 시절 만난 미국 동창들의 인생설계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우수한 학생은 대기업에 취직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일으킨다. MBA 시절 동창생 중에는 학업과 병행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미국에서 쉼 없는 창업의지를 실행에 옮긴 계기는 1995년 한신 대지진이다. 당시 지진에 친척을 잃으면서 미키타니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해 11월 사표를 제출하고 건설당첨제인 크립스그롬을 설립했다.

건설당을 계속하면서 미키타니는 본격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았다. 그는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라쿠텐을 설립해 성공신화를 이루게 된다.

일본 재계의 보수적인 관습과 상식을 거부하는 반항적 기질이 라쿠텐의 성공을 이끈 비결로 꼽히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항상 추구하는 자세가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 그는 일본 토종기업인 라쿠텐의 공용어를 영어로 바꾸는 ‘잉글리시나이제이션(Englishnization)’을 발표했다. 사내 메일과 문서, 회사식당 메뉴판 등을 전부 영어로 바꿨다. 심지어 회의 참석자가 전부 일본인이어도 영어로 진행하게 하는 등 뭉툭하게 영어 공용어 계획을 밀어붙였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는 생존의 필수도구라는 인식이 깔려 있던 것.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는 유출사고가 터지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인 게이단렌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에 반발해 탈퇴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대학 설립하고 프로 야구단 창단... 인지도 높여

라쿠텐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의 선구자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지난 1997년 미키타니 히로시는 ‘낙관적’이라는 의미의 라쿠텐을 설립했다. 당시 일본의 인터넷 인구는 500만명에 불과했으며 창업 시 직원은 6명, 계약한 회사는 13개여서 아무도 라쿠텐의 성공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라쿠텐은 창업 1년 후인 1998년 인터넷 경매시스템인 ‘라쿠텐 슈퍼 옥션(현재 라쿠텐 옥션)’을 시작하고 2000년에는 라쿠텐 출점업체에게 인터넷 쇼핑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라

쿠텐대학’을 설립하는 등 발빠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빠르게 발전했다.

2001년에는 인터넷 여행사이트 ‘라쿠텐 트래블’과 서적 판매 사이트 ‘라쿠텐 북스서비스’를 시작했다. 2002년 창업 5년 만에 입점업체가 6000개를 돌파했다. 2003년 검색업체 인포시크를 인수해 포털서비스를 개시했다.

2004년 일본 프로야구 구단인 도호쿠 라쿠텐 골든이글스를 창단해 일본 내 인지도를 더욱 높였다. 1년 후에는 미국 인터넷 광고업체 링크세어를 인수해 해외시장에 첫발을 내디뎠다. 대만 시장에서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해 해외 전자상

거래 시장에 첫 진출했다.

창업 14년 만인 지난 2011년 라쿠텐 입점업체는 3만8000여개에 달했으며 이들 업체 거래 규모가 1조 엔(약 10조2100억원)을 돌파해 새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캐나다 코보 인수를 통해 전자책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라쿠텐은 지난해 입점업체 거래 규모가 1조7335억 엔으로 늘었으며 직원 수도 1만867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은 5186억 엔으로 전년보다 29.5% 급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입문의 1588-8529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일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혼합 베리맛)



멀티비타민 웰플러스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 하세요!

- 비타민 13가지 + 7가지 미네랄 함유
- 비타민B군 일일영양소기준치의 100% 함유
- 친환경 유기농 부원료 40가지 함유
- 설탕, 인공색소, 중국산 원료 무첨가



Vitamin House
www.VHmall.co.kr



부산 남구 'BIFC의 힘'

(부산국제금융센터)

주변 부동산 시세 들쭉

제2의 여의도로 불리는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Busan International Finance Center)의 준공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남구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오는 6월 BIFC가 준공되면서 금융인력 약 4만 명 이상이 수요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는 물론 상권까지 덩달아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인력 4만명 수용

'제2의 여의도' 탈바꿈

아파트 시세 34% 올라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BIFC 이전 공공기관 대상자들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대연혁신도시와 BIFC가 위치한 문연동 일대 주택시장 상승세가 커지면서 부산시 남구 전반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발표한 2014년 부산지역 표준공시지가에 따르면 부산시 남구가 5.4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센텀시티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해운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64%다.

또한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아파트 시세 자료를 보면 BIFC 조성 공사가 본격화된 2010년 2분기 3.3㎡당 488만원 수준이던 문연동 아파트 평균 시세가 올해 1분기에는 약 660만원으로 34%가량 상승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실수요자 몰려 '장사진'... '뺏다방'도 등장

주목! 이 단지



현대건설 마곡 힐스테이트

세월호 침몰사고로 모델하우스 개관식·이벤트 없이 조용하게 진행

분양가 3.3㎡당 1500만원대... 전용 59·84·114㎡ 316가구 일반에

맞통풍 구조·충간소음 방지 설계... 중도금 무이자 혜택 부담 낮춰

과거 서울지역에서 '버려진 땅'이란 인식이 강했던 마곡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의 마지막 택지구에 따른 각종 개발 호재 때문이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마곡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갔다. 개관일인 지난 18일 개장 이전부터 긴 줄이 늘어설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분위기는 차분했다. 모델하우스도 특별한 개관식이나 이벤트 없이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를 후 일요일 다시 찾은 모델하우스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하우스 앞쪽에는 일명 '뺏다방'(이동식 부동산)도 등장해 있었다.

마곡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이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4-8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로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마곡지구 '엠벨리'

5·6·9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8개동, 총 603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158가구 △84㎡ 393가구 △114㎡ 52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3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모델하우스 안에는 전용면적 59㎡A와 84㎡A, 114㎡ 등 3개의 유니트가 설치돼 있다. 평면 특화로 전용면적 59㎡와 114㎡는 환기, 채광이 잘되는 맞통풍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보기 드문 큰 창을 주방 쪽에 배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위한 특징이 눈에 띄었다.

또한 디딤돌·현관 등에 특화 아이템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수납공간 역시 특화된 부분이다. 안방뿐 아니라 작은방까지 불박 이장을 설치했다. 특히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층상배관 시스템을 적용, 충간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걱정거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곡 힐스테이트는 대부분의 조합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동·호수와 일반분양 동·호수



지난 18일 마곡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가 문을 열자 실수요자 위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애도 중인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 없이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를 분리해 일반분양 아파트에도 로열층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00만원대로 전용 59㎡가 3.3㎡당 평균 1580만원, 84㎡ 1500만원, 114㎡ 1430만원 선이다. 발코니 확장비(평균 1200만원)는 별도이며 계약금은 2회 분납 가능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분양가가 마곡지구 1차 분양 물량(3.3㎡당 1200만원대)에 비해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인근인 강서구 화곡동 화곡3주구를 재건축해 분양한 '강서힐스테이트'(3.3㎡당 1800만~2000만원)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최진욱 분양소장은 "서울 내에서 교통, 환경 등 입지조건을 고려하면 높지 않은 분양가로 브랜딩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중도금 무이자 혜택 등으로 부담도 크지 않아 분양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곡 힐스테이트의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17-88번지 9호선 신방화역 부근에 위치해 있다. 4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2순위, 24일 3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30일이며 계약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다. 입주는 2015년 12월 예정이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복합문화공간

공연 · 연주회 · 전시 · 런칭쇼 · 세미나 · 웨딩

총면적 12,000 제곱미터의 파티오나인은 50석부터 1,000석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세미나에서 패션쇼, 박람회 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형태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Performance

Concert

Exhibition

Launch show

Convention

Seminar

and

Wedding

PATIO 9
Banquet & Convention
파티오나인

연주회 및 공연

두타 패션쇼

삼성전자 신제품 전시

불가리 향수 런칭쇼

세미나 및 포럼

국내 최상급의 복합문화공간 "파티오나인"

예약 : T. 02-517-7080~1, 02-517-7070 / www.patio9.com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66-24 파티오나인

한화건설, 이라크 신도시 공사비 1110억 받아

첫번째 토목 기성...대금결제도 착착

한화건설의 이라크 신도시 건설사업이 순항을 거듭하면서 대금결제도 차질 없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첫 번째 토목 기성 1억720만 달러(약 1110억원)를 수령했다.

앞서 이 건설사는 2012년 10월 선수금 7억7500만 달러(10%)와 2013년 10월 1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5%), 2014년 4월초 2차 중도금 3억8750만 달러(5%)를 수령한 바 있다. 하반기 3차 중도금 약 3억8750만 달러(5%)를 수령할 예정이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현장. 사진제공 한화건설

이번 토목기성은 이라크 정부가 확보한 신도시 건설 공사 예산에서 집행됐으며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공사이행 보증 등의 지원이 있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영관 기자 kwan@



금주의 분양 캘린더

날짜	구분	위치	아파트명	연락처
4/21 (월)	접수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푸르지오시티 (~4/22) ♣	02/965-7111
		경기 수원시 수원시 서원동	수원세류1BL·2BL·3BL(공공분양·임대) 2순위	031/248-9077~8
	계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큐브 ♣♣	02/584-5517
		경기 수원시 서원동	수원세류1BL·2BL·2BL·3BL(공공분양·임대) 3순위	031/248-9077~8
4/22 (화)	접수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읍	하양코아루 1순위	053/944-000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자이(개나리6차재건축) (~4/24)	02/2051-6090
	계약	대구 북구 칠성동2가	오페라상점그린코아터베스트 (~4/24) ♣	053/626-3500
		충남 천안시 불암동	천안발달호반베르디움(A8) (~4/24)	1899-8864
4/23 (수)	접수	서울 강서구 공항동	마곡힐스테이트 1·2순위	02/2661-0277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A7(공공분양) 1순위	1600-1004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신도시A65(공공임대) 1순위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이상)	1600-1004
		충북 충주시 인림동	충주2차푸르지오 1순위	1566-2387
	발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코힐스논현	1600-0188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푸르지오시티 ♣	02/965-7111
		경기 성남시 백현동	백현마을3단지(국민임대)	031/250-6170
		부산 금정구 구서동	구서SK뷰	051/583-0082
	계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시정역브라운스톤연제	051/506-4800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4/25)	02/554-5574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내마을퍼스티지(S2) (~4/25)	032/464-0009
4/24 (목)	오픈	강원 춘천시 동내면	춘천거두호반베르디움(A4)	02/6933-4000
		서울 강서구 공항동	마곡힐스테이트 3순위	02/2661-0277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A7(공공분양) 2순위	1600-1004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신도시A65(공공임대) 1순위	1600-1004
	접수	대구 달성군 옥포면	대구옥포B1(공공임대) 1순위	1600-1004
		광주 남구 행암동	광주충천2지구A1(공공임대) 1순위	062/653-8200
		경북 김천시 농소면	김천혁신도시2차한신체플라스 1순위	1899-9950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도시대광로제비앙 1순위	062/453-1000
	발표	충북 충주시 인림동	충주2차푸르지오 3순위	1566-2387
		전북 전주시 정동	전북혁신중흥S-클래스	063/232-1500
		세종 세종시 보람동	한양수자인와이즈시EIM5(민간임대)	1899-0081
		세종 세종시 소담동	한양수자인와이즈시EIM4(민간임대)	1899-0081
4/25 (금)	계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대문푸르지오시티 (~4/25) ♣	02/965-7111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2차	02/868-1616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2차	02/868-1616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힐스테이트	02/2061-0277
	오픈	경기 평택시 비전동	평택스자빌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	031/652-6200
		전남 나주시 금천면	중흥3클래스센트럴2차	02/364-0001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하남미사A7(공공분양) 3순위	1600-1004
		경기 화성시 동탄면	화성동탄2신도시A65(공공임대) 2순위	1600-1004
	접수	대구 달성군 옥포면	대구옥포B1(공공임대) 3순위	1600-1004
		광주 남구 행암동	광주충천2지구A1(공공임대) 3순위	062/653-8200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역안대유보라5차(135)	1599-2800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굵은 글씨로 표시

4월 넷째 주 전국에서 총 6756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에 도시형생활주택 299가구가 공급되고 강서에서는 긴들마을주택재건축 아파트 603가구 중 31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기권에서는 하남미사강변도시 A7블록에 1145가구의 대단지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화성동탄2신도시 A65블록에 공공임대 917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광주, 경북, 충북에서 청약 소식이 있다. 대구에는 옥포지구 B1블록에 공공임대 791가구가 공급되고, 광주에서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민간분양 아파트 920가구와 호천2지구에 공공임대 532가구가 공급된다. 경북은 경산, 김천혁신도시 등에 민간분양 아파트 724가구가 공급된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세월호 침몰 참사 ‘최대 희생’ 안산 단원고 표정

생존 학생들 심각한 불안·우울 증세

학생 73명 병원에 입원해 심리 치료…“7명은 매우 심각”

교감 이어 학생 3명 발인식…23일부터 합동 분향소 운영

무인잠수로봇 투입 4층 선미 휴게실까지 수색 범위 확대

21일 안산 단원고 강모 교감의 발인에 이어 학생 3명의 발인도 진행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강 교감의 장례식장에서는 가족들과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옛 제자 100여 명이 선생님의 가는 길을 지켜왔다. 이날까지 단원고 희생자 11명의 발인이 마무리됐다.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한 단원고 교사의 영결식이 19일 치러진 데 이어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장모군의 첫 발인이 20일 안산 제일장례식장에

서 엄수됐다. 안산제일장례식장은 장모군의 발인식을 보려는 조문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발인식은 유가족과 친구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다.

한편 생존한 학생 73명은 고대 안산병원에 입원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중 16명이 우울 상태, 28명이 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료진은 설명했다. 병원 측은 학생들과 일대일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한

편 가족 이외의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합동분향소 설치 문제를 논의한 결과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임시 합동분향소를 23일 안산올림픽기념관에 설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장례식장 등에 시신이 안치한 뒤 발인이 이뤄졌던 희생 학생들의 장례는 차후 유족이 원할 경우 임시 합동 분향소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합동 분향소는 말 그대로 임시 합동 분향소”라며 “희생자가 더 늘어나게 되거나 정부 차원의 또 다른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는 21일 만·관·군 합동구조팀이 선내 수색 작업을 위해 ‘무인잠수로봇’으로 불리는 ROV(remotely-operated

vehicle)를 투입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0시 4분 ROV 1대를 바닷속으로 내려 보냈다.

3층 격실 식당 입구까지 확인하는 등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이날 4층 선미 쪽에 있는 다중 이용 객실, 휴게실, 오락실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앞서 20일에는 사고 해역 현장에는 긴급 공수원 바지선이 정박해 잠수사들을 대거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바지선이 침몰한 ‘세월호’ 선수로 접근해 정박하자 민간 잠수사들의 장비를 실은 선박과 해경, 해군 소형선박들이 잠수장비를 싣고 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수색에 나섰다. 특히 이날 오후 정조 시간인 5시께 민간 잠수사 1개조가 잠수를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잘가라 친구야’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이 비통에 빠져있다. 21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사랑병원 장례식장에서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시신이 영구차로 운구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FT “정부 무기력에 국민 분노 날로 커져”

NYT “자랑스런 선장 전통 깨”

외신들 한국 위기관리능력 비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의 무능력함에 대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날까지 세월호 침몰 관련 사망자가 58명으로 늘었다면서 기상악화로 구조인력의 객실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종자는 여전히 240여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구조작업이 4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원할

하지 못한 진행 상황과 늘어나는 사망자 소식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진도에서 청와대로 항의방문을 시도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FT는 일부 실종자 가족은 “정부가(아이들을) 죽였다(the government is the killer)”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T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2명의 선원이 구속됐으며 이들은 사고 초기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배를 버리고 나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세월호 침몰 관련 뉴스를 속보로 내보내면서 당국이 사고 조사를 위해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통신은 또 세월호가 침몰한 맹골수도에는 인천과 제주를 왕복하는 배들이 일반적으로 지나지 않는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전일 세월호의 선장이 마지막까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고 고집했다고 전했다.

NYT는 타이타닉호가 1912년 체너항해에서 침몰한 이후 선장은 가라앉는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관념이 대중문화 속에 스며들었다면서 이탈리아 여객선 ‘코스타 콘코르디아호’에 이어 세월호 선장이 2년여 만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승객을 두고 배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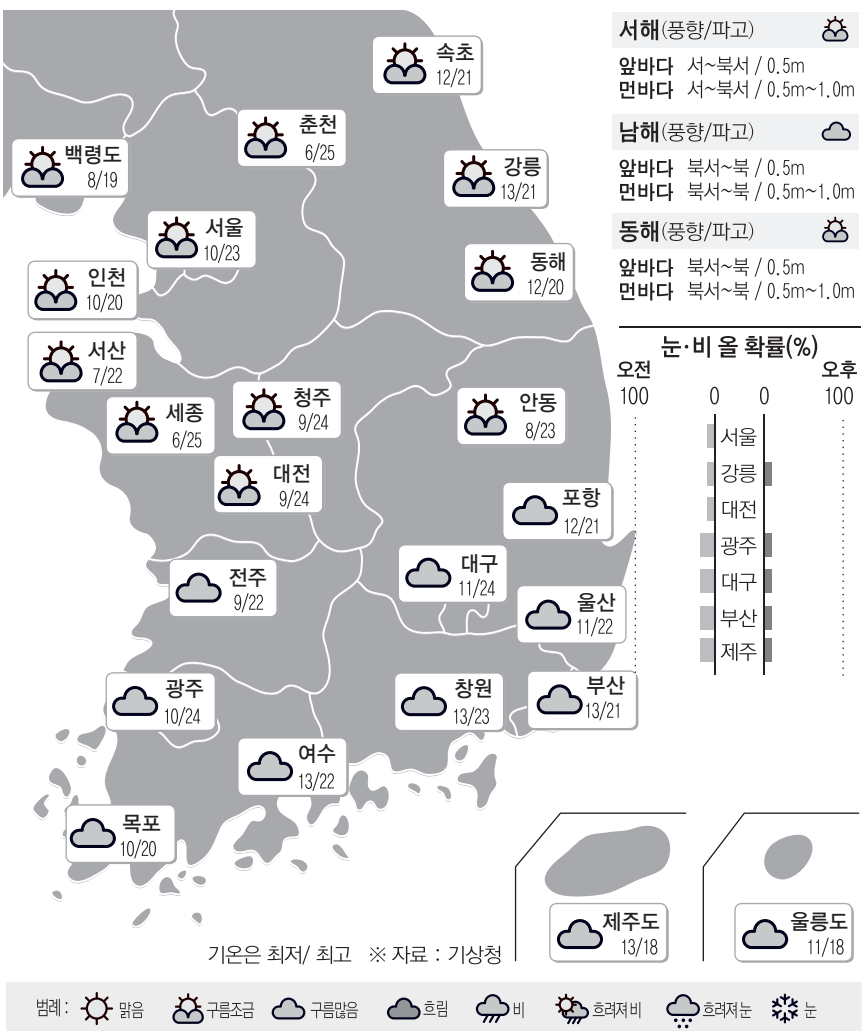
민태성 기자 tsmin@

내일의 날씨

4월 22일 ☀ 해돋이 05:49 해질 19:14 🌙 달돋이 01:01 달짐 11:43

전국이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이남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다. 오후되서는 전국에 맑은 날씨가 계속 되겠다. 당분간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삼성SDS 화재… “데이터 유실 없을 것”

어제 과천센터 서버 켜다운

한때 카드 온라인결제 장애

삼성SDS ICT 과천센터 화재로 삼성카드 홈페이지 접속과 결제서비스가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중단됐다.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삼성SDS ICT 과천센터에 20일 오후 12시 25분께 3층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일부 진화됐다가 강풍을 타고 불씨가 옮겨 붙어 11층에서 다시 화재가 발생, 오후 7시 30분께 완전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떨어진 구조물에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어깨를 다쳐 치료중이다. 건물 내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산 피해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삼성SDS 과천센터에는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이다. 특히 삼성카드 데이터의 메인서버가 화재가 발생한 과천센터에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사용자 중 일부는 데이터 유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나 과다 청구 등 만약의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않다.

삼성SDS 관계자는 이에 대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홈페이지 셧다운을 했을 뿐 유출 사고는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tlatio@

내일 장애인 취업박람회

230개 우수기업 한자리

서울시는 22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제11회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을 비롯해 단순노무직 등 구인을 원하는 230여개 우수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업체는 국방부, 서울시관광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67곳, 중소기업 112곳,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11곳 등이다.

제공되는 직업군은 문화예술분야(관광통역안내·에니메이터·3D영상제작·게임매니저), IT분야(CAD설계·웹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사회복지분야(요양보호사), 제조용역분야(선박케이블 배선), 학술분야(법학박사,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이다. 강영관 기자 kwan@

SK E&S “LNG부문 베테랑 모십니다”

경력 3년차 이상 내달 6일까지 온라인접수



종합에너지 서비스 기업 SK E&S에서 LNG부문 경력사원을 뽑는다. 모집분야는 LNG사업 기획 및 개발, LNG 트레이딩, LNG 가스전개발이다.

공통 자격요건은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며, 학력 및 전공 무관하다. 다만 상경, 기계, 화공, 자원 등 업무관련 전공은 우대한다. 또한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외국어(영어) 우수자는 우대한다. 취업보호대상자, 보훈, 장애인은 관계 법령에 의거해 우대한다.

LNG사업 기획 및 개발은 LNG사업 전략수립과 사업개발 업무를 맡는다. LNG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이나 사업개발(사업성, 경제성 분석)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하다. LNG 트레이딩 분야는 LNG선박 기술평가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LNG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이나 LNG선 승선 LNG선 승선 및 엔지니어링 3년 이상이 필요하다. LNG 가스전개발은 가스전개발, 가스전 기술평가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한다. LNG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이나 가스전개발(사업성, 경제성 분석)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한다.

근무지역은 서울이며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 다음달 6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받는다. SK채용사이트(www.skcareers.com)를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는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전문병원 지정기준 ‘과목’→‘질환’

앞으로 전문병원의 선정기준이 진료과목보에서 질환 중심으로 조정되고 지정기준에 임상 질 평가 등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고령산모 증가에 따라 임신부와 1세 이하 영아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모자 전문병원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제2기(2015~2017) 지정을 앞두고 전문병원의 지

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과목 가운데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돼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된다. 반면 고령산모 증가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를 추가, 임신·출산·1세이하 영

보건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

고령산모 증가 모자병원 신설

아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한다.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 질 지표가 추가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도 지정요건에 포함됐다. 사회적 필요성이 있지만 전문병원 분야에 비해 신청이 적은 뇌혈관, 심장, 유방, 화상질환 분야는 환자구

성비율, 필수진료과목, 병상수 등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인력 평가 적용기간을 공고일기준 3월에서 6월로 확대하며 3기 지정에서는 1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의 수련 협력병원에 전문병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정으로 중소병원 역량강화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본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미 기자 boomi@

나무와 힐링 이광만의 나무 이야기 진달래

봄이 되면 곳곳에 지천으로 피는 진달래는 우리 민족의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꽃이자 우리에게 가장 낮은 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북쪽 지방에서는 잘 살지 못하는 무궁화보다는 차라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잘 사는 진달래를 국화로 삼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른 봄이면 여수 영취산, 완주 모악산, 창원 천주산, 밀양 종남산, 대구 비슬산, 부천 원미산, 강화도 고려산 등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펼쳐진다. 한라산의 철쭉제는 진달래 축제다.

중부지방에서는 진달래를 참꽃이라고 하는데, 이는 봄에 꽃을 따서 그대로 먹거나 전(飧)을 붙여 먹기 때문에 '참(眞)꽃나무'라 하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이에 비해 철쭉은 독이 있어 먹을 수 없으므로 '개(狗)꽃나무'라고 한다. 화전은 꽃전이라고도 하며 진달래꽃을 따서 꽃술을 제거하고, 찹쌀가루를 묻혀 참기름에 지져 먹는 떡을 말한다. 조선 후기 세시풍속지 '경도잡지(京都雜記)'에도 "삼월 삼진날 진달래꽃을 따서 찹쌀가루에 묻혀 떡을



봄에 꽃을 따서 그대로 먹거나 전을 붙여 먹어 '참꽃' 소떡새 울기 시작할 무렵 꽃 핀다 해 중국산 '두견화'

만들어 참기름에 지진 것을 화전이라 한다"고 나와 있다. 또 진달래술은 두견주(杜鵑酒)라 한다. 진달래꽃의 꽃술을 제거하고 꽃잎만 사용해 만드는데 청주를 빚을 때 찹쌀 고두밥과 진달래꽃을 증으로 쌓아 빚거나, 청주 항아리 속에 진달래꽃을 명주 주머니에 넣어 한 달쯤 숙성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남도지방의 은어에 어린 처녀를 일컬어 연달래라 하고, 성숙한 처녀는 진달래, 그리고 과년한 노처녀는 난달래라 한다. 이규대 칼럼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진달래는 꽃 빛깔이 달래꽃보다 진하다 하여 진달래란 이름을 얻고 있다. 진달래꽃의 빛깔이 달래의 그것보다 연한 것은 '연달래'라 하며, 숙성한 처녀를 '진달래', 그리고 시드는 장년 여인을 '난(蘭)달래'라 불렀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이 무렵의 젖꼭지 빛깔을 연달래, 진달래, 난달래의 꽃 빛깔로 비유한 것이니 아름다운 외설이 아닐 수 없다."

진달래의 중국 이름은 두견화(杜鵑花)다. 이는 두견새, 즉 소떡새가 울기 시작할 무렵 꽃이 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두견새에는 슬픈 전설이 담겨 있다. 촉나라의 망제(望帝) 두우(杜宇)가 위나라에 망한 후 다시 나라를 찾으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 그 낮이 두견새가 되었다고 한다. 한 맺힌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울었는데, 그 피가 진달래 꽃잎에 떨어져 꽃잎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또 두우가 촉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귀촉 귀촉 하며 피를 토하듯 운다고도 전한다. 두견새는 봄이 되면 더욱 슬프게 밤낮으로 울어 한 번 우는 소리에 진달래꽃이 한 송이씩 떨어진다고도 한다. 어쨌거나 진달래꽃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님이 고이 돌아오시도록 길을 걸음에 뿌리는 아름답고도 슬픈 우리 민족의 꽃이다. 나무와 문화 연구소장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화 칼럼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의 중심에 청년창업 활성화가 있다. 창조경제의 가치사슬이 IP(지식재산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이에 IP기반 창업이라는 새로운 창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사업은 시장과 기술의 결합이다. 시장의 필요성을 발견해 차별화된 기술역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창업의 핵심이다. 시장 역량을 강화하는 기업이 정신과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IP교육이 실천의 대안이 돼야 한다. 카이스트는 이 같은 목적으로 IP기업가정신(IP-CEO) 프로그램을 2009년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 1인당 연평균 4건의 특허 전자출원과 다수의 사업계획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창업선도 대학과 산학협력 대학 사업에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창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차별화된 기술 역량의 부족이다. 사업 성공의 본질은 남들과 차별화된 핵심역량의 보유 여부라 할 수 있다.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체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IP 기반 청년창업 새 모델

대안은 있다.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들을 대학생 창업에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의 발명자인 교수와 연구원들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강요할 수는 없다. 학생 창업에 대학 특허를 이전에 준다면 창업의 양대 요건 중 한 가지는 해결책이 제시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소속 대학의 학생 창업에는 해당 대학이 자율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카이스트'라는 카이스트 학생 창업회사는 카이스트가 제공한 특허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교육 장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독점 실시권 확보는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특허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한 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과 연구소의 IP를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지금도 휴면 특허에 대한 지원은 기술진흥원이 제공하고 있다. 특허기반의 창업에는 보증자금과 창업진흥원이 1억원 정도의 보증금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IP기반 창업에 튼튼한 다짐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에 있어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이다. 그러나 연간 20만건의 출원 특허의 활용도는 미국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IP 정책이 이제는 활용을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IP 활용을 위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추진해 왔다. 기술이전은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이

전 중계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술이전 정책에 추가로 IP 기반의 창업 활성화를 제언한다. 잠자고 있는 소중한 창조적 자산을 창조경제 구현의 장으로 끌어내는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IP 기반 창업을 위한 제도로서 IP창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도 IP에 대한 용자와 지원제도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허청은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300억원을 출연했다. 보증기금도 IP보증 제도를 서서히 도입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IP 우수기업에 2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전 세계 IP금융은 용자보다는 투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창업 형태인 IP 기반 창업 투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기법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IP의 품질에 대한 검증이 강화돼야 한다. 발명진흥회의 SMART3라는 특허 평가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성능 보안을 위한 개발투자는 강화하고 사용자 운용 비용은 줄여주는 정책이 추가로 요구된다. 즉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90% 정도에 달하는 수준의 평가를 제공한다면 IP금융의 활성화는 대폭 촉진될 것이다. 평가제도 활성화는 항상 발생하는 문제인 중소기업 등장이라는 제도의 악용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IP 기반 청년창업을 제안한다. 한국을 창조경제의 선도 국가로 부상시킬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지폐에 세균 3000종 우글우글...“저에게 주세요”

○...지폐가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떠도는 세균 덩어리가 됐다. 주고받는 지폐가 3000종의 박테리아와 세균 등으로 오염됐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돈 더러운 걸 이제 알았어?”, “그 세균 제가 총대 매고 다 갖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아이들 지폐 만지게 하면 안 되겠네”, “손에 온갖 병원균이 득시글한데 거기에 지폐 세균까지 더하면 끝장이겠네”, “매일 손 깨끗하게 씻고 다니세요”, “병 옮기는 가장 큰 주범은 더러운 손”, “나는 원 없이 많은 세균을 가지고 있다”, “지폐를 앞코울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지폐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나?”, “돈 만지고 입에 손 넣으면 최악이겠네”, “세균이 우리 많이도 세상에 돈 버릴 사람 있을까?”,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은 늘 세균과 함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본 방사능 유출 사태와 경기 불황 등으로 주



진

춤췄던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줄어들어 데다 수산물 가격도 안정됐다는데, 네티즌들은 “수입산 못 먹는데다 저만 먹네”, “일본 수산물 아직까지 안전하다는 검증 안 됐다. 수산물 함부로 먹다간 후대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 “다른 건 다 먹어도 고등어는 못 먹겠다”, “일본에서 수산물 빼면 먹을 게 없다. 고작 라면”, “방사능이라며 검출기 사고, 일본 제품 안 사던 한국 맞나?”, “체상에 깨끗하고 완벽한 식품이 어디 있겠나. 조절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인 거다”, “정부에서 방사능 유출된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만 철저히 해도 안심하고 먹겠는데, 나는 아직 불안하다”, “회 없으면 못 사는 민족은 일본과 한국”, “먹고 탈 나도 난 책임 못져” 등 아직까지 일본 수산물 소비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다. 박준경 기자 PJY32@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세월호 침몰, 색깔론·기념촬영·마라톤 '논란'...시민들 분개
- 2 거짓 인터뷰 홍가혜씨 “민간 잠수부 자격증 없다” 충격
- 3 무기력함에 커지는 분노...“정부가 죽었다”-FT
- 4 삼성SDS 과천센터 화재 7시간 만에 진화...사파론 게재
- 5 CNN 경고 “실종자 가족, 단원과 교감 자살 모방 우려”

오늘의 **배그랑**

www.baekn.com

누가 미셀 위를 일간이라 했나



배그랑닷컴은 20일 칼럼을 통해 스포츠계와 대중문화계 전반을 꼬집었다. 오상민의 현장은 2006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를 통해 정식 데뷔한 미셀 위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셀 위는 300야드에 이르는 폭발적 비거리로 프로 데뷔 전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미셀 위는 남자대회에 도전장을 던진 이후 단 한 차례도 컷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물론, LPGA 무

대에서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슬럼프에 빠진 미셀 위는 2007년 스탠퍼드대학에 입학했다. 이후 미셀 위는 놀림감이 되던 스윙 자체 등을 재정비해 더욱 성장한 모습을 보이며 20일(한국시간) 끝난 롯데 챔피언십 우승을 거머쥐었다. 현실 왜곡과 비아냥거림으로는 노력하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안긴다. 한편 '유혜은의 롤러코스터'는 MBC의 심야 음악 프로그램 '음악 여행 에스테르데이'의 폐지에 대해 논했다. '음악 여행 에스테르데이'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가요를 후배 가수들이 라이브 무대로 들려주는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자아내며 시청자를 끌어당겼다. 그럼에도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높은 시청률이 나오기 힘들고, 그에 따라 광고 판매도 달성하기 어려운 까닭에 폐지가 결정돼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김민경의 시스루'는 TV 속에 노출되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고, 작구나 구매대행과 같은 소비의 다양한 톨을 확대하는 데 일조했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외직구가 늘면서 문제점과 피해도 적지 않다. 반품수수료 부당청구나 취소 환불 지연, 오배송 등 다양한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명한 소비가 필요한 때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아이타올(주)



www.itowellmall.co.kr



ISO 9001 인증업체

대표번호 02) 755-1091

데스크 칼럼

게임산업, 색안경 벗고 보자

국내 게임업계가 지지개를 걸 기색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을 언급하자 게임업체들도 게임 셧다운제 폐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다.

게임 셧다운제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니, 벌써 2년 5개월이 됐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니, 그간의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셧다운제 도입 이후 그 효과를 제대로 조사한 자료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도입 1년 시점에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률을 조사했을 뿐, 후속 연구는 나와 있지 않다. 오히려 강제적 셧다운제가 게임중독 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만 나와 있다. 그것도 국회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자료다.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 때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 규제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 관련 업계에선 당연히 반대하고 나섰다. 반쯤 게임만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선 인터넷 게임 폐인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쌍손을 들고 환영했다. 게임 셧다운제를 2년 넘게 시행해 보았으니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2000년 초반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왔다. 2012년에는 우리나라의 게임 수출액이 26억달러를 넘어섰다. 게임이 국내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액인 46억달러의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다. 세계 게임시장에서도 국내 게임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 이어 5번째 상위국이



선년규
미래산업부장

다. 반면 국내 게임 수입액은 1억7900만달러에 불과했다. 한때 게임강국을 외치며 질주하던 게임업체들이었지만 2-3년 전부터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게임업체 모임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게임산업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다. 기업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사라졌다.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다. 물론 게임 셧다운제로만 이런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이 세계 PC온라인 게임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7년 34.5%에서 2012년 28.6%로 크게 줄었다는 통계에서 국내 게임산업의 현실을 읽을 수 있다. 중국은 같은 기간 24.3%에서 43.8%로 점유율을 대폭

늘려 대조를 보였다. 중국의 게임산업 급성장은 2012년 '5개년 문화산업 배중계획'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2015년까지 중국 게임 산업 규모를 2000억위안(약 36조264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족 특색이 담긴 게임 3-5개를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담고 있다. 중국뿐이 아니다.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세우고,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다시 우리나라 현실을 돌아보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에 이어 요즘은 게임중독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게임을 마약, 술, 도박과 같이 중독 유발 매개체로 분류해, 정부의 관리 하에 뒀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인터넷게임 중독 치유 부담금으로 게임업체의 매출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선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게임 산업이 자멸할 것이라며 온몸으로 입법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게임업체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자정 노력을 꾀하지는 않고, 사행성 게임 양산으로 돈벌이에만 치중해왔다는 지적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게임이 안고 있는 어두운 폐해는 분명 존재한다. 게임 과몰입으로 파탄한 사고가 잦은 만큼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도 세계적인 트렌드와 산업의 성장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이 몇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가 될 수 있다. ngsun@

객석

중국 난통에서 보낸 편지



안성만
세아특수강 과정
중국주재원

저는 세아특수강의 중국법인 난통공장에서 근무하는 안성만 과장입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있는 이곳은 강소성 난통시 개발구에 있으며, 2008년 10월 가동을 시작해 올해로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2011년 12월 상하이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중국의 출산 환경은 한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만실은 아내와 3명의 임산부가 같은 방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입 금지인데다가, 간호사나 의사의 도움 없이 임산부 혼자 출산해야 합니다. 제 아내도 결국 혼자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를 후 퇴원 수속을 밟는데, 아기 이름이 필요하더군요. 중국 병원에서는 출산 후 퇴원 시 출생의학 증명서를 발급해주는데, 이것이 없으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고 호적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리 아기 이름을 준비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혹시 중국에서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작명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처음 난통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중국인들이 민망할 정도로 위 아래로 뚫어져라 보곤 했습니다. 난통에는 한국 기업이 많지 않아 한국인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으로 중국인들이 대부분 한국말 할두 마디는 할 줄 알고,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가 한국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요즘 난통에 있는 한국 식당에 가 보면 중국인이 더 많습니다. 또한 중국법인 현지채용인 중에도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어 공부를 별도로 한 직원도 있고, 한국에서 유학한 직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복을 기원하면서 붉은색 봉투(홍바오)에 축의금을 담아서 축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처럼 흰색 봉투는 사용하지 않으니, 중국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홍바오를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자의 눈

더딘 '구조' 신속한 '진압'



진도-윤필호
정치경제부/
beetlebeum@

누구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능력을 갈고 닦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는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정부에게는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책임이 따른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당시부터 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고치면서까지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냈다. 사건 초기에는 부처 간 불협 사나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가하면 재난본부만 10여개를 구성하는 등 생색내기에도 몰두하는 행태를 보였다.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보차단도 등장했다.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부처재난안

전대책본부'에서는 브리핑 때마다 질문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한차례 번복이는 신속함을 과시했다. 애꿎은 실종자 가족들이 20일 서울 청와대로 가서 정부의 책임을 뚫겠다며 가두행진에 나서자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 남은 희망을 위해 대통령에게 다시 나서달라는 상징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막아서서 몸싸움을 벌였다. 평소 같으면 경찰 본연의 일이라 여길 수도 있었겠지만 구조와 수습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늦장 대응을 해온 정부의 탈썰어진 모습이 떠올라서인지 경찰의 육탄저지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같은 현상이지만 전혀 다른 장면도 있었다. 일부 여성 경찰관들이 진도대교를 앞두고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자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실종자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민 것이다. 한 여경은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눈시울까지 붉혔다. 무신경한 대응보다 가족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송영록의 스마트樂

윤리에 무너진 전문경영인 신화

방일석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51)가 회사 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물품대금을 하위로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광고비 지급을 가장해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회사에서 구입한 그림을 개인 사무실로 가져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그는 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어기고 2011년 올림푸스 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자신의 측근 정보 씨에게 퇴직 위로금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관측물 인세대금 명목으로 2억8000여만원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림푸스 일본 본사에 최고경영자(CEO)의 경영능력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 5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영업실적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회사 재무제표를 하위로 작성 공시했다. 검찰은 횡령한 자금을 부동산 구입이나 주식투자,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자·IT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주고 있다. 방일석 전 대표가 누구인가. 삼성전자 일본주재원을 거쳐 2000년 올림푸스한국의 초대 법인장으로 취임한 그는 2011년 2월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올림푸스 본사 집행임원으로 선임되는 등 지난 13년간 성공한 전문경영인으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올림푸스한국은 방 전 대표가 본사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사실상 독립경영을 해왔고, 그는 이를 각종 비리에 악용했다. 스타 CEO가 윤리 앞에 무너진 셈이다. 기업들은 저마다 윤리경영을 외치고 있지만, 전문경영인부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윤리경영은 요원하다. 그들의 비리 뒤에 더 추악한 아랫 직원들의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검찰 관계자는 "방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빼돌려 전달하던 부하직원들이 방 전 대표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염돼 오히려 더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전문경영인의 윤리의식은 본인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방증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오너의 윤리의식 부재에 대해 지적해왔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전문경영인의 윤리의식 부재는 더 심각하다. 오너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면, 일부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일을 꾸민다. 방일석 전 대표뿐만이 아니다. 이석재 전 KT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쇼핑용 임직원들이 횡령한 회사 돈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 롯데쇼핑 대표는 지난 18일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다. 각종 제도를 마련해도 사람들의 인식 이 바뀌지 않으면 비윤리적 관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비윤리적 행동은 추후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기업문화 만들기를 위해 뒷물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리도 성공한 스타 CEO를 잃고 싶지 않다. 신업무 기자 syr@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논설실 (02)799-2657 정치경제부 (02)799-2655 산업부 (02)799-2664 문화부 (02)799-2669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시강부 (02)799-2658 사회생활부 (02)799-2661 국제경제부 (02)799-2650 사진팀 (02)799-263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03 / 260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정진권 시인의 시는 쉽고도 아름답다. 외유내강외柔內剛의 경계와 같은 환물빛 슬픔이 있다. 또한 생명의 무구한 천진성을 유감없이 드러내 준다. 그의 시는 한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는 분명 시처럼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다. —채규판(시인, 원광대 교수)

山岷雨 정진권 시집

정진권(鄭鎭權)

필명: 산인우(山岷雨)
전북 김제 출생
옥구, 군산에서 성장
월간 <한글씨> 시 등단
시집 '버브나그네', 출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재 (주)대우M&C 대표이사

정진권은 1999년부터 500여 권 출간 각종 문학상과 우수도서 등에 선정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남긴다는 것은 인생의 길목에서 무엇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책은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거나 여러 가지 여건(문단의 등단, 나이, 경력, 전국서점 전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진흥 속에 숨겨진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한 기획 단계부터 협의, 전국서점 유통과 판매, 언론의 보도자료 배포, 일간지 및 온라인 광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출간 대상 원고>
시집·소설·에세이·자기계발·인문교양·자서전·여행·인물·평전·학술·칼럼 (특별한 아이템이 있는 원고·메스컴에 적극적인 홍보가 됐으면 하는 원고)

청어는 따뜻한 마음으로 명품 책을 만듭니다

청어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55길 45-8
대표 (02)686-0477 (E-mail) ppj20@hanmail.net
www.chungeobook.com

(청어출판사 우리말 사랑 캠페인)로
네나들이: 서로 네나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넌 또는 그런 사이

내 목소리가 시각장애인의 눈 된다면...

서울여대 학생들 소설·어학·종교 등 책 녹음봉사
교육부서 4000만원 지원받아 녹음부스 3개 설치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대학원생 최진아(25·여)씨는 매주 한번 교내 도서관에 마련된 도서녹음 부스를 방문한다. 최씨는 이곳에서 90여명의 재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듣는 책'을 녹음한다.

최씨는 "일주일에 한 번 녹음 부스를 찾아 진도표에 따라 한 번에 10~15페이지를 녹음한다"며 "수업 시간에 쫓겨 바쁘지만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서울여대는 작년 10월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부서에서 예산 4000만원을 지원받아 녹음부스 3개와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녹음된 책은 복지관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ARS),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만난다. 녹음 도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수는 하루

평균 8000여명에 달한다.

점자 도서는 부피가 큰 데다 시간이 흐르면 점자가 눌러 못 쓰게 되지만 녹음 도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소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어학, 건강,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찾으면서 40~50대가 주를 이루는 복지관 자원봉사자보다는 관련 지식을 갖춘 '젊은 목소리'가 절실해졌다.

서울여대와 복지관은 지난 2월 간단한 '오디션'을 거쳐 학생 자원봉사자를 선발했다. 학생들의 목소리 특징에 따라 녹음할 책을 배분했다. 전해정 서울여대 총장도 봉사에 참여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매주 녹음하고 있다.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목소리의 억양, 속도, 호흡 등을 조절하는 세밀함이 필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녹음 봉사를 하고 있는 서울여대 최상하, 최진아, 장은선씨(왼쪽부터).

요하다. 에세이집 '온기'를 녹음하는 국어국문학과 장은선(25·여)씨는 "봉사 활동은 보통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야 하지만 녹음 봉사는 혼자 하는 자선과의 약속"이라며 "자신을 다독여야 하는 점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학과 최상하(20·여)씨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을 녹음하고 있다. 그는 "녹음된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어색할 때도 있다"며 "처음에는 실수도 잦아서 한 페이지를 녹음하는 데 한 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지금은 한 시간에 5~10페이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영남 기자 kwan@

“다문화 엄마들의 예술성 보여주세요”

동대문구 문화·예술 교육
서울시·문체부 지원 나서
자립심 키우고 정착 도와

랩 '다문화 엄마, 동대문구에 꽃이다'가 지역특성과 문화예술교육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오는 30일부터 11월26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탐방, 시장 산책, 관공서 탐방·실습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외에도 한국의 전통 놀이와 한국문화 감상을 통해 한국과 친해지기, 푸드아트를 이용한 정서 순화 놀이, 동네 관찰 후 사진찍기, 연극놀이 등 정서와 예술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뤄진다. 교육일정 말미에는 참가자들이 각자 만든 이야기와 연극 발표·시연,

사진 전시회 등도 열린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씩 총 30차례에 걸쳐 교육이 이뤄진다.

박선한 빌리브라트 대표는 "최근 이주 여성들을 위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이들은 위한 순수 문화예술교육이 설 자리를 잃은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문화적 혼란을 겪게 된 여성들에게 장기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과 정착 의식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



대한전선 사랑의 헌혈 캠페인

대한전선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17일 이들 동안 진행된 헌혈 행사는 안양 분사 임직원과 당진 공장 임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헌혈을 통해 부족한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매년 2회 이상 전사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선은 헌혈 캠페인 외에도 '저소득층 아동대상 문화나들이', '주거환경개선봉사' 등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강영남 기자 kwan@

과학·정보통신의 날 유공자 95명 포상

정부는 21일 제47회 과학의 날, 22일 제5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진흥 유공자 95명에 대해 훈장, 포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부문 1등급 훈장인 창조장은 박상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정문술 전 미래산업 대표이사, 장순호 한동대 총장에게 수여된다.

혁신장은 김상수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 5명, 웅비장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등 6명, 도야장은 김석중 대구과학대 총장 등 7명, 진보장은 김종기 ㈜산정 대표이사 등 8명에게 돌아간다.

과학기술포장은 한석태 한국전력연구원 선임본부장 등 8명이 수상한다.

정보방송통신 부문에서는 2등급 훈장인 황조근정훈장이 이재홍 서울대 교수에게, 동탑산업훈장은 류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에게 수여된다.

근정포장은 남찬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산업포장은 김이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여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노용영 동국대 교수 등 18명, 정보통신 분야의 이봉규 연세대 교수 등 6명에게는 대통령표창이 수여된다.

국무총리표창은 과학기술 분야의 우진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24명, 정보통신 분야의 김홍철 한국과학기술사업자협회 회장 등 6명이 각각 수상한다.

미래부 장관표창자로는 우수과학어린이 5859명, 우수과학교사 245명, 과학기술 유공자 178명 등 6282명을 선정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 심어요”

윤광중 안양 청소년 쉼터 이사장
미술·음악 등 치유프로그램 운영



축제, 뮤지컬 공연, 미술·음악치료 등이 바로 그것.

여기에 경제활동 기술훈련과 포유 가족음악회 등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

“위기 청소년을 희망 청소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해 나갈 작정입니다.”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복지 사각지대로부터 구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안양에 문을 연 청소년 쉼터 포유(For You)의 윤광중(사진) 이사장(신일교회 당회장)은 이곳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 '자상한 아버지'로 불린다.

21일 경기일보(한상근 기자 hsg@)에 따르면 쉼터 설립 초기부터 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던 그는 지난 2010년 이사장으로 추대되면서 지금까지 눈 코 뜰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학대와 방임, 폭력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은 명 자국들을 일일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 이사장은 어려서부터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굶어질 대로 굶어질 입소생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동·하계 수련회, 봄·가을 나들이, 청소년

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이들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소년 쉼터 포유에 입소하는 청소년은 한해 평균 300여명. 이들 청소년 중 90% 이상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살던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윤 이사장은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빈곤이라는 경제의 사각지대, 문맹이라는 '교육의 사각지대', 불치병이라는 '치료의 사각지대', 소외라는 '인간관계의 사각지대',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난과 불행은 물려받은 우리 결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해 신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며 쉼터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산림청 47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

이유미 연구관 국립수목원장에

산림청 개청 이후 47년 만에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했다.

산림청은 이유미(사진) 국립수목원 임업연구관을 광동숲 보전과 산림식물의 보전·관리를 총괄하는 국립수목원장에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목원과 식물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 원장은 서울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산림청 임업연구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국립수목원 식물보존과, 생물표본과 등을 거쳐 지난 1월까지 산림생물



조사과장으로 근무했다.

이 원장은 1999년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 데 기틀을 마련한 수목원과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

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다.

이 신임 원장은 “우리나라 산림생물종에 대한 조사·수집·분류와 보전 및 희귀특산식물의 보전과 복원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한편 수목원을 국민이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산림의 기반으로 연결하는 데 온 정성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권탄준 교수 한국불교학회 신임 회장

한국불교학회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21대 회장에 권탄준(64)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신임 회장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불교학회 이사와 동국대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금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부터 2년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인사

◆한법재판소 ◇한법연구관보 신규 임용 △공수진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허무진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장 김진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김승본

◆농촌진흥청 ◇과장급(전보) △기술협력국장 노수현

◆산림청 ◇고위공무원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한국철도시설공단 ◇처장급 △기획혁신본부 유리아시아철도추진단TF 총괄팀장 김동훈 ◇부장급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차영경 △감사실 시스템감사부장 전광준 △감사실 청렴감찰부장 황용하 △안전실 안전계획부장 이선영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공생발전부장 박정범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경영전략부장 김영균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조직부장 이재우 △기획혁신본부 경영성과처 혁신유리부장 김동범 △기획혁신본부 정보관리처 철도산업정보센터부장 신주영 △기획혁신본부 법무처 법규부장

김 건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영향평가부장 민병균 △건설본부 일반철도처 남부권부장 최원일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광역사업부장 임명규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민자사업부장 민경화 △건설본부 건축설비처 설비부장 유동호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융합전략부장 정상국 △기술본부 신호통신처 열차제어부장 이현목 △기술본부 궤도처 기준부장 공기원 △기술본부 궤도처 설계부장 차문규 △기술본부 궤도처 사업부장 이호룡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열차조정부장 나석주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종합시운전부장 김형룡 △기술본부 수송계획처 선로배분TF부장 김흥기 △기술본부 시설장비사무소 사업지원부장 고창남 △기술본부 시설장비사무소 장비차량부장 정상훈 △시설사업본부 시설계획처 기획부장 이현철 △시설사업본부 해외철도사업처 사업총괄부장 김충기 △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사업처 사업기획부장 진옥수 △시설사업본부 자산개발사업처 역세권부장 김경렬 △시설사업본부 행복주택사업처 주택사업부장 이수준 △경영지원실 노무복지처 후생부장 한병덕 △연구원 정책연구소 경영정책부장 유병호 △연구원 정책연구소 환경정책부장 임관규 △연구

원 기술연구소 시설부장 백효순 △연구원 기술연구소 전기부장 박민주 △연구원 기술연구소 시험연구국TF부장 김중호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재산관리부장 송성태 △수도권본부 재산지원처 남부재산운영부장 김석락 △수도권본부 용지시설처 북부용지부장 강창호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수도권고속PM1부장 박기주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수도권고속PM2부장 기인도 △수도권본부 건설총괄처 민자사업PM부장 여호관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 궤도PM부장 이동호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 건축설비PM부장 이문봉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 전철전력PM부장 홍석진 △수도권본부 건설기술처 신호통신PM부장 윤용춘 △수도권본부 김포지하철건설사업단TF 사업총괄팀장 문재우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총무부장 김태은 △영남본부 시설지원처 시설부장 배준형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동해중부PM부장 김찬식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건축설비PM부장 박용문 △영남본부 건설기술처 전기PM부장 나학주 △호남본부 시설지원처 재산용지부장 전진호 △호남본부 시설지원처 시설부장 김중수 △충청본부 시설지원처 총무부장 김성연 △충청본부 시설지원처 시설

부장 박종승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대전도심/포송평대PM부장 정성용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궤도PM부장 황만호 △강원본부 건설기술처 총무부장 최경서 △강원본부 건설기술처 궤도PM부장 천원길 △시설사업본부 오만사업추진준비TF팀장 박대근 △경기도 파견 이종일

◆금융감독원 ◇국·실장 △기획검사국장 겸 선임국장 권순찬 △IT·금융정보보호담당장 겸 선임국장 김유미 △서민금융지원국장 겸 선임국장 이주형 △기획조정국장 양현근 △총무국장 이상구 △인재개발원 실장 조운근 △국제협력국장 김성범 △동경사무소장 정갑재 △북경사무소장 문영민 △감독총괄국장 김영기 △부산지원장 이진식 △대구지원장 정용원 △광주지원장 조국환 △전주출장소장 김동진 △강릉출장소장 양일남 △거시감독국장 류찬우 △제재심의실 국장 김준현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부센터장 임병순 △보험감독국장 박홍찬 △보험상품감독국장 김용우 △보험조사국장 이준호 △생명보험검사국장 문재익 △순해보험검사국장 진태국 △금융경영분석실장 박상춘 △IT감독실장 정인화 △순행리스크지원실장 운영식 △상호연계감독국장 오희서 △기업금융개선

국장 민병진 △일반은행검사국장 구경모 △저축은행검사국장 송현 △대부업검사실장 안용환 △상호금융검사국장 이문준 △중소기업지원실장 안세훈 △금융투자감독국장 민병현 △자산운용감독실장 장준경 △복합금융감독국장 권오상 △기업공시국장 김재룡 △기업공시제도실장 최윤근 △금융투자검사국장 김현열 △특별조사국장 조두영 △회계감독국장 박화춘 △회계제도실장 김성원 △회계감독2국장 고인목 △소비자보호총괄국장 박용욱 △금융민원실장 이갑주 △금융교육국장 조호제 △금융민원조정실장 오홍주 △감사실 국장 조철래 △감찰실 국장 박

은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입학홍보처장 최진규 △행정처장 최동수 △학술정보처장 이재영 △산학협력단장 김광 △국제교류원장 한신호 △생활관장 송건호 △컴퓨터공학부 학부장 정희훈 △에너지전기공학과 학과장 장홍순 △국제교류원 국제교류팀장 노영주 △창업보육센터장 김진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장 박덕민 △총무팀장(직대) 신정배

◆코스맥스바이오 ◇전보 △신규사업본부장 겸 연구소 총괄 김태환 △마케팅본부장 백주현

부음

▲박재순·철순(동서위생 회장)·동순(아람휴비스 대표)·정상(MC&T 대표)·정운(한국외국어대 영어과 교수)씨 모친상 = 19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410-6919

▲조재영(서울대 공대 교수)·재민(KTB 자산운용 대표)씨 모친상, 구본식(화성 부

회장)씨 장모상 = 19일 오전 1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 오전 6시, 02-3010-2232

▲안혜용(사립)·혜성(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보상채권부장)·혜경씨 부친상 = 2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2일 오전, 02-2262-4815

▲윤광준(사진작가)씨 모친상 = 20일 오후, 여의도성모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779-1526

2014년 개장 골프장						
지역	골프장	홀수(회원제)	홀수(대중제)	업체	소재지	등록
수도권	골프존카운티안성H		18	골프존카운티	안성시 보개면	6월
	석모도		18	해물개발	강화군 삼산면	6월
	솔트베이		18	성담	시흥시 장곡동	2월
	타이거		18	타이거프로젝트	파주시 파평면	9월
	페렘 서두리		18	페렘인프라	여주시 정동면	5월
충청권	세일		18	세일개발	충주시 신니면	5월
	현대터키스		36	현대도시개발	태안군 태안읍	5월
호남권	에콜리안영광		9	국민체육진흥공단	전남 영광군	5월
	함평나비		9	엘스골프디앤씨	전남 함평군	2월
영남권	해운대비치	18		C&S자산관리	부산 기장군	2월
	김해상록		18	공무원연금공단	경남 김해시	8월
	시엘		9	금호개발	경북 영천시	1월

넘쳐나는 골프장... '저가 경쟁' 불붙나

함평나비 등 13개소 개장 대기
사업성 떨어진 회원제는 1곳뿐

올해 말 전국 골프장수 507개
이미 적정수 450개 훌쩍 넘어

그린피 할인·서비스 강화 등
고객 유치전 더욱 치열해질 듯

혹독한 불황 속 신규 골프장들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 따르면 올해 개장 예상 골프장은 13개(회원제 1개·대중제 12개), 증설 골프장은 3개로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1곳 늘었다. 전남 함평의 함평나비(대중제 9홀), 부산 기장군의 해운대비치(회원제 18홀), 경북 영천의 시엘(대중제 9홀), 경기 시흥의 솔트베이(대중제 18홀)는 올해 초 등록을 마쳐 5월이면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은 8개(증설 2개 포함)로 가장 많은 신규 골프장이 개장하고, 호남권과 영남권은 3개, 충청권은 2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과 제주에는 새롭게 문을 여는 골프장이 없다.

신규 골프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30개가 문을 열었다. 골프 회원권 가격이 정점을 찍은 2007년에는 21개로 가장 많은 회원제 골프장이 개장

했다. 2010년에도 19개가 오픈했지만 지난해 4개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1개만이 개장을 앞두고 있다. 회원권 가치 폭락과 입회금 반환 대란 등으로 회원권 분양을 통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 최대 원인이다.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2008년(33개) 가장 많았고, 2012년 24개, 지난해에는 19개였다. 이처럼 회원제에 비해 대중제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당초 회원제 골프장을 목표로 했다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만약 개장 예정인 13개 골프장이 전 부문 열 경우 국내 골프장 수는 507개가 된다. 적정 골프장 수로 추정되는 450개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골프장 간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중제 골프장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13 골프장 경영실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내 83개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28.3%로 2012년(33.5%)보다 5.2%포인트 줄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는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이전과 달리 서비스는 강화되겠지만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그린피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중제 골프장은 경영난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 소장은 또 "2016년까지 매년 10~14개 정도의 골프장이 추가로 문을 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이후엔 더 이상의 신규 골프장은 없을 것"이라며 대중제 골프장도 포화상태에 있음을 강조했다.

노캐디 및 캐디 선택제 도입 골프장은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김계환

한국골프컨설팅 대표는 "국내 골프장이 대부분 산악 지형에 조성된 코스인 만큼 셉터 라운드로 인한 안전 사고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며 "올해 오픈하는 대부분의 골프장도 산악형 코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골프장 구인난도 갈수록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홍보·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져 CEO도 팔을 걷어붙이고 내장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은 힘들고 매출은 오르지 않아 골프장 취업 희망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태극낭자, 우승소식 언제나...

올 LPGA 준우승만 3번 '부진'

미셀 위 4년 만에 정상... 美 4승

현재 8개 대회 호주·스웨덴 2승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여자선수들이 우승에 목말라 하고 있다. 올 시즌 8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아직까지 우승 소식이 없기 때문이다.

20일(한국시간) 종료된 롯데 챔피언십에서는 미셀 위(24·미국)가 개인 통산 3번째이자 4년 만의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미국은 제시 카 코다, 폴라 크리머, 렉시 톰슨, 미셀위가 각각 1승을 차지하며 4승을 챙겼고, 호주와 스웨덴은 2승씩 나눠 가졌다. 한국은 매 대회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준우승 3회, 3위 2회, 4위 3회가 전부다.

지난해 8개 대회를 마친 시점에서 4회(신지애 1회·박인비 3회)의 우승컵을 가져온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누구보다 박인비(사진)의 '부진' 아닌 '부진'이 문제다. 박인비는 올해 혼다 LPGA 타일랜드 2위 등 6개 대회 중 5개 대회에서 '톱10'에 들어 상금순위 7위(39만4649달러·4억976만원)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로 우승만 못했을 뿐 결코 나쁜 성적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8개 대회를 마친 시점에서 3승이라는 눈부신 실적을 올렸다. 결국 박인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박인비, 최운정(23·볼빅) 등 일부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는 선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상금왕 박인비를 비롯해 유소연(5위), 김인경(7위), 최나연(9위), 박희영(10위) 등 무려 5명의 선수가 상금순위 '톱10'에 진입하는 고른 활약을 펼쳤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로 무대를 옮긴 신지애(26)의 공백도 크다. 지난해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한국팀에 가장 먼저 승전보를 전한 신지애는 박인비와 함께 가장 안정적 기량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이다.

이신 J골프 해설위원은 "최고의 성적을 올린 지난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시즌 중반부터 컨디션을 회복하는 만큼 아직 부진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오상민 기자 golf5@

2014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

양학선 '펄펄' 손연재 '휘휘'

신기술 '양학선2' 선보이며 도마 금메달
마루서도 銀... 아시안게임 메달 청신호

리본·후프·볼 '금빛 연기'... 3관왕 올라
볼에선 18.200점으로 개인최고점 경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0·연세대)가 2014 코리아컵 국제체조대회 후프와 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도마의 신'으로 통하는 기계체조의 양학선(22·한국체대) 역시 주종목인 도마에서 금메달을 땀 마루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양학선은 19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도마에서 1·2차 평균 15.412점을 기록하며 우승했다. 2위를 차지한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이고르 라디비로프(우크라이나·15.037점)와는 점수차가 크게 났다. 양학선은 특히 2차 시기에서 기존의 '스카하라 트리플(도마를 옆으로 짚고 세 바퀴를 회전하는 기술)에서 반 바퀴를 더 도는 신기술인 '양학선2'를 선보여 15.92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마 금메달에 이어 20일 열린 마루에서 양학선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14.825점을 받은 양학선은 1위를 차지한 그리스의 엘레프테리오스 코스미디스(15.125



양학선



손연재

재는 볼에서도 18.200점으로 스타니우타(17.850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추가했다. 특히 볼에서의 18.200점은 지난 페사로 월드컵에서 받은 개인 최고점 18.100점을 넘어선 것이다. 손연재는 "여러 종목에서 1등을 해 더 열심히 할 힘이 생겼다.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차상엽 기자 sycha@

HYUNDAI
MnSOFT

softman
soft, beyond smart

말하라!
그 길이 열릴 것이다

(현대엠엔소프트 품질테스트 결과)
국내 최다 200만개 단어인식, 국내 최고 음성인식률!

소프트맨 음성인식 내비게이션

사용설명서가 필요없을 만큼 편리한 내비게이션

설명서가 필요없는 쉬운 사용성
소프트맨 S571

편리하고 안전한 음성인식 경로 탐색
소프트맨 S571V

8인치 대형 화면의 우수한 시인성
소프트맨 S581V

매립 전용 9인치 최고급 프리미엄 품질
소프트맨 S591V

http://www.softman.co.kr

본 제품의 수리금 등 일부는 무료 기술 지원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고객센터 1577-4729 | 현대엠엔소프트㈜ 창립점 모집 안내 : 02-3483-8471, 8473

업계 최초 연동유희 홀 센터 운영 & 전국 약 50여 개 서비스 지정점 구축



평생 동안 50% 할인받고 산다

able 펀드마켓

당신의 **온라인 펀드생활**이 시작되는 곳!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평생 50% 할인받고,
펀드전문가의 투자컨설팅 서비스까지!

(단, 온라인전용펀드 및 온라인클래스펀드 제외)

2014년 말일까지 현대증권 홈페이지 내 able펀드마켓, HTS, MTS로 펀드를 신규가입하거나
able펀드마켓을 통해 펀드 이동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분기 단위로 할인금액 계산 후
해당펀드 매수계좌로 캐시백 입금해드립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평생 할인도 받고! 기간: 2014년 3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현대증권 홈페이지 <http://www.hdable.c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나와라 똑딱! 순금골드바 이벤트

대상: 펀드 신규 가입 및 펀드 이동 고객 (잔고 100만원 이상)
추첨방법: 4월, 5월, 6월 말 기준 총 3회
경품: 1등 | 금 3.75g/10돈(1명) | 2등 | 금 3.75g/5돈(5명)
3등 | 금 3.75g/1돈(20명)



선착순 사은품 증정 이벤트

대상: 온라인(able펀드마켓, HTS, MTS)을 통해 10만원
(매수신청금액 기준) 이상 펀드 신규가입, 이동 시 (매월 500명)
사은품: 황사마스크, 커피 기프트콘 등 매월 1종 선정



문화상품권 이벤트

26개운용사, 120여 개 펀드 중 원하시는 펀드 신규,
이동 가입 시 운용사 별 최대 5만원 상품권 증정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1137호(2014년 3월 5일~2015년 3월 2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펀드 가입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 당사부담

able  **현대증권**

Inside ▶▶▶



해피 워크 / 포스코

23면



'싱글 KT' 도약 첫걸음

24면



오픈마켓 '간편 결제' 서비스

25면

스마트폰 3차대전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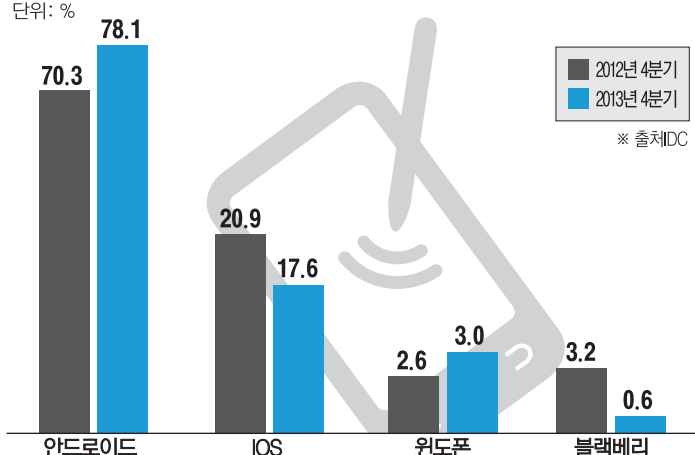
Cover Story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추이

	2013년	2012년	2011년		2013년	2012년	2011년
삼성전자	32.30%	30.40%	19.90%	LG전자	4.80%	3.80%	4.10%
애플	15.50%	19.40%	19%	ZTE	3.90%	3.60%	2.70%
화웨이	5.10%	4.30%	3.40%	소니	3.90%	4.40%	4.30%
레노보	4.60%	-	-	노키아	3.10%	5%	15.80%

※ 출처: SA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 점유율 추이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피쳐폰의 시절, 세계 휴대폰 시장의 정상은 노키아였다. 2위 삼성전자와 3위 LG전자, 여기에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 등이 있었지만 노키아를 따라잡는다는 건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어쩌보면 평온한 시절이었다. 아이폰즈 서비스와 MP3를 넘어선 정보 단말기인 '아이팟'으로 IT업계를 뒤흔든 애플이 휴대폰 시장에 도전하기 전까지의 얘기다.

2007년 애플이 통화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을 선보이면서 판도는 변한다. 이른바 스마트폰의 충격이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 휴대폰 업계를 뒤흔들자, 노키아는 추락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전 세계 스마트폰 1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애플이라면 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전략 스마트폰 '옵티아'를 내놓지만 참패한다. 하지만 곧바로 구글과 협력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갤럭시S'를 출시한다.

이때부터 아이폰 천하는 아이폰과 갤럭시의 양강 체제로 바뀐다. 급기야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스마트폰 1위에 올라선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전쟁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됐다.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3차 세계 대전에 돌입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LG전자와 중국계 기업 등이 치고 올라오는 형국이다.

노키아, 소니 등 과거 왕좌들도 속속 부활을 노리고 있다. 올해는 특히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사이즈 키운 애플·G3 출시 앞당기는 LG

갤럭시S5와 정면승부... 中 화웨이 합류

피쳐폰·특허전 이은 '대화면 전쟁' 돌입

노키아·소니 과거 영광찾아 부활 도전

전망이다.

애플의 경우, 고집스러운 작은 사이즈의 스마트폰 전략을 버리고 5인치 이상의 제품도 출시한다. 현재 IT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6'가 4.7인치와 5.5인치 두 종류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故) 스티브 잡스가 "한손으로 조작할 수 없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던 크기다.

아이폰6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아이폰은 '잡스 사이즈'에서 벗어나 갤럭시와 정면대결을 펼치게 된다. 지난해 '아이폰5C'를 통해 저가 시장에도 진출한 애플은 올해 이 시장을 늘릴 계획이다.

세계 1위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5'로 애플의 추격을 뿌리친다는 각오다. 삼성전자는 이달 11일 갤럭시S5를 '갤럭시S4'의 두 배가 넘는 125개 국가에서 동시 판매했다.

미국에서는 첫날 전체 판매 실적이 갤럭시S4의 1.3배에 달하는 등 사업자별로 고른 판매 성과를 보였다.

미국 소비자들은 주요 구매 요인으로 카메라 성능, 방수·방진 기능, 뛰어난 디스플레이를 꼽았다. 프랑스 파리 마들렌에 위치한 삼성 스토어에서도 8시 개장 직후 한 시간 만에 200대가 판매되고, 준비된 수량 800대가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갤럭시S5의 방진 기능과 울트라 파워세이빙 모드 등 현지 환경에 특화된 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어 중동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가을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도 선보일 계획이다.

LG전자는 전략 스마트폰 'G3'를 예정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출시하며 승부수를 건다. 'G프로2' 이후 신작 공백기를 줄이고 삼성전자 갤럭시S5와 정면 승부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HTC, 화웨이, ZTE 등 중국 업체들의 거센 도전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과거 짝퉁 및 저 사양 스마트폰을 주로 내놨지만, 최근에는 선두권에 크게 뒤지지 않는 사양의 제품을 출시하며 삼성전자와 애플을 위협하고 있다. 지구인들의 필수품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벌이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를 들여다 본다.

송영록 기자 syr@

커버스토리 20·21면



삼성 '삼각편대' 출격...LG, 투트랙 전략...팬택, 기술혁신

〈스마트폰·웨어러블·태블릿〉

〈프리미엄·중저가 시장 공략〉

국내 기업 '회심의 카드'는

스마트폰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할 '회심의 카드'를 하나, 둘 꺼내들고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 혁신을 앞세운 '초격차 실현전략'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30.4%)보다 1.9%포인트 증가한 32.3%를 기록했다. 애플의 경우 2012년 19.4%에서 지난해 15.5%로 떨어져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프리미엄부터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중국과 인도·중남미 등 신흥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더불어 '삼성 기어2', '삼성 기어 핏'을 계기로 본격적인 웨어러블 시대를 연다. 태블릿PC의 경우 지난해 판매량(4000만~4200만대)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한 1억대를 목표로 잡았다.

신종균 IM(IT·모바일)부문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4에서 한계 돌파 키워드로 '스마트폰·웨어러블·태블릿'의 모바일 삼각편대를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달 11일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UAE, 남아공 등 125개국에 갤럭시S5를 동시 출시하면서 전작을 상회하는 인기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순항을 시작했다. 125개국 동시 출시



삼성, 글로벌 점유율 32.4% 순항
'갤럭시 신화' 태블릿PC에도 접목

단일 모델로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사상 최대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5월까지 전 세계 150여개국 350여개 통신사업자를 통해 갤럭시S5를 순차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갤럭시S5는 5.1인치 풀HD(1920×1080)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 전작인 갤럭시S4의 4.99인치보다 넓은 화면을 제공한다. 보안 기능으로는 팬택과 애플에 이어 지문인식 스캐너를 자사 최초

LG 'G프로2' 홍콩 등 아시아 출시
'노크코드' 기능·보안 편의성 강화

로 적용했다. 이 기능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 등에도 사용, 활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일상생활에서 물거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IP67 수준의 생활방수·방진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1등 신화'를 쓴 스마트폰 '청궁 DNA'를 태블릿PC에 접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관련 시장을 이끌어 나갈 생각이다. 이를 위해 올해



삼성전자 직원이 홍보 마케팅 일환으로 삼성 기어 시리즈 제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주고 있다(왼쪽). LG전자는 'G프로2'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LG전자 모델이 제품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LG전자

팬택 '시크릿' 베가 고유 플랫폼으로
'아이언2' 24일 공개...“신시장 진출”

12.2인치 대화면 태블릿PC를 최초로 선보여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LG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대화면 전략 스마트폰 'G프로2'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G프로2는 5.9인치 풀HD IPS 화면, 새로운 보안솔루션인 '노크코드', 'OIS플러스' 기술이 적용된 1300만 화소 카메라, 1W(와트) 고출력 스피커 등을 탑재했다. 여기에 '메직포커스'와 '미니뷰' 같은 다양한 사용자경험(UX)도 갖췄다. 'G프로2'의 단연 돋보이는 기능은 '노크코드'다. '노크온'에 보안성과 편의성을 더한 혁신적인 보안솔루션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본인만의 노크 패턴으로 화면을 켜는 동시에 잠금 해제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G시리즈'와 중저가

스마트폰 L시리즈(3G) 및 F시리즈(LTE)의 '투트랙 전략'으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LTE 스마트폰을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3분의 1 이상으로 가져가고, 빠르게 성장하는 중저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G 스마트폰 L시리즈의 모델 수를 지난해 4개에서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팬택은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리얼 메탈, 지문인식 기반 '시크릿 기능'을 '베가' 고유의 제품 플랫폼으로 확립했다. 지난해 8월, 10월, 12월 차례로 선보인 '베가LTE-A', '베가 시크릿 노트', '베가 시크릿 업'이 대표적인 제품이다.

팬택은 지난해 4월 엔드리스 메탈(하나로 이어진 금속 테두리)로 화제를 모은 '베가 아이언'의 후속작을 이달 24일 공개하고 다음달 초 출시에 돌입한다. '베가 아이언2'는 5.3인치 풀HD 디스플레이에 13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했다.

팬택 관계자는 "수익성 위주로 해외사업을 재편해 기술 및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철저한 손익 위주 경영을 통해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진 기자 js62@

스마트폰 3사 모델 비교

	갤럭시S5	G프로2	베가아이언2 (6월 출시)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크기	72.5 x 142.0 x 8.1mm	81.9 x 157.9 x 8.3mm	미공개
디스플레이	5.1인치 풀HD 슈퍼아몰레드	5.9인치 풀HD IPS	5.3인치 풀HD 디스플레이
CPU	퀄컴 스냅드래곤 805	퀄컴 스냅드래곤 800	퀄컴 스냅드래곤 801
메모리	2GB 램	3GB 램	3GB 램
카메라	1600만 화소	1300만 화소 OIS플러스	1300만 화소
배터리	2800mAh	3220mAh	3200mAh
OS	안드로이드 4.4 킷캣	안드로이드 4.4 킷캣	안드로이드 4.4 킷캣

손목에 착 감기는 '웨어러블' 물건이네~

필수 아이템 부상... 기능·디자인 관심

삼성 '기어2' '기어핏' 전화 송수신 호환
소니 '스마트워치2' 스마트폰 연동 장점

'웨어러블의 춘추전국시대'. 몸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이 스마트폰 '패키지'에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 기기의 업그레이드 수준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는 '뜨거운 감자'다.

현재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삼성의 '기어2', '기어핏', 소니의 '스마트워치2'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모토로라 '모토360', LG전자 'G워치'는 연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모토360과 G워치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웨어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주도의 타이젠OS와의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웨어러블 기기로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삼성 기어2와 기어핏이다. 기어2는 전화 송수신이 타 제품보다 원활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기어핏은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기존 손목착용 웨어러블 기기보다 세련된 디자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기어2는 소니의 스마트워치2와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통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스마트워치2는 소니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지'와 연동하는 전용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어야 통화를 받을 수 있다. 기어2의 경우 스피커를 본체에 내장하고 있어 바로 통화 가능하다.

반면 스마트기기와의 연동 범위는 스마트워치2가 기어2보다 더 넓다. 스마트워치2는 안드로이드 OS 4.0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하다. 물론 소니 스마트폰과 연동할 경우 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기어2는 삼성전자가 제작한 스마트기기만 연동이 된다. 현재 갤럭시S5, 갤럭시S4, 갤럭시노트3를 비롯해 스마트폰 13종과 갤럭시노트 프로 12.2 등 태블릿 PC 3종 등 총 16개 제품과 연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제조사 제품과 연동이 안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기어핏은 전화, 카메라 기능이 모두 빠져 있지만 스마트폰과 연동하지 않아도 착용자의 심박동수를 알려준다. 이밖에 출시를 목전에 둔 모토로라는 실제 손목 시계 모형을 본 듯 디자인을 한층 더 부가설계했다. LG전자의 G워치는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 jhsseo@

웨어러블 제품 비교	삼성전자 기어2	삼성전자 기어핏	소니 스마트워치2	모토로라 모토 360	LG전자 G워치
크기	36.9×58.4mm	23.4 x 57.4mm	42x41mm		
두께	10mm	11.95mm	9mm		
무게	68g	27g	122g		
운영체제	타이젠OS	RTOS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0	올해 3분기 출시 예정 /안드로이드웨어 OS 탑재(구글)	7월 영국에서 출시 /안드로이드웨어 OS 탑재(구글)
카메라	200만 화소	없음	없음		
기타	배터리 2-3일	커브드 슈퍼 AMOLED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마음껏 누리세요!

SMART K

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상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융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 ~ 60일	61 ~ 90일	91 ~ 180일	연체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율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앱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앱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보유지불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당보증권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잡스 사이즈’ 포기... 디스플레이 4.7인치까지 커질 듯

〈잡스 생전 ‘신의 크기’라 인식된 3.5인치〉

애플 ‘아이폰6’ 출격 대기

삼성전자가 ‘갤럭시S5’를 출시하며 기선제압에 나선 가운데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6’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아이폰6부터 화면 크기를 키울 것으로 전망한다. 작은 화면으로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갤럭시노트’ 등 경쟁 제품과 승부하기 힘들 것이라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아이폰 시리즈가 최대 4인치 디스플레이를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아이폰6는 화면 크기가 4.7인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리퀴드 메탈 바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일 것으로 전망된다. 영상 전문 사이트 테크월드브이(TechTV)가 공개한 유출 영상에 따르면 화면은 더 커지고 베젤은 얇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 좌우 베젤은 1mm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기존 아이폰5S 코롬 모서리까지 표현해 눈길을 끈다. 최근 무베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아이폰의 콤팩트함을 살리고 화면 넓이를 키우기 위한 애플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이폰6는 차기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8’을 적용할 전망이다. 또 iOS7에서 처음 선보인 자동차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카플레이’ 기능과 함께 애플의 차세대 건강관리 솔루션으로 알려진 ‘헬스북’도 대기앉이나 온도, 습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내장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5인치 이상 대화면으로 돌풍을 일으킨 삼성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쫓긴 대형 스마트폰 시장을 되찾기 위해 5.5인치 대화면을 채택한 ‘아이폰6S(가칭)’를 10월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크기는 고(故) 스티브 잡스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던 크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과 이통사는 더 큰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한다는 애플 내부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잡스 생전에 ‘신의 크기’던 3.5인치가 이제 너무 작다는 사실을 애플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크기를 키운 새로운 아이폰은 ‘아이패드 에어’처럼



기존 숫자 중심의 넘버링 대신 새로운 명칭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대화면 ‘갤럭시노트’ 시리즈 두 전략 모델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과 흡사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대결 구도는 ‘갤럭시S vs 아이폰’, ‘갤럭시노트 vs 아이폰노트(가칭)’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가격 변화도 예상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이 이동통신업체와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6의 가격을 100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아이폰5S의 무약정 가격은 16GB 모델이 649달러(약 70만원)다.

미국 월가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피터 미셸은 “이동통신업체와의 가격인상 협상에서 초기 반응은 냉담하지만 100달러는 안 되더라도 최소 50달러 선까지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애플이 ‘고가-저가’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애플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

iOS8 적용... 헬스북 등 센서 내장

갤럭시노트 공략 5.5인치 버전도

이통사와 100달러 인상 방안 논의

최근 더 저렴한 아이폰5C 출시도

대상으로 예전 세대 아이폰에 100달러 할인을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저가형 아이폰5C를 내놓았다. 특히 애플은 최근 아이폰5C를 더 저렴한 버전으로 출시했다. 예전 최저가 모델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8GB 메모리를 장착했다. 이 제품은 지난달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중국에서 출시됐다. 이번 신제품은 경쟁업체들이 스마트폰 저가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달러 이하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이 큰 비율을 차지한다. 아이폰5C마저도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스마트

폰보다 비싸다. 애플의 아이폰 전략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예다.

한편, 애플의 1·2분기 아이폰 판매량은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아이폰6가 출시되는 3분기에는 전작 아이폰5S의 판매량을 훨씬 뛰어넘는 폭발적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큰 화면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기기 교체를 대기하고 있는 중국에서 2년 약정 조건의 아이폰6가 출시되는 하반기 두드러진 판매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영록 기자 syr@



	바이브Z	홍미	어센드P6
제조사명	레노버	샤오미	화웨이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4.3 젤리빈	안드로이드 4.2.2 젤리빈	안드로이드 4.2.2 젤리빈
RAM	2GB	1GB	2GB
디스플레이	5.5인치	4.7인치	4.7인치
크기	149.1x77mm	137x69mm	132.6x65.5
두께	7.9mm	9.9mm	6.18mm
무게	147g	158g	120g
카메라	후면 1300만·전면 500만 화소	후면 800만·전면 130만 화소	후면 800만·전면 500만 화소

기능은 ‘기본’ 가격은 ‘최강’ 중국 스마트폰이 몰려온다

삼성·애플 고사양 전쟁 틈새 노려

샤오미·화웨이·레노버 승승장구

‘2분 만에 10만대가 팔렸다.’

삼성전자도, 애플의 신제품 출시 얘기도 아니다. 바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홍미(紅米)’를 출시하면서 세운 기록이다. 158g, 9.9mm 두께의 다소 투박한 디자인과 1GB 램 등 뛰어난지 않은 사양을 갖추고 있는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으로 10만명의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중국 스마트폰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샤오미 홍미의 파죽지세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이엔드를 지향하며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경쟁력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웨이는 초슬림을 공략했다.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 ‘어센드 P6’는 두께 6.18mm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스마트폰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중국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사양은 하이엔드급이 아닌 기본 수준으

로 안드로이드 4.2.2 젤리빈을 기반으로 2GB램 등을 탑재했다. 화웨이는 어센드P6 후속작인 ‘어센드P7’을 내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센드P7은 1300만 화소의 후방 카메라, 16GB의 내장 메모리, 2460mAh의 배터리 등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사들인 레노버의 반격도 심상치 않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모토로라의 특허 상당수를 레노버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시너지는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레노버가 올해 선보인 ‘바이브Z’는 이 같은 우려를 잠재웠다. 오히려 레노버가 IBM의 PC 사업을 인수한 후 글로벌 PC업체로 성장했던 경험을 살려, 모토로라 인수를 바탕으로 세계적 스마트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모조품이 많은 중국업체 제품을 외면했는데, 최근 스마트폰이 하이엔드급으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기본 기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중국 제품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대한민국에서도 세계적인 제약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글로벌 임상시험 3상 성공적 완료

이 작은 나라에는

세계가 열광하는 음악이 있고

세계의 기준이 된 기술이 있고

세계가 사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아직 없기에

동아제약이 새롭게 도전합니다

세계가 기다리던 슈퍼항생제 개발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력을 더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

전문의약품 부문 동아ST와

일반의약품 부문 동아제약을 분리,

동아쏘시오의 이름아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국민 여러분의 80년 성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를 향하여!

이제 우리의 시장은 세계입니다



전문화된 글로벌 경영 체제 전환

동아쏘시오그룹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 기술력 - **뱅**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개발

6번 아이언 거리를 나는 이제 10번으로 친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2 ~ #11
공인클럽

☆ 뱅 롱디스턴스 Hybrid IRON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더 가볍다.** 백스핀이 더 걸린다.
반발계수 0.902의 초고반발 아이언 개발 성공으로 모든 샷이 40yd 증가하여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20년 앞선 기술로 골프클럽의 역사를 선도하는

뱅 Longdistance

3년 연속 180% 고속 성장

- ☆ **470 DRIVER**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드라이버 비거리가 33yd 증가
- ☆ **WOOD·HYBRID** 신기술로 반발계수 0.902의 세계 최초 고반발 우드 개발성공, 40yd 비거리 증가로 숏홀과 세컨샷이 편하고 투온이 아주 쉬워 골프가 재미있다

우드, 아이언도 24단계 샤프트 강도를 구비, 스윙스피드에 맞춰서 최상의 클럽 제공. 스핀인 정확도 99.9% (타사 30~40%), Low C.P.M Low Torque 방향성 극대화
세계최고 고반발 + 세계NO.1 스프링효과 + 샤프트,그립,헤드의 다양한 스펙 + 최적화된 클럽 선택을 위한 스윙분석 피팅시스템 + 업계 최고의 차별화된 A/S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대표전화 : 1544-8070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시간선택제 ‘경단녀’ 끌고, 벤처투자자 ‘청년창업’ 밀고

해피 워크

“일자리가 행복이다” 기업의 아이디어 현장

posco

포스코

홍보안내·행정지원 등 그룹사 뜻모아 시간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열어 예비창업자-투자자 연결도
육아휴직 2년·직장보육시설 설치로 여성직원 복지 앞장

포스코는 다문화 가정과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포스코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등 그룹사와 함께 1000여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판매서비스와 홍보안내, 행정지원, 시설관리 등의 직무에 우선 도입된다. 채용 시에는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중장년층을 우대할 예정이다. 판매서비스 부문에서 350명을 채용하고 홍보안내 부문에서 300명, 행정지원과 같은 업무에 200명, 시설관리 등에 150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수행업무를 고려해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6시간 사이에서 개별 결정하도록 했다. 급여와 복리후생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결정된다.

특히 포스코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존 재직 중인 직원들도 시간선택제 근무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기업과 차이다. 기존 직원들이 육아, 퇴직준비, 질병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승진, 급여, 복리후생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조정되지만 기존의 신분과 직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는 군전역 장교, 첩리지인턴 등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탄력적 근무제도와 자녀 출산 및 양육·교육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가정

친화적이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청년벤처 창업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는 올해 1월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제6회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를 개최했다.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는 벤처 아이디어를 공모해 투자자를 연결해 주거나 직접 투자 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청년벤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포스코가 육성하는 기업과 여성벤처협회 소속의 여성 최고경영자(CEO) 및 고려대 캠퍼스 CEO 과정의 대학생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총 16개 기업이 참여했다.

6기 포스코 벤처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돼 10주간의 심화 멘토링을 받았던 9개 기업(브이터치·두잇·나란·XRE·마리스텔라·폴리시스·케이컬처·아이엠에이·피스티스)들은 투자자 및 일반인들 앞에서 기업설명회를 가졌다. 향후 이들 기업은 포스코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여성벤처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슈니복스, 앤팜, 브랜덤 등 3개사와 고려대에서 추천받은 대학생 예비창업자들이 CEO인 회사 드림코드, 3D#, T-flex 등 3개사가 시제품 전시회를 통해 투자자와 일반 대중에게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했다.

포스코는 2011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41개사를 대상으로 약 69억원의 지원금을 직접 투자했다. 이외에 28억원의 외부연계 투자를 유지하며

벤처기업 육성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포스코는 그동안 펼쳐왔던 벤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결실도 맺고 있다. 지난 12월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벤처창업대전에서 포스코가 직접 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 엔팩스(고속나노빔 세정기술 및 장치 개발 회사)와 브이터치(손으로 TV 등 영상기기를 터치해 제어하는 솔루션 개발회사) 2개사가 최고상인 왕중왕상과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회사 관계자는 “포스코 벤처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포스코 동반성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지원 연령과 세대 확대를 통해 벤처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가 여성 직원들을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여성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스코 여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 90일 외에 육아휴직을 법정 보장 기간인 1년에 1년을 더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포스코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승진과 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했다. 포스코는 2006년부터 포항, 광양, 서울에 사업장별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했다. 2012년에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포항은 99명에서 195명으로, 광양은 99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며 규모를 확장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재밀봉이 가능한 음료용 캔뚜껑 제조업체인 XRE의 서진혁 대표가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 행사에서 자사의 캔뚜껑을 적용한 음료캔을 들고 밀봉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포스코가 사내 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의인 '여직원 멘토링 데이'에 포스코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는 작년 2월 18일 포스코센터 4층에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문화카페 '카페오아시아' 1호점의 문을 열었다.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결혼이주한 여성들이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

사회적 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결혼이주여성 꿈 현실로

포스코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스위드 등 4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930여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다. 더불어 다문화가정, 간병인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5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인 '카페오아시아'는 포스코의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사례다. 카페오아시아 포레카점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온 3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월급은 적지만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 상여금과 퇴직금은 물론 식비까지 제공된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의 조기 정착과 경제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던 중 결혼이주여성의 카페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후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소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다문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준 카페오아시아 1호점(포레카점)은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다문

화가정을 지원하는 포스코가 직원들의 휴식공간을 카페오아시아에 무상으로 제공했고, 고용노동부는 작년 1월 카페오아시아 포레카점을 첫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지금은 포스코센터뿐 아니라 포스코건설, 포스코ICT, 포스코P&S에도 카페오아시아가 입점해 있다. 카페오아시아는 앞으로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원, 카페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제철소 내 카페 '이디

야에 몽골이주여성 체빌마(31, 한국 이름 채미진) 씨를 바리스타로 채용했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한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배려한 것이다.

체빌마씨는 “아직은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항상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솜씨 있는 바리스타가 되겠다”며 한국에서의 제대로 된 첫 직장을 얻은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2년부터 한국어와 모국어로 능통한 결혼이주여성을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해 엄마가 직접 자녀들에게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언어 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WATER

당신이 채워주세요

1억 명의 아이들이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고
20초에 한 명이 더러운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으나
150만 아이들의 죽음은 예방할 수 있는 것이었기에,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2, UN)
우리는 전쟁WAR과도 같은 이 상황에서
작은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희망의 물WATER를 선물해주세요

굿네이버스 식수위생지원사업 후원신청 1599-0300 (월 3만원)

정기후원금은 해외 22개 국가에서 오염된 물과 환경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한 식수개선사업에 사용됩니다.
Good Water Project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안전한 물과 위생적인 환경을 선물해주기 위한 굿네이버스의 식수지원캠페인입니다.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

‘싱글 kt’ 첫걸음... “될성부른 인재 찾아서 키운다”



지난해 6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이동통신사업 전시회 'MAE 2013' 현장에서 출시 제품 설명과 외국인 상담을 직접 진행할 직원 18명을 선발했다. 사진은 선발된 요원들이 서초 올레캠퍼스 1층에서 성공적 행사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향후 KT 회장은 지난주 전 계열사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1등 KT를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황 회장은 그 해법을 ‘싱글 KT’에서 찾았다. 전 계열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이다. KT는 이를 위해 신입사원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새내기들의 자신감과 협동심을 바탕으로 싱글 KT를 이루고 1등 통신사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KT는 IT에 특화된 글로벌 인재 발굴·육성에 집중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답을 인재에서 찾기 위함이다.

◇IT·글로벌 등 전문성 갖춘 인재 선호 = KT는 급변하는 IT 환경과 적극적 글로벌 진출 전략에 따라 다양한 인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특히 IT 분야 특화인력과 글로벌 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직무별 차별화된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 신입사원들이 직무배치 후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회사와 개인이 모두 동반 성장하는 방향으로 인사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KT는 'Kreative Tomorrow(창의적인 태도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전문 인재)'를 토대로 업무에 대한 최고 전문가로서 상호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 관점의 혁신적 사고를 지향한다.

KT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크게 Ownership(주인의식), Challenge(도전정신), Collaboration(협동심) 등 3가지다. 먼저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주도하는 인재를 선호한다. 세계 최고의 상품 제공을 위해 끝까지 열정을 쏟으면서 주도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인물을 뽑겠다는 의도다. 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도전적 인재를 선택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와의 협력으로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인재를 뽑는다. 나보다 우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파트너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하는 인재상을 중요시한다.

◇인재 육성이 곧 기업 경쟁력 = KT의 인재 육성은 △현장 전문가 육성 △직무 전문가 육성 △차

IT 특화된 글로벌형 발굴 초점

어학점수 폐지 등 열린채용 지향
자소서로만 뽑는 오디션도 진행

입사 후엔 현장·직무 전문가 육성

온·오프라인 500여개 과정 보유
리더십아카데미 연수원도 운영

세대 리더 육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전략은 직책별 총 5단계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현장 팀장 후보자 과정부터 시작해 현장 지사장까지 수준별로 구성돼 있다. 현장에서 고객만족과 매출신장을 위한 모든 업무를 자율적으로 지휘하는 현장지휘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회사는 KT리더십아카데미 연수원을 통해 현장리더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모든 교육은 사내 우수한 사례를 분석해 토론회 과정을 거쳐 각자 소속부서에 두 달 동안 적용한다. 이후 그 결과를 다시 발표하는 3단계 순환방식으로 진행한다.

직무 전문가 육성은 모든 직원의 직무 역량 수준

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직원은 다면평가와 다양한 참조지표를 통해 총 5등급의 역량 수준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일체 인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KT 직무교육은 400여개의 오프라인 과정과 100여개의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됐다. 상시 학습을 위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이러닝 직무교육부터' 'KT 1등 전문가 과정'까지 개인별 역량 수준별로 진행된다. 최고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인원들은 다시 사내 강사 육성 프로그램 과정을 밟는다.

KT는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해 직책 수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모든 과정의 기본 골자는 조별 참여자들이 스스로 경영진에 제안하려는 주제를 선정하고 현재 회사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은 타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관련업계 분석, 대안 제시 등 3~6개월 동안 장기 과제를 수행한다. 모든 사항에 대해 정리가 끝나면 결과물을 임원회의에서 발표한다.

◇어학·학점 점수 폐지...스펙 대신 준비된 인재 열린 채용 = KT는 학벌과 자격증 등 스펙 대신 능력 위주의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는 열린 채용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학점수·학점 등의 수치적 제한을 폐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절차 중 서류전형 일일 배수를 자회사까지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현장 면접 '올레 스타 오디션'을 실시했다. 오디션 채용 응시자는 사전 신청 900명, 현장 신청자 270명 총 1000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특정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거나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경우, 학벌·스펙·어학능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선발하는 '달인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역에 LTE 등 최상의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 거점지역 대학 출신 우수인재'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하고 있다.

김범근 기자 nova@

‘MWC 2014’ 현장에서 활약한 신입사원들

노련한 베테랑보다 젊음·패기로 외국인에 제품 설명·상담도 적극

국제행사서 신입 배치 처음

10대 1 경쟁률 뚫은 16명 선발

5주간 프레젠테이션 교육 받고

부스 디자인 등 홍보 전반 수행

“신입사원의 패기로 KT의 IT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왔습니다.”

지난 2월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 전시회 'MWC 2014'에 파견됐던 KT 신입사원들은 전시 요원으로 일한 경험이 글로벌 마인드를 체득하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신입사원들은 전시회 현장에서 출시 제품 설명과 외국인 상담을 직접 진행하며 국제적 감각을 체득했다. 사실 국제적 행사에 노련한 베테랑 직원이 아닌 신입사원을 파견한 것은 기업으로서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신입사원을 국제 행사에 전시 요원으로 배치한 것은 KT가 처음이다.

KT는 국내 1등이 아닌, 세계 1등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과격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KT 관계자는 “전시회에 파견한 신입사원들은 유망한 외국어 실력과 글로벌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에 대한 로열티와 열정,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2월말 열린 'GSMA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 개막을 앞두고 KT 신입사원들이 전시장인 파르그라비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별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별그대’ 천송이 코트 해외직판 쉽게 쉽게~



결제수단	인증방식	특징	입력정보
간편 결제			
페이핀		단일 비밀번호로 전체 서비스 결제가능 계좌이체는 통합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계좌이체 오픈 연내 우리은행 등 9개 은행과 제휴 완료 예정	통합 비밀번호 (6~12자리 숫자)
스마트페이		카드 결제정보 사전 입력 후 휴대폰 입력으로 간편 결제 최초 1회 결제 후 추가 정보입력 필요 없음 현대, 삼성카드 등 서비스 추가 확대 협의 중	휴대폰 문자인증
모카페이 (유비페이)		카드별 PIN 설정 계좌이체는 공인인증, MOCCA PIN, 계좌비밀번호 등 입력	카드별 PIN (6~10자리 숫자)
카드사 간편결제		신한, 삼성, 현대 등 안심클릭 계열의 카드사 제공 안심클릭의 입력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	ID(영문+숫자) 비밀번호(영문+숫자) SMS 인증번호(숫자)
하나·SK스마트페이		전용 앱을 통한 간편결제 제공 등록을 위해 2개 앱을 별도로 설치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영문+숫자)
인증결제			
ISP		비씨, 국민카드 중심의 서비스 PC와 모바일의 동일한 인증서 이용	비밀번호(영문+숫자)
안심클릭		신한, 삼성, 현대 등 카드사 제공 PC와 모바일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입력절차가 매우 복잡함	카드번호(16자리 숫자) 비밀번호(영문+숫자) CVC(3자리 숫자)

오픈마켓 승부처는 ‘편리한 결제’

“돈 내는 걸 어렵게 만들면 소비자는 도망갑니다. 한류를 타고 급증하는 해외 역직구 고객도 적다 놓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아마존과 같은 세계적 온라인 유통기업은 절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결제 방식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에 대한 이민화 한국벤처협회장의 일갈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승부처가 마케팅에서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 가고 있다. 아무리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과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해도 결제가 복잡하면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 발생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38조49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성장했다. 업계는 온라인 오픈마켓 성장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결제 시장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공인인증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결제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사이버 ‘인감도장’이다. 실제로 공인인증서 그 자체는 보안성이 매우 뛰어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온라인 인증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법이 어렵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경우, 최소 3단계 이상의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 등 사용이 번거로워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자결제 시장의 빠른 성장과는 달리 시스템 진화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간편결제는 결제정보를 미리 저장해 두면 다음 번에는 원클릭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효과는 엄청났다.

간편결제의 효과를 가장 특목본 업체는 11번가다. 11번가는

작년 사이버쇼핑 거래액 38조4940억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시장성장 걸림돌

11번가, 간편결제 ‘페이핀’ 발빠른 적용

오픈마켓 3위·모바일 1위로 꺾풍 뛰어

옥션·G마켓도 ‘스마일 페이’ 서비스

SK플래닛이 개발한 ‘페이핀’을 발빠르게 적용했다. 페이핀은 상품 구매 결정과 함께 최종결제가 이뤄지는 과정을 통합비밀번호 입력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게 했다. 이에 11번가는 후발 주자임에도 옥션, G마켓, 인터넷 등의 거래량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국내 3위 오픈마켓으로 도약했다.

이 같은 편리함은 모바일 쇼퍼까지도 11번가로 끌어들이며 단숨에 모바일 판매량 1위로 올라놓았다. 화면 크기가 작고 키보드 사용이 어려운 모바일에서 간편결제의 강력한 힘이 더욱 빛을 발했던 것이다. SK플래닛에 따르면 페이핀 도입 이후 월평균 이용 고객 4배 이상 늘었고, 평균 거래량은 2배 이상 증가했다.

11번가는 최근 실시간 계좌이체도 페이핀 시스템을 적용했다.

페이핀 비밀번호와 결제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할 수 있다. 기존에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옥션과 G마켓도 뒤늦게나마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쇼핑 시 간편결제가 가능한 ‘스마일페이(SmilePay)’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일페이는 최초 결제 시 카드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 휴대폰 인증만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결제가 가능하다. 구매 때마다 하던 카드번호 입력이나 본인 인증을 휴대폰 인증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보안과 광고를 위해 겹겹이 뜨는 팝업창도 없다. 카드정보 등이 최초 1회 결제 이후에는 결제 때마다 재전송되지 않아 해킹 위험도 더 낮췄다는 평가다. 30만 원 이상 결제할 때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해 두면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한 결제가 이뤄진다.

이 외에도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KT MOCCA(모카)의 ‘유비페이’는 6~10자리로 된 카드별 PIN 숫자를 넣으면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계좌이체 시 공인인증서, 모카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나 SK 스마트페이는 휴대폰 번호와 영문·숫자로 된 비밀번호만 넣으면 된다. 등록을 위해 2개의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 역시 30만원 미만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고, 30만원이 넘으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해외 업체는 일단 한 번만 결제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결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도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제 기자 psj@

美 이베이 ‘페이팔’ 국내 상륙 ‘초읽기’

아마존 결제 대행…전자결제 재편 불가피

PayPal 전 세계 전자결제(PG)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베이의 ‘페이팔’이 한국 상륙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 공룡’ 아마존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아마존 웹사이트의 온라인 결제를 대행하고 있는 페이팔 역시 함께 들어올 예정이다. 페이팔은 이베이가 인수한 옥션과 G마켓에도 진출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PG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마존은 올 2월부터 한국법인 대표로 영동훈 전 구글코리아 대표를 영입하고, 전 분야의 국내 인력을 채용하며 국내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결제 대부분을 대행하고 있는 페이팔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국내 PG업체들이 숨죽이며 이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페이팔은 안전하고도 쉬운 금융거래를 보장한다고 평가받는다. 개인의 금융정보를 등록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소비자는 이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금액에 관계없이 전자결제를 할 수 있다. 고객 정보는 암호화해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어, 페이팔의 데이터 베이스 자체가 해킹당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PG시장은 공인인증서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보안 때문이다. 문제는 공인인증서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인식하려면 별도로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며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결제 역시 카드번호와 CVC번호, 카드 만료날짜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30만원이 넘으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또 한 번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전자결제의 불편함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해외 역직구 고객 유입까지 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PG업체가 이렇게 갈라파고스적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금융규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 인증방식을 공인인증서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성을 담보할 경우 다른 인증방식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다. 페이팔 역시 한국에 진출해도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마존은 애초에 해외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유통하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전자결제는 현지의 방식을 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아마존이 국내 물품을 국내에 유통할 때다. 이 경우에도 페이팔 방식을 따른다면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그 많은 금융규제 속에서도 결제를 페이팔 수준으로 단순화시킨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며 “페이팔이 국내에 상륙해도 동등한 규제를 적용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만, 역차별이 일어난다면 정부가 나서서 자국 기업을 죽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PG업체는 결국 제휴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크기와 정비례하는 만큼 이들의 성장을 돕고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제 기자 psj@

Hi! Seoul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FORCS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OZ

재개발 없이 그대로 앱에서 보고서를 본다!

하나의 소스로 멀티플랫폼을 지원하는 스마트 OZ

OZ Report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태블릿PC에서 별도의 개발 없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전용 앱을 지원합니다.

빅이슈에 롤러코스터 타는 ‘롯데관광개발’ ‘엘디티’

〈용산 개발〉

〈사물인터넷〉

베스트&웬스트 4월 14~18일

4월 셋째주(14~18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말 대비 1.36% 상승한 2004.28로 장을 마감했다. 주중 약세를 이어가던 주가는 주말을 앞둔 18일 어려움을 극복하며 2000포인트선 진입에 성공했다. 외국인인 4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전주 대비 매수 강도가 약화됐다. 기관도 3주째 매도 우위를 보였다. 1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경계감이 확산된 가운데 원화 강세가 이어지며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매수에 570선을 돌파했다. 지난 18일 코스닥지수는 전 주말 대비 15.36(2.76%) 오른 571.23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지수는 17일 악보합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18일 반등에 성공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지난주 각각 6803억원, 7249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기관은 5938억원 순매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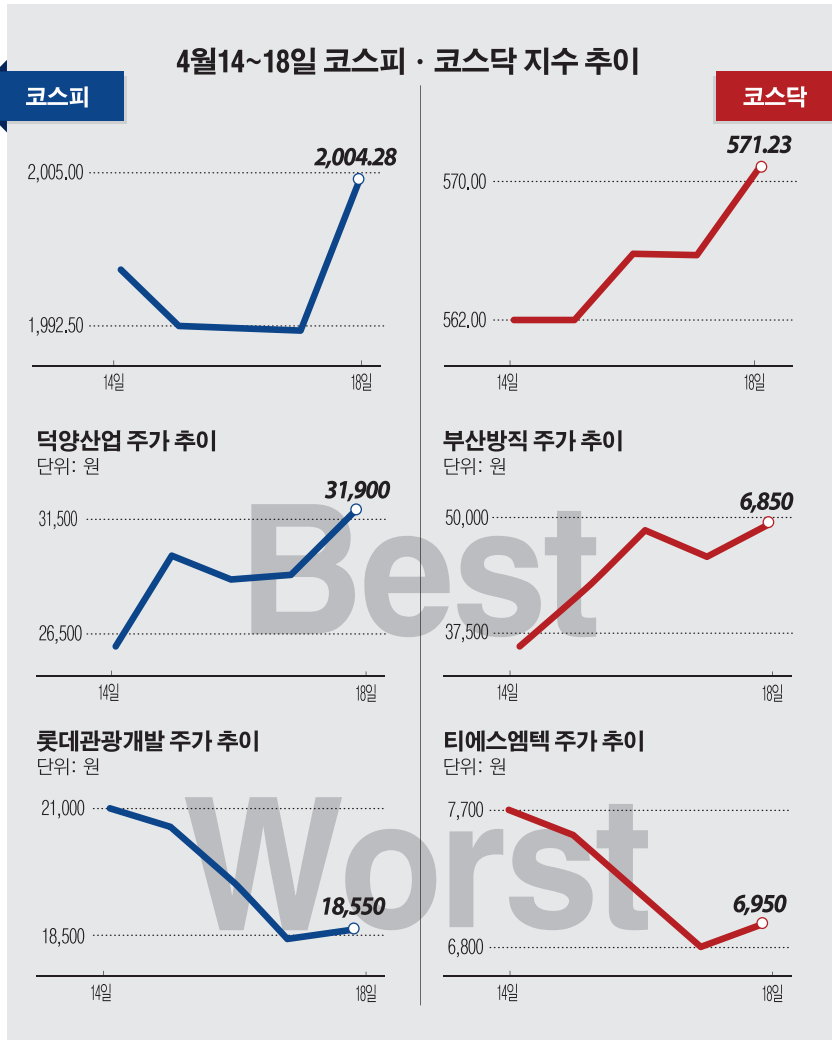
◇덕양산업, 2만3500원이던 주가 3만 1900원으로 뛰어… 35.74% ↑= 4월 셋째 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덕양산업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간 35.74%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2만3500원에 거래를 마친 주가는 18일 3만1900원까지 뛰었다. 덕양산업의 주가 상승은 최대주주 변경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덕양산업은 16일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상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최대주주가 지분매각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내장제 모듈 부품제조사인 덕양산업의 최대주주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비스테온’이었다. 덕양산업은 지난달 최대주주 ‘비히’가 보유주식 162만8249주

우리투자증권과 통합하면 자기자본 4조 4492억원으로 독보적인 업계 1위 증권사가 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완화에 따른 대형 증권사 수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관광개발, 용산개발 재추진 여부 급등락 반복… 13.72%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13.72% 하락하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2만1500원에서 1만8550원으로 주저앉았다.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올 초 8080원에서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 3월 2만원을 돌파했다. 2013년 법정관리를 조기졸업한 롯데관광개발은 2013년 말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이 중국기업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호텔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

‘덕양산업’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들쭉 35% 급등
봄 이사철 맞아 가구株 신바람 ‘에넥스’ 상승 2위
‘진원생명과학’ 운영금 마련 172억 유증…13% 뚝

를 운성희 덕양산업 부사장과 8인에게 매각하고 경영권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258억8900만원이다. 비히는 비스테온의 100% 자회사다. 에넥스가 30.62% 상승률로 2위를 차지했다. 1290원이던 주가는 1685원으로 뛰었다. 4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가구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김기영 SK증권 연구원은 “에넥스는 올해 영업실적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중 유통망 보강과 세분화가 진행되면서 내년부터 안정적인 성장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년 에넥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개별기준 각각 2865억원, 115억원으로 예상했다. NH농협증권이 22.53% 올라 상승률 5위에 이름을 올렸다. 5710원이던 주가는 6990원으로 올랐다. 지난 11일 우리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아비바생명보험)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 NH농협증권이

식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 정몽준 세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최근 용산개발을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급등세를 탔다. 유상증자를 결정한 진원생명과학이 13.65% 하락하며 하락률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5일 진원생명과학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7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다. 최대주주 지분 매각 소식에 이스타코 주가는 12.88% 하락했다. 지난 16일 이스타코는 최대주주인 김승제 대표가 15일 22만5000주(지분율 0.52%)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보유 지분을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 다이아와 S&T홀딩스 주가도 강하게 하락했다. 다이아는 지난 11일 1만3200원에 거래를 마친 주가가 18일 1만2000원까지 내려 9.09% 하락률을 보였고 S&T홀딩스 역시 8.64% 하락률을 기록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코스피 상승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4월 11일	4월 18일	
덕양산업	104	23,500	31,900	35.74
에넥스	101	1,290	1,685	30.62
이화산업	39	10,750	13,950	29.77
MH에탄올	37	4,350	5,330	22.53
NH농협증권	840	5,710	6,990	22.42
부산주공	23	1,410	1,715	21.63
교보증권	256	5,940	7,120	19.87
삼양제맥스	212	93,100	111,000	19.23
DRB동일	184	8,910	10,500	17.85
화성알앤에이	171	22,600	26,500	17.26

코스피 하락 10종목

웅진홀딩스	130	2,660	2,460	-7.52
한화케미칼	2,490	19,200	17,750	-7.55
중광원양자원	229	3,250	2,990	-8.00
동아에스티	805	119,500	109,500	-8.37
신성솔라에너지	83	1,610	1,475	-8.39
S&T홀딩스	221	16,200	14,800	-8.64
다이아	378	13,200	12,000	-9.09
이스타코	129	3,455	3,010	-12.88
진원생명과학	61	1,245	1,075	-13.65
롯데관광개발	457	21,500	18,550	-13.72

※자료 : 에프앤가이드

※자료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승 10종목

종목명	18일 시가 총액	증가(원)		주가등락률 (%)
		4월 11일	4월 18일	
부산방직	39	34,050	49,000	43.91
소프트센	39	1,690	2,325	37.57
우리넷	33	3,855	5,200	34.89
셀루메드	68	2,050	2,670	30.24
프렘파스트	25	3,150	4,075	29.37
인성정보	160	7,520	9,450	25.66
들리	79	2,155	2,680	24.36
안산이엔티	135	3,210	3,950	23.05
하이벨	85	1,775	2,175	22.54
한빛소프트	63	2,235	2,735	22.37

코스닥 하락 10종목

디비케이	22	3,960	3,710	-6.31
KCC건설	110	20,350	19,050	-6.39
키이스트	200	3,025	2,830	-6.45
삼진엔앤디	91	5,170	4,830	-6.58
선데이토즈	521	17,300	16,150	-6.65
엘디티	21	3,455	3,210	-7.09
네이블	38	8,370	7,750	-7.41
폴리비전	55	3,400	3,110	-8.53
세니트	39	1,360	1,210	-11.03
티에스엠텍	75	7,950	6,950	-12.58

※자료 : 에프앤가이드

※자료 : 에프앤가이드

◇부산방직, 리홈쿠펀 지분가치 상승에 동반 강세… 43.91%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부산방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거래일 동안 43.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3만4050원에 장을 마감한 주가는 18일 4만9000원으로 뛰었다. 부산방직의 주가 급등은 리홈쿠펀 지분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부산방직은 리홈쿠펀 지분 17.72%(62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리홈쿠펀의 성장성이 부각된 가운데 올 들어 리홈쿠펀의 주가가 두 배 가까이 뛰며 부산방직의 지분가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오두균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리홈쿠펀에 대해 “국내 전기밥솥 시장의 성장에 지속되는 데다 2·4분기부터 중국시장 공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적에 대

유지하고 있다. ◇티에스엠텍12.58% ↓… 하락률 1위는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는 티에스엠텍이 12.58% 하락하며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가는 7950원에서 6950원으로 주저앉았다. 특수재질 가공기술 장비 제조업체인 티에스엠텍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손실이 166억3659만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036억2180만원으로 37.2% 감소했고, 당기순손실은 239억5491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세니트와 폴리비전 주가 역시 강한 하락세를 보였다. 세니트 주가는 4월 셋째 주에 1360원에서 1210원으로 내려 11.03% 하락률을 기록했고 폴리비전의 주가 역시 8.53% 하락률을 보였다. 유무선 융합 통신 솔루션과 통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네이블이 7.41% 내려

밥솥시장 성장세에 리홈쿠펀 보유 ‘부산방직’ 단맛
사명 변경 ‘소프트센’ 이미지 강화 성공 30% 꺾음
‘티에스엠텍’ 작년 실적부진에 적자전환 하락 1위

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소프트센은 37.57%의 상승률을 보여 2위를 기록했다. 소프트센 주가는 1690원에서 2325원으로 올랐다. 소프트센은 최근 실적개선 기대에 상호변경 효과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티씨정보통신은 지난달 28일 빅데이터, 가상화 및 클라우드, 보안 등 정보기술(IT)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소프트센(SOFTCEN)은 소프트웨어의 ‘소프트’와 모회사인 아이티센시스템즈의 ‘센’을 결합한 것으로 솔루션사업부 조직역량과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모회사 아이티센시스템즈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넷 역시 34.8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지난 9일부터 7거래일 상승을 이어가던 주가는 18일 4.53%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광전송통신장비 제조업체 우리넷은 영업이익률 10%대

지난주 하락률 상위 4위를 기록했다. 사물인터넷 수혜 기대로 4월 둘째 주 36.02%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엘디티 주가가 4월 셋째 주에는 7.09% 내렸다. 주가는 3455원에서 3210원으로 하락했다. 엘디티가 USN 북합선사네트워크 및 물류입출고 시스템 개발업체인 아트시스템과 합병했다. 선데이토즈 주가는 6.63% 내렸다. 선데이토즈는 올해 1월 모바일게임 ‘에니팡2’를 출시한 뒤 지난달까지 주가가 174% 급등했다. 하지만 선데이토즈는 창업자인 이정웅 대표 등에서 스마일게이트로 최대주주가 바뀐 뒤 주가의 급등세는 멈췄다. 키이스트는 최대주주 매각 소식에 한 주 동안 6.45% 하락했다. 배용준 키이스트 최대주주 외 특별관계인들이 키이스트 주식을 처분해 지분율이 기존 36.9%에서 31.7%로 낮아졌다. 이에 연연인 김수현 효과로 강세를 보였던 키이스트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진 기자 heejin@

14년 만의 중소형주 랠리!
차트기법 모르고 투자하지 마라!

매주 수, 일요일 밤 8시 무료 방송진행
(www.88tv.co.kr)
대표전화: 1661 - 2788

저자 부자아빠 (정재호)

SBS CNBC 힐링머니 5-STAR 방송 출연 중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스마트폰 시청가능)

부자아빠 주식학교

홍석규 회장, 2년만에 주담대출

〈보광그룹〉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이 2년여 만에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해 대출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휘닉스홀딩스는 지난 18일 최대주주인 홍석규 회장이 보유주식 350만주 중 43%인 150만주에 대해 중소기업은행과 주식담보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휘닉스홀딩스의 최대주주는 홍 회장(350만주)과 일본법인 ㈜덴츠(350만주) 외 1인으로 59.0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담보대출 계약이 이뤄진 지난 14일 휘닉스홀딩스 종가 3070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46억원 안팎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홍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2년 7월 수협중앙회와 주식담보계약을 해지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홍 회장은 2007년 9월 보유주식 124만주에 대해 수협은행과 2년 만기로 15억원을 대출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 2009년에는 삼성세무서에 증여세분납을 이유로 25만5000주를 담보하기도 했

다.

휘닉스홀딩스 관계자는 “주식담보 계약에 대한 건은 (회장)개인 대출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대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은 보광그룹 창업주이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장인인 고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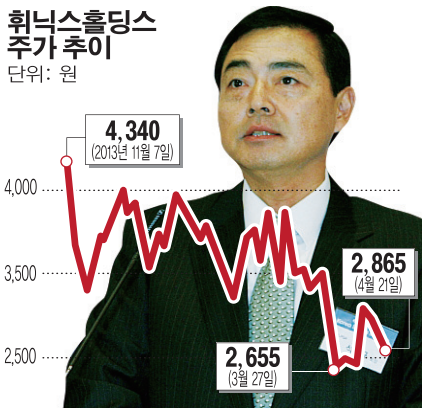
홍 회장은 보광그룹 50개 계열사 중 휘닉스홀딩스, 휘닉스소재, STS반도체통신, 코아로직 등 4개 상장사에서 임원직을 겸

직하고 있다.

휘닉스홀딩스는 회장, STS반도체통신은 대표이사, 휘닉스소재·코아로직은 이사직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표이사로 있는 STS반도체통신에서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홍 회장은 STS반도체통신에서 11억2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급여는 8억3000만원, 상여금 1억3000만원, 성과급 1억7000만원 등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삼성엘엔에스, 자회사 합병 재추진하나

줄기세포 회사 프로스테믹스 흡자전환... 시너지 효과 기대

삼성엘엔에스의 줄기세포 자회사인 프로스테믹스가 흡자전환에 성공하면서 합병이 재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프로스테믹스와 합병은 지난 2011년에도 추진됐지만 적자기업이란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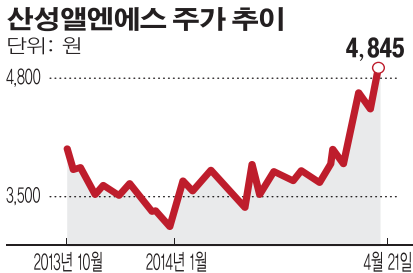
21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엘엔에스 자회사 프로스테믹스는 지난해 매출이 두 배 늘어난 100억대에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1950% 급증한 16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며 “당기순이익도 흡자전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은행(20억)과 에프웍스(5억)가 프로스테믹스에 25억원 규모의 유증에 참여한 것도 흡자전환을 한 점과 삼성엘엔에스와의 합병을 염두해 둔 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엘엔에스는 지난 47.57%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스테믹스와 2011년 합병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감독원은 적자 회사이던 프로스테믹스의 가치평가를 문제 삼으면서 합병이 무산됐다.

그러나 프로스테믹스는 지난해 매출 100억4400만원에 영업이익 16억2100만원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엘엔에스는 2012년 프로스테믹스와 합병을 철회하면서 향후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경우 합병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 단백질치료제와 줄기세포 화장품 원료 등을 생산하고 있다”며 “현재 삼성엘엔에스가 벌이고 있는 화장품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볼 때 합병이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차별원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성인 체세포를 이용해 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젠백스, 에스티큐브, 세원셀론텍, 메디포스트 등 관련주들에 관심이 높다. 국내 줄기세포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로스테믹스가 황우석 사태 이후 침체돼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스톡옵션 ‘대박’... 씨젠 부사장 ‘138%’ 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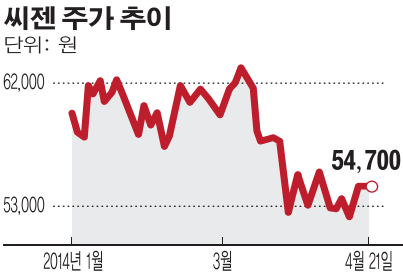
이학수, 4만주로 21억 현금화
김종기 상무 1만 2000주 행사

씨젠의 임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100% 넘는 수익률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학수 씨젠 부사장은 지난 10일 4만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주당 행사가는 2만2943원으로 이날 종가가 5만4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138.42%에 달한다.

이 부사장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2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사장은 무상인수취득, 스톡옵션 등으로 받은 물량을 장내매도하며 적잖은



차익을 누려왔다.

같은 날 김종기 상무도 1만2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김 상무도 주식매도에 나설 시 약 7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스톡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올해 부여된 5만주 포함, 총 5만3000주가 남게 됐다. 씨젠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스톡옵션을 부여해왔다.

지난 2010년 9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씨젠은 진단시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주요 제품군은 성상염증 원인균 검사제품(STD), 호흡기성 병원체 검사제품(RV/RB), HPV 검사 제품 등 감염성 병원체 진단 시약들이며, 지난해 기준으로 각각 시약 매출의 42.9%, 26.3%, 19.7%를 차지하고 있다.

씨젠은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약 매출이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분기 재고 조정으로 부진했던 성상염진단 시약 매출은 정상화될 전망”이라며 “지난해 높은 성장을 보였던 자궁경부암진단 시약도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증가에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공시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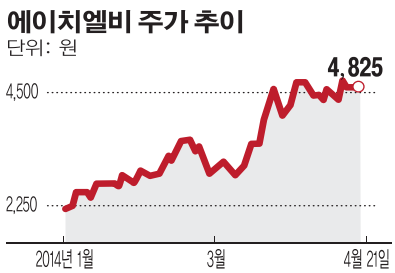
에이치엘비 투자 7년... 300% 수익
골드만삭스 ‘기다림의 미학’

골드만삭스(GOLDMAN SACHS)가 투자 7년만에 에이치엘비 워런트를 행사했다. 워런트 투자수익과 이자를 감안하면 300%에 가까운 투자수익을 챙기게 됐다.

에이치엘비는 17일 93만8578주 규모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발행총수대비 3.74%에 달하는 규모로 상장예정일은 5월2일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행사청구인은 골드만삭스 등 3곳”이라며 “이번 행사로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고 현재 행사 가능한 워런트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사된 신주인수권은 에이치엘비가 지난 2007년 5월17일 라이프코드 인터넷서널 시절에 해외에서 공모했던 사채로 총 60억원 규모로 발행했는데 워런트 행사기간은 2008년 5월17일부터 2014년 4월17일까지다. 골드만삭스



등은 투자 이후 7년을 기다려 행사가능 마지막 날 권리를 행사한 셈이다. 행사 가격은 1379원으로 행사당일 에이치엘비 종가가 4925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257.14%다.

에이치엘비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표적항암제 성공과 실적개선 기대감에 주가는 연일 상승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102.73%에 달한다.

이재용 기자 mywish73@



‘TBK 엑시트’ 삼익악기
‘오버행 이슈’ 줄어드나

IBK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삼익악기의 오버행(매도대기물량) 이슈가 줄어들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은행은 보유한 삼익악기 지분 15.90%(1333만3332주) 가운데 446만6666주(5.60%)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보유지분은 10.30%(886만6666주)로 줄었다.

지난해 3월 중소기업은행과 SK증권이 함께 운용 중인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사모투자펀드(PEF)’는 삼익악기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일자리창출 PEF는 삼익악기 전환사채(CB) 466만6666주, 신주인수권부사채(BW) 886만6666주를 주당 1500원에 인수했다.

이 가운데 보유중인 CB를 지난 10일 권리행사로 주식전환 했고, 이를 다음날 주당 2736원에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 PEF는 삼익악기 투자 1년만에 82.4%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리기도 했다.

삼익악기측 관계자는 “일반 PEF의 엑시트가 그랄릿 기관 등이 해당 물량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머지 물량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익악기는 일자리창출 PEF가 투자를 결정한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주가가 135% 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3월 1200원대에 머물렀던 주가는 지난 21일 기준 2980원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피아노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위치를 보유하는데 중국 시장에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삼익악기의 중국 모멘텀이 향후에도 유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도시 주민 피아노 보급률은 2.65%에 불과해 소득 향상, 중산층 규모 확대, 아동 관련 지출 비중 상승 등을 감안하면 추가 성장 여력이 높다”며 “삼익악기는 중국 시장에서 고가·중고가 브랜드를 통한 차별화된 마케팅 정책을 펼쳐 지속적인 외형 확대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9월 스타인웨이 지분 매각으로 1742억원 여유자금을 확보해 추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정 기자 mj@

증시 레이더

2000선 안착 관심... ‘실적’에 주목하라

이번주(4월 21일~25일)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최근 몇 주간 2000선 안착을 넘나드는 장세가 펼쳐지면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주 본격적인 어닝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기업 실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다만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려는 광장심리가 나타날 수 있어 지수는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22일 삼성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OCI, 가이차, SK하이닉스, 삼성물산, 현대상선, POSCO, 제일기획, 현대건설, 삼성SDI, 삼성전기, SK이노베이션 등 주요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작년 4분기와 같은 어닝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작기 때문. 현재 1분기 순이익 컨센서스는 작년 기저효과로 오히려 올해 1분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성준 NH농협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전체 기업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도는 둔화되고 있다”며 “지난주에 이어 조선, 통신서비스업종의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어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년 4분기 빅배스(대규모 부실처리)가 진행된 건설, 은행 업종의 실적 개선 여부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강조한다.

이민정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4분기 ‘어닝쇼크’(실적악화)를 기록한 건설과 은행 업종의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종의 경우 전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현대산업, 대우건설 등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은행 업종의 1분기 순이익은 작년 4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주 발표된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4월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3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미국의 경기신행지수, 주택지표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롯데家 애물단지 된 현대정보기술

4년간 수익 내리막 길... 자본 잠식률 32.2% 달해

롯데그룹 전산통합서비스(SI) 계열사인 현대정보기술이 롯데가(家)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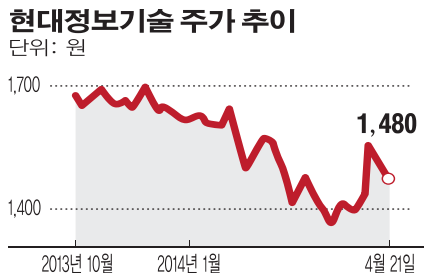
이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캐피탈로부터 다년간 지속적으로 자금수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현재 자본잠식률이 32.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정보기술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롯데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수혈받고 있다.

그 결과, 작년 말 현재 현대정보기술이 롯데캐피탈에 상환해야 할 단기차입금은 440억원, 단기사채는 200억원 이른다.

이는 2013년 말 현재 현대정보기술 자기자본대비(341억1600만원) 무려 1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100을 기준으로 그 수치가 낮을수록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이 탄탄하다고 평가되는 차입금의존도는 187.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현대정보기술에 대한 자금지원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캐피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근 4년간 현대정보기술 당기순이익은 2010년 96억6400만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3억79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후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0억2400만원, 151억2700만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눈에 봐도... 차가 움직이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다

TO THE WORLD BEST **K5**
THE NEW



The Power to Surprise

K시리즈 100만대 돌파 특별이벤트

K3 K5 K7 1-2-3 할부 프로그램 (대상: '14년 4월 개인 출고고객)
※ 라이브러드, 택시 제외

1.9~3.9%

금리 1.9%(24개월), 2.9%(36개월), 3.9%(48개월)/선수율 15% 이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아자동차 지점·대리점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당사 및 그룹사임직원, 법인, 렌트, 리스,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및 스마트컨설팅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친환경 경제로전으로 연비는 높이고, 기름값은 아끼고!
• K5 2.0 T-GDI 기술인 (4등 6단) : 복합 연비 10.3km/L (도시연비 8.9km/L, 고속도로연비 12.8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520kg 복합 CO₂ 배출량 171g/km ~ 4등급
• K5 2.0 기술인 (자동 6단) : 복합 연비 11.9km/L (도시연비 10.2km/L, 고속도로연비 15.1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15kg 복합 CO₂ 배출량 147g/km ~ 3등급
• K5 2.0 기술인 (수동 6단) : 복합 연비 12.3km/L (도시연비 10.9km/L, 고속도로연비 14.4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00kg 복합 CO₂ 배출량 142g/km ~ 3등급
• K5 2.0 T-GDI 기술인 (자동 6단) : 복합 연비 9.3km/L (도시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1.0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50kg 복합 CO₂ 배출량 145g/km ~ 5등급
• K5 2.0 T-GDI 기술인 (수동 6단) : 복합 연비 9.3km/L (도시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1.0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30kg 복합 CO₂ 배출량 135g/km ~ 4등급
• K5 2.0 T-GDI 기술인 (수동 6단) : 복합 연비 9.3km/L (도시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1.0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30kg 복합 CO₂ 배출량 135g/km ~ 4등급
• K5 2.0 T-GDI 기술인 (수동 6단) : 복합 연비 9.3km/L (도시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1.0km/L) 배기량 1,999cc 공차중량 1,450kg 복합 CO₂ 배출량 139g/km ~ 4등급



더 편리한! 소모품 관리부터 차량점검까지
더 경제적인! 주차정산부터 차량관리비용까지
더 다양한! 블랙박스부터 애플드라이브까지
소중한 내 차를 케어하는 모바일 App 출시 ※ 안드로이드 전용, iOS는 향후 적용 예정